

박사학위논문

산업위생분야 종사자들의 사회 안전의식
변화에 관한 조사 연구

- 국가 대형 안전사고 발생 전·후 비교 중심으로 -

2016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기계시스템공학과
산업위생공학전공
임대성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두용

산업위생분야 종사자들의 사회 안전의식 변화에 관한 조사 연구

- 국가 대형 안전사고 발생 전·후 비교 중심으로 -

Study on Comparison of Risk and Safety Perceptions of
Industrial Hygienists Before and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2016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기계시스템공학과
산업위생공학전공
임대성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두용

산업위생분야 종사자들의 사회 안전의식 변화에 관한 조사 연구

- 국가 대형 안전사고 발생 전·후 비교 중심으로 -

Study on Comparison of Risk and Safety Perceptions of
Industrial Hygienists Before and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위 논문을 공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기계시스템공학과
산업위생공학전공
임대성

임 대 성의 공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 0 1 6 년 6 월 일

심사 위원장 주 창 업 

심 사 위 원 윤 재 건 

심 사 위 원 박 두 용 

심 사 위 원 강 태 선 

심 사 위 원 김 치 년 

국 문 초 록

산업위생분야 종사자들의 사회 안전의식 변화에 관한 조사 연구 - 국가 대형 안전사고 발생 전·후 비교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대학원
기계시스템공학과
산업위생공학전공
임 대 성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사고 전후인 2013년 추계(N=181)와 2014년 하계(N=123) 한국산업위생학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총 5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산업위생 종사자들 중 3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국가 대형 안전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원칙을 중요시 하는 의식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특히, 이는 성별과 상관없이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30세 이상의 경우 더욱 사회 안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성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2013년과 2014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신뢰도에서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다소 낮아졌고, 2013년 대비 2014년의 안전인식 수준 평가의 주요 변화 항목은 본인의 안전의식이, '보통'이 증가하면서, '높다'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p > 0.05$). 30세 미만의 경우 본인의 안전의식 평가에서 2013년 '보통'이 34%에서 54%로 증가하였고, '높다'는 비율은 53%에서 27%로 감소하였지만($p < 0.05$), 30세 이상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사회 안전수준에 대해서는 사회가 더 위험해졌고, 불안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안전수준 점수는 2013년 0.68점에서 2014년 -0.33점으로 낮아졌다. 미래의 안전에 대해서도 2013년 0.65점이었으나 2014년 -0.02점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과거 경험으로부터 사고위험이 큰 요인은 대형교통수단 사고 > 산재사고 > 일상생활 중의 사고 > 건축물 붕괴사고 > 시설물 고장에 의한 사고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향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안전 위험요소는 여야 갈등 > 부정부패 > 시설물 고장사고 > 화재 > 대형교통수단 사고 등으로 과거 경험에 의한 사고위험요인과 다르게 응답하였다.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응답한 위험요소는 건축물 붕괴사고 > 부정부패 >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 일상생활 중의 사고 > 직업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의식 수준이 낮은 이유를 2013년에는 안전불감증 > 빨리빨리 서두르는 습관 > 눈앞의 이익만 추구 > 적당히 쉽게 처리하는 경향 > 안전교육의 미비라고 응답하였으나 2014년에는 안전불감증 > 적당히 쉽게 처리하는 경향 > 눈앞의 이익만 추구 > 안전교육의 미비 > 빨리빨리 서두르는 습관 순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2013년 72.1%에서 2014년 76.8%로 소폭 증가하였다. 이것은 세월호 이전에 이미 상당수가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원칙을 중요시 하는 태도가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를 예견하고 설문조사 설계를 한 것이 아니었고, 산업보건 전문가 및 실무자라는 특정집단으로 국한되었다는 점,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을 전후로 같은 설문지를 사용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이 응답하였으므로 사전에 설문 응답경험 등이 두 번째 설문조사를 하였을 때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요어】 안전인식, 안전의식, 사회안전, 인지위험, 위험인식, 위험인지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5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제 1 절 의식과 인식에 대한 개념정의	8
제 2 절 태도와 행동에 대한 개념정의	9
제 3 절 안전의식과 행동과의 관계	10
제 3 장 연구 설계	12
제 1 절 자료의 수집	12
제 2 절 연구 방법	12
1) 조사에 이용한 설문지	12
2) 설문지의 배포, 회수 및 분석과 비교 방법	13
제 4 장 연구 결과	14
제 1 절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교	14
제 2 절 안전의식에 대한 변화	16

1) 본인과 타인에 대한 안전 의식 수준 평가 변화	16
2) 낮은 안전의식의 원인에 대한 의식 변화	21
제 3 절 안전인식에 대한 변화	25
1) 과거, 현재, 미래의 사회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	25
2) 과거, 현재, 미래의 사회 불안에 대한 인식 변화	30
3)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	34
4) 공공기관 신뢰도에 대한 인식 변화	38
5) 안전 위험 요소별 안전 의식 변화	41
(1) 과거 경험에 대한 인식 변화	42
(2)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변화	46
(3) 개인이 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 변화	50
(4)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대한 인식 변화	54
(5) 항목별 상관관계	58
제 4 절 안전태도의 변화	59
1) 법과 원칙에 대한 태도 변화	59
(1) 경찰 처사에 대한 태도의 성별 변화	61
(2) 경찰 처사에 대한 태도의 연령별 변화	62
(3) 내가 경찰이었을 경우에 대한 태도의 성별 변화	63
(4) 내가 경찰이었을 경우에 대한 태도의 연령별 변화	64
2) 일상생활에서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태도 변화	65
3) 특정상황 별 위험과 안전에 대한 태도 변화	73
제 5 장 결 론	80
제 1 절 안전 의식의 변화	80
제 2 절 안전 인식의 변화	81

1) 사회 안전수준에 대한 안전 인식 변화	81
2) 국가 정책에 대한 안전 인식 변화	82
3) 안전 위험 요소별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	83
제 3 절 안전 태도 변화	84
제 4 절 시사점 및 한계	85
참 고 문 헌	86
부 록	91
ABSTRACT	112

표 목 차

〈표 1〉 피조사자의 일반적 특성	15
〈표 2〉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에 대한 응답 비율 (%)	17
〈표 3〉 본인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에 대한 응답 비율 (%)	17
〈표 4〉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전의식이 낮은 원인에 대한 응답 비율(%)	21
〈표 5〉 사회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	26
〈표 6〉 연도별 사회 불안 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	30
〈표 7〉 강 상류에 공단이 들어선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 (%)	34
〈표 8〉 본인의 거주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 (%)	34
〈표 9〉 본인의 거주지역에 공단이 건설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 (%)	35
〈표 10〉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성향 점수	35
〈표 11〉 공공기관 신뢰도에 대한 인식 변화	38
〈표 12〉 우리사회의 안전 위험요소 구분	41
〈표 13〉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사고의 빈도에 대한 인식 변화	42
〈표 14〉 앞으로 나에게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 변화	46
〈표 15〉 개인이 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 변화	50
〈표 16〉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변화	54
〈표 17〉 위험의 인식 항목별 상관관계 (R2)	58
〈표 18〉 법과 원칙에 대한 태도 변화 (%)	60
〈표 19〉 일상생활에서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태도 변화	66
〈표 20〉 일상생활에서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성향 점수	67
〈표 21〉 일상생활 항목 중 안전 관련 문항에 대한 태도 변화	70
〈표 22〉 특정상황 별 위험과 안전에 대한 태도 변화 (%)	74
〈표 23〉 특정상황 중 안전과 직접 관련된 문항에 대한 안전성향 점수	78

그림 목 차

[그림 1] 연도별 KISS 시스템으로 검색한 사회과학분야 안전관련 논문발행건수	7
[그림 2] 피조사자의 연령에 따른 성별 비교	15
[그림 3] 본인과 타인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 변화 (전체)	17
[그림 4] 본인과 타인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 변화 (남자)	19
[그림 5] 본인과 타인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 변화 (여자)	19
[그림 6] 본인과 타인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 변화 (30세 미만)	20
[그림 7] 본인과 타인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 변화 (30세 이상)	20
[그림 8] 낮은 안전의식 원인에 대한 의식 변화 (남자, $p=0.571$)	23
[그림 9] 낮은 안전의식 원인에 대한 의식 변화 (여자, $p=0.590$)	23
[그림 10] 낮은 안전의식 원인에 대한 의식 변화 (30세 미만, $p=0.568$)	24
[그림 11] 낮은 안전의식 원인에 대한 의식 변화 (30세 이상, $p=0.753$)	24
[그림 12] 사회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 (전체)	26
[그림 13] 사회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 (남자)	28
[그림 14] 사회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 (여자)	28
[그림 15] 사회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 (30세 미만)	29
[그림 16] 사회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 (30세 이상)	29
[그림 17]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불안 수준 (전체)	30
[그림 18]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불안 수준 (남자)	32
[그림 19]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불안 수준 (여자)	32
[그림 20]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불안 수준 (30세 미만)	33
[그림 21]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불안 수준 (30세 이상)	33
[그림 22]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성향 점수 비교 (전체)	36
[그림 23]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성향 점수 비교 (성별)	37

[그림 24]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성향 점수 비교 (연령별)	37
[그림 25] 공공기관 신뢰도 인식 변화 (남자)	39
[그림 26] 공공기관 신뢰도 인식 변화 (여자)	39
[그림 27] 공공기관 신뢰도 인식 변화 (30세 미만)	40
[그림 28] 공공기관 신뢰도 인식 변화 (30세 이상)	40
[그림 29] 과거 경험에 대한 안전 위험 요소의 인식변화 증가 폭	44
[그림 30] 과거 경험에 대한 안전 위험 요소의 인식변화 감소 폭	45
[그림 31] 발생 가능성에 대한 안전 위험 요소의 인식변화 증가 폭	48
[그림 32] 발생 가능성에 대한 안전 위험 요소의 인식변화 감소 폭	49
[그림 33] 개인 귀인에 대한 안전 위험 요소의 인식변화 증가 폭	52
[그림 34] 개인 귀인에 대한 안전 위험 요소의 인식변화 감소 폭	53
[그림 35]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안전 위험 요소의 인식변화 증가 폭	56
[그림 36]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안전 위험 요소의 인식변화 감소 폭	57
[그림 37] 경찰의 처사에 대한 성별 비교 (남자)	61
[그림 38] 경찰의 처사에 대한 성별 비교 (여자)	61
[그림 39] 경찰의 처사에 대한 연령별 비교 (30세 미만)	62
[그림 40] 경찰의 처사에 대한 연령별 비교 (30세 이상, $p=0.079$)	62
[그림 41] 내가 경찰이었을 경우에 대한 성별 비교 (남자)	63
[그림 42] 내가 경찰이었을 경우에 대한 성별 비교 (여자, $p=0.203$)	63
[그림 43] 내가 경찰이었을 경우에 대한 연령별 비교 (30세 미만)	64
[그림 44] 내가 경찰이었을 경우에 대한 연령별 비교 (30세 이상, $p=0.002$)	64
[그림 45] 일상생활에서의 위험과 안전 성향 점수 비교 (전체)	68
[그림 46] 일상생활에서의 위험과 안전 성향 점수 비교 (성별)	68
[그림 47] 일상생활에서의 위험과 안전 성향 점수 비교 (연령별)	69
[그림 48] 일상생활 중 안전 관련 문항의 안전 성향 점수 비교 (전체)	71

[그림 49] 일상생활 중 안전 관련 문항의 안전 성향 점수 비교 (성별)	71
[그림 50] 일상생활 중 안전 관련 문항의 안전 성향 점수 비교 (연령별)	72
[그림 51] 비가 올 확률이 50%일 경우 응답 결과 (남자, $p=0.013$)	75
[그림 52] 비가 올 확률이 50%일 경우 응답 결과 (여자)	75
[그림 53] 비가 올 확률이 50%일 경우 응답 결과 (30세 미만)	76
[그림 54] 비가 올 확률이 50%일 경우 응답 결과 (30세 이상, $p=0.002$)	76
[그림 55] 특정상황 중 안전 관련 문항의 안전 성향 점수 비교 (전체)	78
[그림 56] 특정상황 중 안전 관련 문항의 안전 성향 점수 비교 (성별)	79
[그림 57] 특정상황 중 안전 관련 문항의 안전 성향 점수 비교 (연령별)	7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9월), 2013년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1,5월), 현대제철 가스질식사고(5월) 등 산업재해 사고 뿐 아니라, 2013년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8월),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2월), 세월호 참사(4월), 그리고 판교 환풍기 추락사고(10월) 까지 최근 우리 사회는 각종 안전사고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국민 안전불감증 및 국가 안전시스템에 대한 변화 및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가 중대 사고는 국가의 안전시스템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안전의식 변화의 필요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와 언론,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안전의식이 변화되고 있는지, 국가의 안전 정책들은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황 등은 세월호 사고 전 여객선 승객의 안전의식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었던 반면, 사고 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황광일, 2014). 그러나 김동일 등의 연구에 의하면 2014년 현재 우리 국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17점 정도로 매우 저조하며, 이는 2007년의 30.0점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김동열, 2014). 또한 우리 생활·사회 기반시설의 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의 필요성에는 전체의 97.2%가 공감 했다고 한다.

그러나 설재훈 등의 설문조사 연구에 의하면 세월호 침몰사고는 일반국민에게 가족의 안전과 행복에 대한 인생관, 자녀의 성적과 안전에 대한 가치관, 성장과 안전에 대한 정부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증세, 대중교통요금 인상, 교통범칙금 인상 등은 반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설재훈, 2014). 설재훈은 이를 안전개선을 바라면서도 대가 지불이 없는 ‘무상안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무상복지를 바라는 것과 비슷한 심리)이라며, 세상에 무상안전(공짜안전)은 없으므로 국민들은 안전을 위해 일정부분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안전의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직접 실천하거나 부담을 지겠다는 의지는 매우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것은 안전의식의 변화가 나부터가 아닌 정부와 기업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최근 발생하는 사고의 유발요인이나 위험요인이 나를 비롯한 개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것임을 깨달은 결과일 수도 있다.

최근 국가나 사회의 목표나 지향하는 바가 무조건 경제성장이나 경제지표를 통한 사회발전보다는 국민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안전은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다(정순돌, 2007). 울리히 벡에 의하면 현대 사회는 문명의 화산위에 살아가는 ‘위험사회’이며, 위험사회는 경제적·정치적 사회발전이 개인의 안전 및 행복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으며,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가중된 불안과 위협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위험사회의 핵심 위험은 과학기술의 위험도이다(Beck, 1986). 이와 같이 현대 사회는 성장과 위험이 공존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이 발전 할수록 일반적인 안전의 위험은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초고층 빌딩의 화재, 초고속 열차의 사고 등 중대형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압축적인 산업성장은 성장에 따른 부작용과 이에 대한 적응의 문제를 야기시킨다(Bello and Rosenfeld, 1990). 우리나라는 근대적인 압축성장을 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압축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산업재해도 마찬가지이다. 즉 OECD 국가에서 산재사망

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한국사회의 산업재해는 단지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국가 사회적인 측면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문기 등은 한국사회의 산업안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사회발전 전략을 포함한 사회 환경적인 차원이 개인주의화 경향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서문기, 2008). 또한 설동훈은 위험관리는 기술적 관점에 입각하여 법률, 제도 등 규제 장치를 통해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반드시 사회문화적 요인과 개인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설동훈, 1998).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안전의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어느 한 집단의 변화나, 어느 한 시스템의 개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사회전체가 모든 구성원이 함께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산업분야에서 위험의 요소는 물리적 환경을 전제로 하거나(문정일, 1993) 개인적 결함이나 부주의에 의한 불안정한 행동으로 보기도 하지만(이근희, 1994), 인간행위와 이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의 영향이 좀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Hawley, 1986), 우리 사회 위험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 기술적 접근뿐만 아니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사회적 접근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송해룡, 2012).

이와 같이 현대사회의 위험에 대해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나 문화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안전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각 분야의 안전의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 안전지표 등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안전지표의 개발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양한 위험의 유형, 즉 지구적 생태 위험, 자연적 재해 위험, 국가적 안보 위험, 건강의 위험, 경제적 생계 위험, 기술적 재난 위험, 사회적 해체 위험 등 위험의 유형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이재열, 2005).

위험에 대한 인식조사는 지표개발 뿐 아니라, 현재의 위험수준 평가 및 국

가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국민안전처, 소방방재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등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회 안전 분야에 대한 현 수준의 국민 안전의식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안전보건 전문가 집단은 일반인보다 안전보건에 대한 감수성이나 인식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산업위생분야 종사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도에 대해 김수미 등이 조사한 결과, 일반국민이 아닌 산업위생분야 전문가 집단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의식 수준은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반면에 전문가 본인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국민의 안전의식이 낮은 이유는 안전 불감증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수미, 2014). 이러한 일반국민과 전문가 집단 간의 안전인식의 차이는 안전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와 같이 대형 국가 안전사고 전·후의 안전인식 변화는 국가 정책 수립에 많은 영향이 미치며, 일반국민 뿐 아니라 전문가 집단의 안전의식의 변화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국가 및 사업장의 안전정책 결정과정에서 안전보건 전문가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안전보건 전문가 집단의 안전의식 수준 및 변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산업위생분야 전문가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및 세월호 사고 등 국가 대형사고 전·후의 사회 안전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조사하여, 국가 대형 재난 사고가 전문가 집단의 안전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게 되는지 분석하여 향후 관련 분야 연구 및 국가의 사회안전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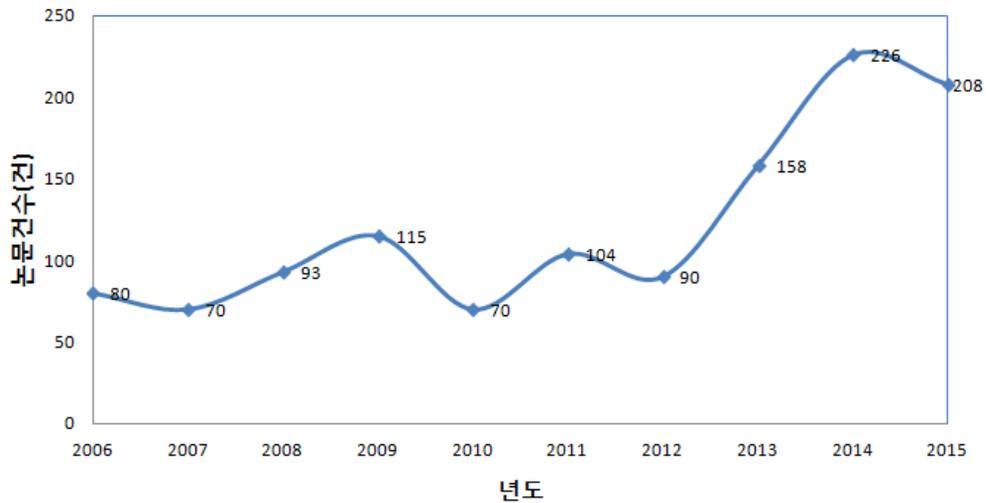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첫째, 산업보건 실무자나 전문가 집단은 사회안전에 대해 본인과 타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수준을 파악하고, 둘째,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세월호 사고 전·후의 1년 사이에 어떠한 안전의식의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셋째,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국가 재난 사고가 산업보건 전문가 집단의 안전의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며, 넷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안전의식 변화의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사회가 발달하면 할수록 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안전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기 때문이기도 하며, 사회가 발달하면서 위험요인도 점점 대형화, 고도화, 복잡화, 집적화 되기 때문에 작은 사고도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사고가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이나 가족에 위협요인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메스미디어의 발달로 안전사고에 대한 보도가 예전보다 더 신속하고 생생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감하는 안전사고의 공포나 위협은 더욱 커진 탓도 있다.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것은 사회과학분야에서 안전과 관련된 논문 발행건수를 살펴보아도 쉽게 나타난다. [그림 1]과 같이 연도별로 KISS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시스템에서 사회과학분야에서 ‘안전’ 이란 Keyword로 검색해 본 결과,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200여편이 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2012년도까지는 매년 약 9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다가 2013년 158편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에 200여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된 것이다. 이것은 국가적인 대형 안전사고를 겪으면서 안전 문제를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안전과 관련된 논문 중 안전의식이나 안전인식에 관한 기본 개념들을 다룬 논문들도 많다. 안전의식과 관련된 논문에서 대부분의 경우 안전의식과 안전인식 등의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거나, 명확한 개념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허경옥, 2013, 안성훈, 2014, 신홍철, 2015).



[그림 1] 연도별 KISS 시스템으로 검색한 사회과학분야 안전관련 논문발행건수.

안전은 사전적으로 ‘아무런 일이 없이 본디 그대로 온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장국, 2007). 사전적 의미 외에 다양한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상대어 및 유사어와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그 의미의 한정된 범위를 정하는 경우도 있다. 위험과 대비해서 보면 안전은 사고 이전의 상태에서 사고 예방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재해와 대비해서 보면 사고 발생 후 피해를 수습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피해 확산 방지까지 포함한다. 보안과 비교해서 보면 과실에 의한 사고 외에 고의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도 포함한다(이장국, 2007). 한편 안전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Wildavsky, 1988).

안전과 관련된 논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안전의식 및 인식 등은 그 의미를 한가지로 보기가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다. 안전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결과적인 측면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상태, 질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안전의식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식과 인식, 그리고 태도와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살펴보았다.

제 1 절 의식과 인식에 대한 개념정의

의식과 인식은 개념적으로 구분하기 모호하여 그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논문에서 의식과 인식의 개념적 정의 없이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논문을 통해서도 의식과 인식을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적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웠다(양정은, 2014, 설동훈 1998, 박상섭, 2010, 정익재, 2013).

의식과 인식을 영문으로는 각각 Consciousness와 awareness로 나타낸다(정지현, 2013). Dewey(1887)은 의식을 지식(Knowledge), 감정(feeling), 의지(will)의 세 형식으로 구성되며 서로 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정신활동이라고 보았다(이병승, 2009).

김은성은 의식은 머릿속에 저장된 무엇 또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나 추적할 수 없는 무엇의 의미가 강하다면 인식은 그간 몰랐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행위의 의미가 강하다고 했으며(김은성, 2005), 정지현은 인식은 이전에는 의식의 대상이 아니던 외부대상이나 사건에 대하여 의식하는 상태를 말하기도 한다고 하였다(정지현, 2013).

철학자 헤겔은 인식이란 의식의 경험을 변증법적인 방식으로 조직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며, 인식의 내용으로서의 진리는 이 과정의 각 단계에서 산출되는 내용들의 총합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강순진, 2001에서 재인용). 강영계에 의하면 인식의 형성은 사물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아는 것으로 이행하는 과정이며(강영계, 1983), Cornforth는 대상에 대한 인식은 대상의 현상이 아닌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Cornforth, 1963, 강영계, 1983에서 재인용).

이상의 논의를 살펴보면 안전의식은 안전이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 안전인식이란 의식된 안전의 개념을 바탕으로

불안전상태나 안전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인지하여 그것을 지식으로서 받아들일게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 또는 안전에 대하여 응답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므로 안전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제 2 절 태도와 행동에 대한 개념정의

안전의식이나 인식과 함께 많이 거론되고, 실제 행동 변화까지 논의할 때 거론되는 것 태도이다. 태도와 행동의 개념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최근에는 안전과 관련된 태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태도는 직접적인 경험의 반복, 학습, 강력한 체험 등이 바탕이 되어 후천적으로 형성 된다(Fishbein & Ajzen, 1975). 태도는 개인세계의 어떤 측면에 대한 동기적, 감정적, 지각적, 인식적 과정의 지속적 조직으로 정의하기도 하며(윤훈현, 2008), 어떤 목적물 또는 아이디어에 대하여 사람들이 호의적이거나 혹은 비호의적으로 행하게 되는 지속적인 인지적 평가, 느낌, 행동경향으로 정의하기도 한다(여운승, 2010). 또한 주어진 대상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반응하려는 학습된 선입관으로 해석하기도 한다(Allport, 1937). 이와 같이 태도는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학습되어 질 때 얻게 되는 몸의 변화일 것이다. 안전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반복적인 교육과 시스템 개선, 홍보 등이 지속되어야 안전에 대한 태도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태도를 학습하게 되고, 학습된 태도는 그와 관련된 행동으로 이끈다(Luts, 1985). 태도와 행동의 일치 여부에 관한 문제는 오랫동안 사회심리학적으로 다루어 오던 주제중의 하나이다. 박옥희 등이 1970년대 이후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규명한 총59편의 논문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조사에서 태도와 행동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박옥희, 1991).

결국 행동으로의 변화가 실현되어야 가치가 있는데, 태도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태도의 변화가 곧 행동의 변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제 3 절 안전의식과 행동과의 관계

안전의식은 안전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마음의 자세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거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지는 적극적인 인지도이며, 안전한 환경을 위하여 대처하는 자세이며(이경재, 2014), 위험요인(safety hazards)에 대한 인식(awareness)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는 가치(values), 태도(attitudes), 믿음(beliefs)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Forcier et al, 2001). 따라서 안전의식은 안전을 하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며,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다.

의식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연구에서는 의식이 곧바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있고(Skinner, 1938), 반대로 의식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한다(Dijksterhuis & Bargh, 2001). 또한, 구매 행동단계에서의 소비자의 안전행동에서도 안전의식과 태도와 구매행동이 관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고(이기춘 등 1993), 반대로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Brown, Crown, & Marshall, 1987; Kramer & Penner, 1987). 이처럼 의식과 행동은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명확하게 결론되어지는 것은 없다.

심리학에서 발전한 의식과 행동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식은 때로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때로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보다 복잡한 문제는 개인별로 의식정도의 차이는 행동에 있어서의 차이도 가져올 수 있을지에 관해서다. 동일한 자극(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의식은 사

람마다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이 경우, 동일한 자극이 동일한 반응(행동)을 이끌어내기 만무하다. 아울러 의식과 행동간 관계에서 주목해야할 중요한 사항은 의식과 행동이 일방향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인간은 과거 행동과 그로 인한 결과를 기억하게 되고, 이는 이후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 즉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행동으로 인해 변화되거나 수정된 의식은 다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이전 행동의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유사한 환경에 다시 처한 개인은 수정된 행동을 하거나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있다(이환성 등, 2014).

의식과 행동과의 관계는 서로 양의 관계인지 음의 관계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의식과 행동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살펴본 의식과 인식, 태도와 행동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안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의식이며, 안전의식이 갖추어져 있어야 위험을 인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안전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 결국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정리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사고 같은 대형 안전사고가 안전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더 나아가 연구 대상자들의 의식, 인식, 태도의 변화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2013년 10월 23일에 개최된 한국산업위생학회 춘계학술대회(이하 2013년 학회) 중 학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김수미, 2014)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2014년 7월 15일 한국산업위생학회 하계학술대회(이하 2014년 학회) 중 학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안전 인식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2014년 학회 참석자 중 설문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는 총 123명이다. 설문조사는 학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사전에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전문분야, 소속, 경력 등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것은 아니었고, 필요한 경우 설문에 응답자를 특성별로 분류하여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2014년 학회의 연구 대상자 자료와 2013년 학회의 연구대상자 설문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 2 절 연구 방법

1) 조사에 이용한 설문지

본 조사는 2005년 소방방재청에서 한국안전학회에 의뢰한 ‘사회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국민안전의식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국민안전의식조사 설문지를 거의 그대로 적용하였다.(이재열, 2005) 아울러, 2014년 한성대 석사논문으로 연구된 ‘산업위생분야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사회안전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에 활용된 설문지와 같은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2013년 학회와 2014년 학회에서 같은 설문지를 활용한 이유는 설문조사 내용이나 문구를 바꾸면 차후에 연구결과를 비교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며, 연구 집단 간 정확한 비교 분석을 위해서 같은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설문지의 내용의 대부분은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의식 및 불안감 등 사회 안전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총 56문항이었다.

2) 설문지의 배포, 회수 및 분석과 비교 방법

설문조사 방식은 미리 작성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한국산업위생학회의 학술대회장의 등록창구 옆에서 학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배포한 후 자기 스스로 기입한 후 배포장소로 반환하도록 하였다. 설문 응답 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편차가 생기지 않도록 설문조사지에는 성별, 연령대 등 개인을 식별하기 어려운 일반적인 정보만 기입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설문지 응답 후 되돌려 준 자에게는 상품권 추첨 응모권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Microsoft excel 및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통계검증의 귀무가설은 세월호 사고 전 후인 '2013년 10월과 2014년 7월의 안전의식의 차이가 없다'이며, 대립가설은 '2013년 10월과 2014년 7월의 안전의식의 차이가 있다'이다. 이 가설에 대해 일반적으로 95% 신뢰구간에서의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비교 방법은 2013년 학회의 연구대상자 설문 응답 결과와 2014년 학회의 연구대상자의 설문 응답 결과를 설문 문항별로 비교하였으며,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2월), 세월호 참사(4월)등을 거치면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사회적 안전의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비교하였다.

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비교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와 같다. 전체 인원은 2013년 연구 대상자가 181명, 2014년 연구 대상자는 123명으로 약 32% 감소하였다.

2014년 연구대상자의 성별 특성은 남성이 76명(62%)로 2013년 131명(72%)에 비해 55명이 감소하였으나, 여성은 47명(38%)로 2013년 50명(28%)에 비해 3명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남녀 성별비율에서 2014년에는 남성의 비율이 62%로 2013년 72%에 비해 10% 감소하였고, 여성은 10%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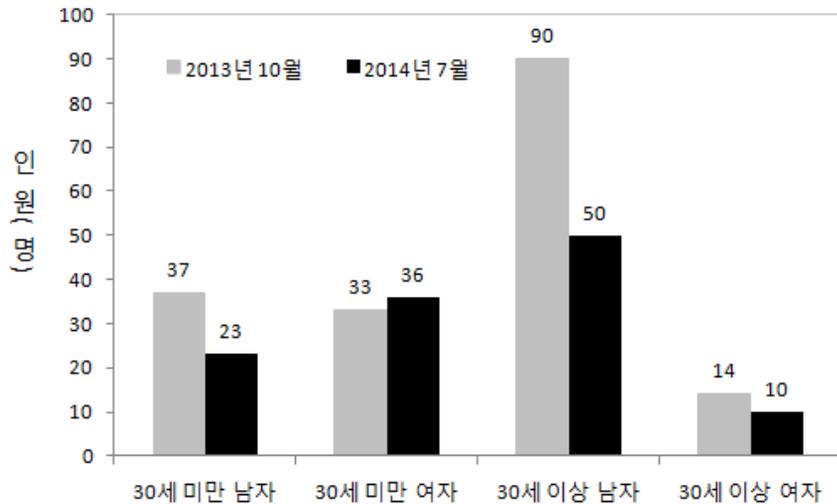
연령별 특성은 2014년 30세 미만 59명(50%), 30세 이상 60명(50%)으로 2013년 30세 미만 73명(41%), 30세 이상 107명(59%)에 비해 30세 이상 연령대가 47명(44%) 감소하였는데, [그림 2]과 같이 30세 이상 남자의 비율이 2013년 90명에서 2014년 40명으로 50명(56%) 감소하였다.

전공별 특성은 2014년 산업위생 전공자가 111명(91%)로 2013년 133명(73%)보다 인원은 적었지만 전체적인 대상비율에서는 18% 증가한 반면에 환경분야 전공자가 6명(5%)로 2013년 29명(16%)보다 23명(11%) 감소하였다.

소속기관별 특성에서는 전일제 학생이 27명(22%)으로 2013년 23명(13%)에 비해 4명(9%) 증가하였고, 병원소속이 14명(11%)으로 2013년 6명(3%)에 비해 8명(8%) 증가하였다. 반면에 사업장 소속은 3명(3%)으로 2013년 10명(6%)에 비해 7명(3%) 감소하였고, 연구소와 공공기관 소속은 각각 5명(4%), 12명(10%)으로 2013년 23명(13%), 24명(14%)에 비해 연구소는 18명(9%), 공공기관은 11명(3%) 감소하였다.

〈표 1〉 피조사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13년10월		`14년7월	
		명	%	명	%
성별	남	131	72	76	62
	여	50	28	47	38
	계	181	100	123	100
연령	30세 미만	73	41	59	50
	30세 이상	107	59	60	50
	계	180	100	119	99
전공	산업위생	133	73	111	91
	산업간호	2	1	1	1
	산업의학	2	1	3	2
	환경분야	29	16	6	5
	계	166	91	121	99
소속	전일제학생	23	13	27	22
	사업장	10	6	3	3
	측정기관	69	39	46	38
	보건관리대행기관	7	4	4	3
	대학(교원)	16	9	8	7
	연구소	23	13	5	4
	병원	6	3	14	11
	공공기관/정부기관	24	14	12	10
	계	178	100	119	98



피조사자의 성별 및 연령 분류

[그림 2] 피조사자의 연령에 따른 성별 비교.

제 2 절 안전의식에 대한 변화

1) 본인과 타인에 대한 안전 의식 수준 평가 변화

〈표 2〉와 〈표 3〉과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의식(타인)을 묻는 질문에서는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2013년 33.5%에서 2014년 23.2%로 10.3% 감소한 반면, ‘다소 낮다’와 ‘매우 낮다’ 등 ‘낮다’ 라는 응답이 2013년 58.2%에서 2014년 64.8%로 6.6% 증가하였고, ‘다소 높다’와 ‘매우 높다’ 등 ‘높다’ 라는 응답이 2013년 8.2%에서 2014년 12.0%로 증가하였다.

귀하의 안전의식 수준(본인)을 묻는 질문에서는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2013년 30.6%에서 2014년 40.8%로 10.2% 증가하였고, ‘다소 낮다’와 ‘매우 낮다’ 등 ‘낮다’ 라는 응답이 2013년 11.4%에서 2014년 15.2%로 증가한 반면, ‘다소 높다’와 ‘매우 높다’ 등 ‘높다’ 라는 응답이 2013년 57.9%에서 2014년 44.0%로 감소하였다.

2008년 사회 통계조사 결과 (통계청, 2008) 타인의 안전의식 수준을 묻는 질문의 응답으로 ‘높다’ 11.1%, ‘낮다’ 38.2%로 조사되었고, 본인의 안전의식 수준을 묻는 질문의 응답을 ‘높다’ 35.0%, ‘낮다’ 5.6% 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반 집단에서 타인의 안전의식은 낮게 생각하는 반면 본인의 안전의식은 상대적으로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본 조사에서도 일반 집단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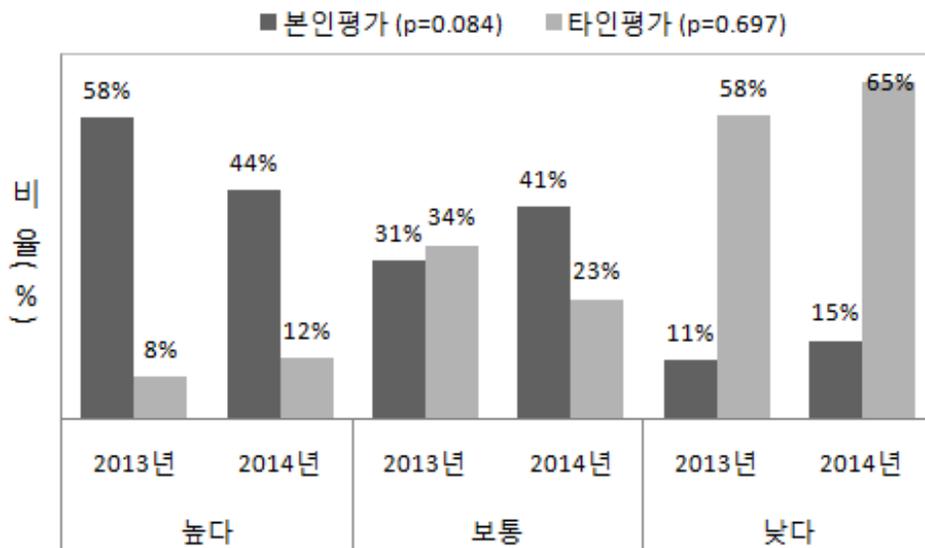
2013년 대비 2014년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의 주요 변화 항목은 [그림 3]과 같이 본인의 경우, ‘보통’이 증가하면서, ‘높다’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p=0.084$). 타인의 경우 ‘보통’이 감소하면서, ‘낮다’의 비율이 증가하였지만 ($p=0.697$)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2〉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에 대한 응답 비율 (%)

안전의식 수준	'13.10	'14.07
매우 높음	1.6	4.8
다소 높음	6.6	7.2
보통	33.5	23.2
다소 낮음	46.7	48.8
매우 낮음	11.5	16.0

〈표 3〉 본인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에 대한 응답 비율 (%)

안전의식 수준	'13.10	'14.07
매우 높음	9.3	11.2
다소 높음	48.6	32.8
보통	30.6	40.8
다소 낮음	9.8	11.2
매우 낮음	1.6	4.0



[그림 3] 본인과 타인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 변화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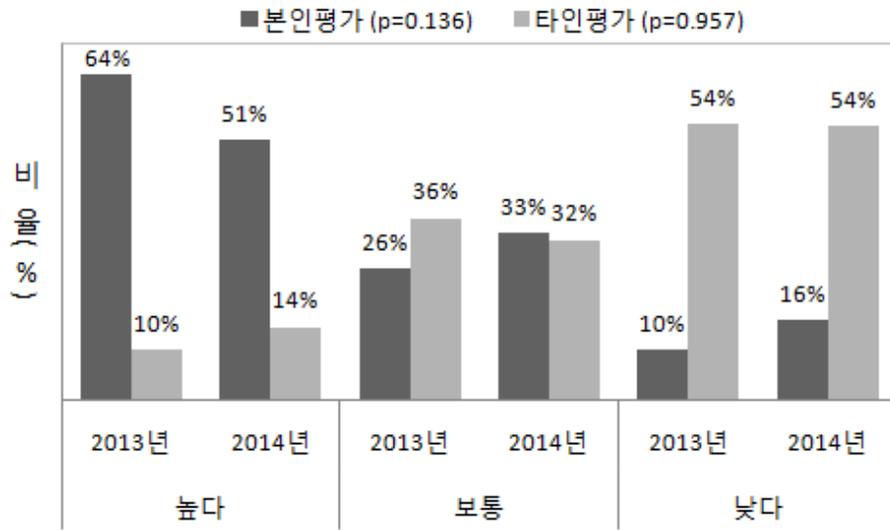
성별로 비교한 결과, 남자의 경우 [그림 4]와 같이 본인의 안전의식 평가에서 2013년 ‘보통’이 26%에서 33%로 증가하였고, ‘높다’의 비율이 64%에서 51%로 감소하였다($p=0.136$). 타인의 안전의식 평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957$).

여자의 경우 [그림 5]과 같이 본인의 안전의식 평가에서 2013년 ‘보통’이 42%에서 51%로 9% 증가하였고, ‘높다’의 비율이 44%에서 34%로 10% 감소하였으나($p=0.782$),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유는 여자의 모수가 적고 전체 항목 중 ‘높다’의 응답비율이 적기 때문에 변동 폭은 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식 평가에서도 2013년 ‘보통’이 27%에서 11%로 감소하였고, ‘높다’는 5%, ‘낮다’는 12% 증가하였지만($p=0.831$),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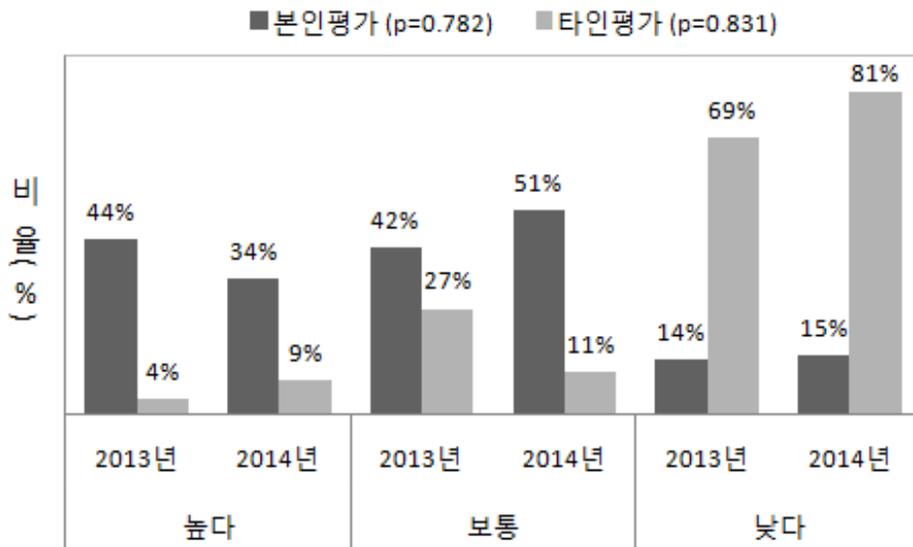
연령별로 비교한 결과, 30세 미만의 경우 [그림 6]과 같이 본인의 안전의식 평가에서 2013년 ‘보통’이 34%에서 54%로 20% 증가하였고, ‘높다’의 비율이 53%에서 27%로 25% 감소하였고($p=0.010$),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인의 안전의식 평가에서 2013년 ‘보통’이 28%에서 10%로 18% 감소하였고, ‘높다’의 비율이 11%, ‘낮다’의 비율이 7% 증가하였지만($p=0.969$) 전체 항목에서의 응답 비율이 ‘높다’가 적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진 않았다.

30세 이상의 경우 [그림 7]와 같이 본인의 안전의식 평가($p=0.840$)와 타인의 안전의식 평가($p=0.786$)가 2013년과 2014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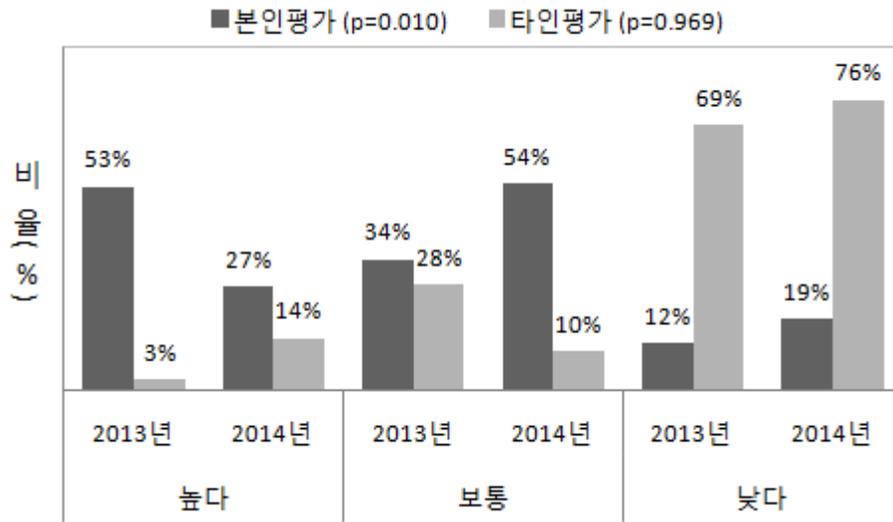
따라서, 전체적으로 타인의 안전의식 평가에 대한 년도별 차이는 없었으며, 본인의 안전의식에서는 남자, 특히 30대 미만에서 차이를 보였고, 대형사고 발생 이후 본인의 안전의식이 낮다고 인식하는 성향이 강해졌다. 반면에 30대 이상의 경우는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의식이 사고 전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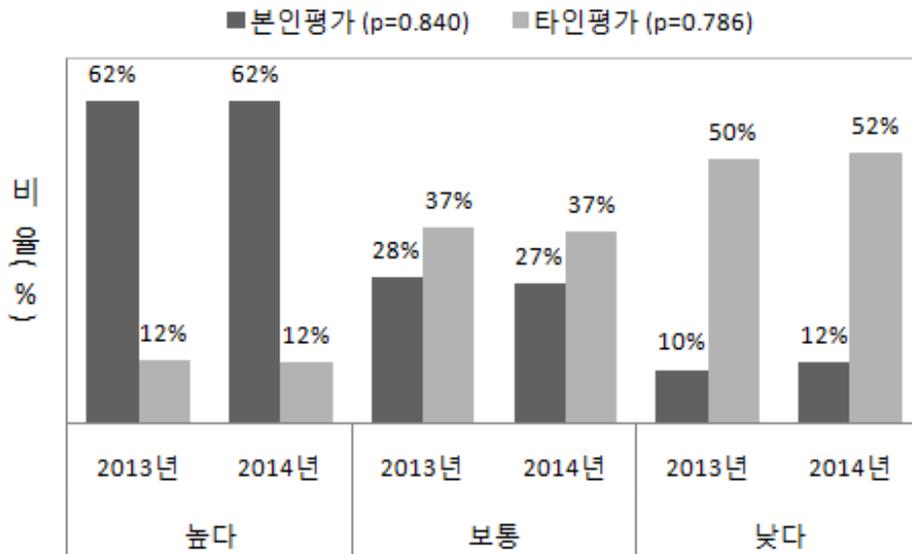
[그림 4] 본인과 타인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 변화 (남자).



[그림 5] 본인과 타인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 변화 (여자).



[그림 6] 본인과 타인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 변화 (30세 미만).



[그림 7] 본인과 타인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 변화 (30세 이상).

2) 낮은 안전의식의 원인에 대한 의식 변화

〈표 4〉과 같이, 사람들의 낮은 안전의식의 원인으로는 ‘눈 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경향’, ‘빨리빨리 서두르는 습관’, ‘안전 불감증’ 등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적당히 쉽게 처리하려는 경향’ 과 ‘안전교육의 미비’등이 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다($p>0.05$)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4〉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전의식이 낮은 원인에 대한 응답 비율(%)

원인 변수	조사 일자	
	'13.10	'14.07
적당히 쉽게 처리하는 경향	15.8	23.1
눈앞의 이익만 추구	21.4	21.3
빨리빨리 서두르는 습관	20.9	13.0
안전 불감증	31.6	27.8
안전교육의 미비	10.2	14.8
계	100.0	100.0

* '13.10 과 '14.07 응답한 t-test 결과 $p>0.05$

안전의식 수준이 낮은 이유의 순서변화는 2013년의 경우, 안전 불감증 (35.6%) > 빨리빨리 서두르는 습관 (24.3%) > 눈앞의 이익만 추구 (23.7%) > 적당히 쉽게 처리하는 경향 (17.5%) > 안전교육의 미비 (11.3%) 순 이었고, 2014년의 경우, 안전 불감증 (27.6%) > 적당히 쉽게 처리하는 경향 (21.1%) > 눈앞의 이익만 추구 (18.7%) > 안전교육의 미비(13.0%) > 빨리빨리 서두르는 습관 (12.2%) 순으로 나타나 2013년과 2014년 모두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변화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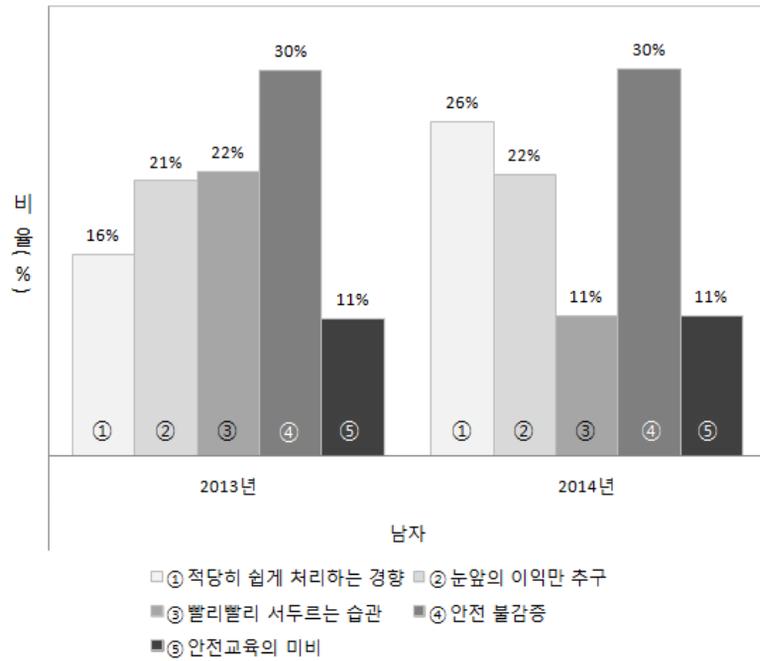
특히, 빨리빨리 서두르는 습관이 안전의식 수준이 낮은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 24.3%에서 2014년 12.2%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적당히 쉽게 처리하는 경향이 안전의식 수준이 낮은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

17.5%에서 2014년 21.1%로 증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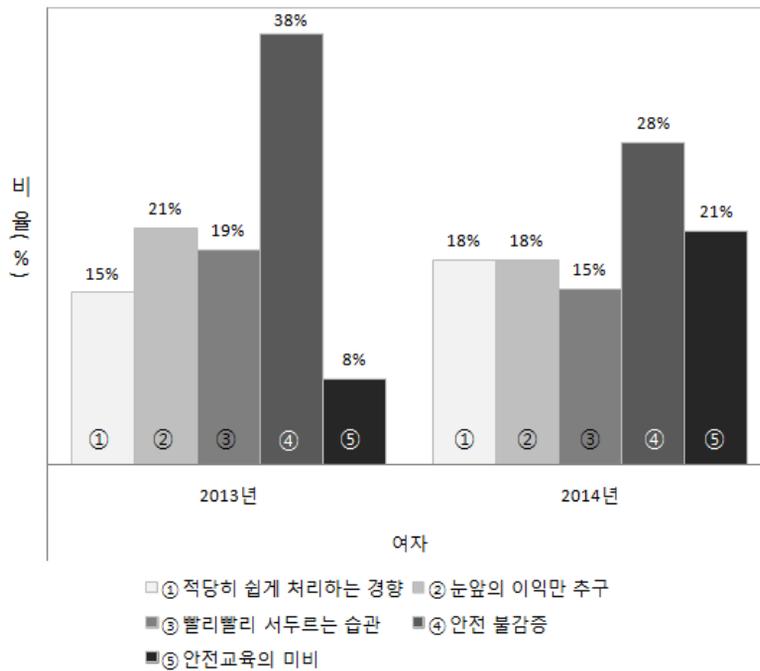
2008년 사회 통계조사 결과 (통계청, 2008) 당시 통계 조사 결과 안전의식 수준이 낮은 이유로는 ‘적당히 쉽게 처리하려는 경향(39.5%)’ 이 가장 많고, ‘눈 앞의 이익만 추구(27.6%)’, ‘빨리빨리 서두르는 습관(21.8%)’,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 집단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안전 의식 수준이 낮은 이유의 순서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당시 설문 보기에는 안전불감증 항목이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자의 경우 [그림 8]과 같이 안전의식이 낮은 이유에 대해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적당히 쉽게 처리하는 경향이 증가하였고 (16% → 26%), 빨리빨리 서두르는 습관이 감소하였다(22% → 11%) ($p=0.571$). 여자의 경우 [그림 9]과 같이 안전의식이 낮은 이유에 대해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안전 불감증이 감소하였고(38% → 28%), 안전 교육의 미비가 증가하였다(8% → 21%) ($p=0.590$). 남자와 여자의 변화의 경향은 유사하였으나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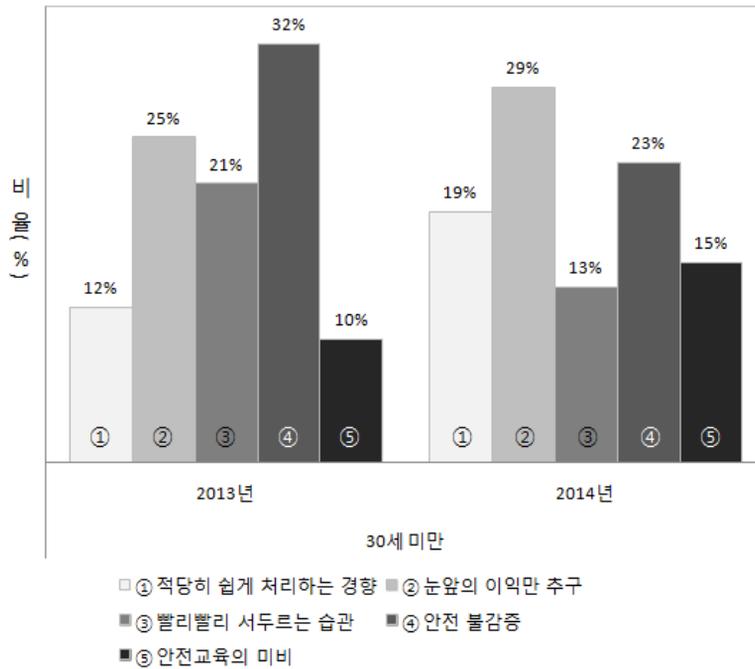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30세 미만의 경우 [그림 10]과 같이 안전의식이 낮은 이유에 대해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적당히 쉽게 처리하려는 경향 (12% → 19%)과 안전교육의 미비(10% → 15%)가 증가하였고, 빨리빨리 서두르는 습관(21% → 13%) 과 안전 불감증(32% → 23%)이 감소하였다 ($p=0.568$). 30세 이상의 경우 [그림 11]과 같이 안전의식이 낮은 이유에 대해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적당히 쉽게 처리 가려는 경향(19% → 27%)이 증가하였고, 눈앞의 이익만 추구(19% → 14%)과 빨리빨리 서두르는 습관 (21% → 11%)이 감소하였다($p=0.753$). 연령별로는 문항별 변화의 경향이 유사했으나, 눈앞의 이익만 추구가 안전의식이 낮은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30세 미만은 소폭 증가(25% → 29%)한 반면, 30세 이상에서는 소폭 감소 (19% → 14%)하였다. 하지만, 성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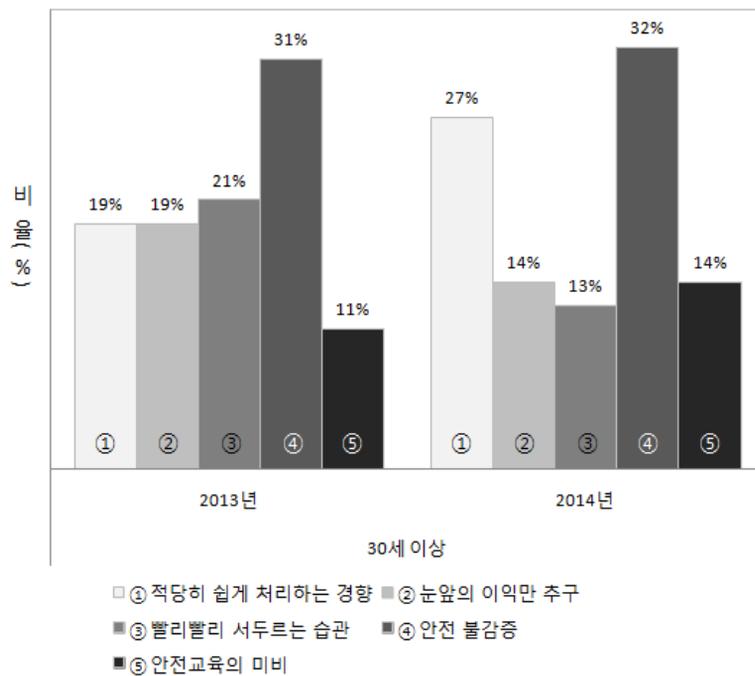
[그림 8] 낮은 안전의식 원인에 대한 의식 변화 (남자, p=0.571).



[그림 9] 낮은 안전의식 원인에 대한 의식 변화 (여자, p=0.590).



[그림 10] 낮은 안전의식 원인에 대한 의식 변화 (30세 미만, p=0.568).



[그림 11] 낮은 안전의식 원인에 대한 의식 변화 (30세 이상, p=0.753).

제 3 절 안전인식에 대한 변화

1) 과거, 현재, 미래의 사회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

〈표 5〉과 같이 사회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 및 불안에 대한 인식은 국가 대형사고 발생 전 보다 안전수준에 대해서는 더 위험해지고, 불안수준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사회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의 응답에서 ‘10년 전과 비교 하였을 때 우리사회의 위험 수준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의 응답은 (매우 위험 -5점 ~ 매우 안전 +5점) 2013년 0.68점에서 -0.33점으로 1.01점 낮아졌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의 응답은 2013년 -0.11점에서 2014년 -1.22점으로 -1.11점 더 낮아졌다. 또한, ‘10년 후, 우리 사회의 불안수준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의 응답에서도 2013년 0.65점에서 2014년 -0.02점으로 0.67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 대형 사고 이후 우리 사회의 위험수준을 더 위험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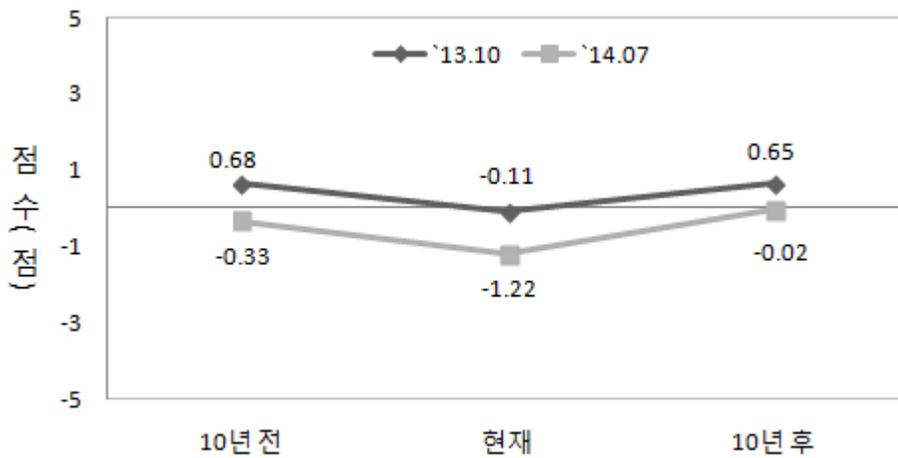
또한 2008년 사회 통계조사 결과 (통계청, 2008) 10년 전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 사회의 안전상태 변화는 ‘위험해짐(61.4%)’, ‘안전해짐(15.9%)’로 절반이상이 10년 전보다 위험해졌다고 응답하였고, 10년 후 사회의 안전상태 변화에 대해서는 ‘위험해질 것임(54.1%)’, ‘안전해질 것임(19.2%)’로 나타나, 10년 후에는 더 위험해 질 것으로 응답되었다.

10년 후의 안전수준에 대한 응답은 본 연구 집단의 결과와는 다소 상반된 응답으로 일반인들의 경우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위험해 질것이라 인식하지만, 산업위생관련 분야 종사자인 본 연구 집단에서는 [그림 12]과 같이 미래의 위험에 대한 불안수준은 더 안전해 질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표 5〉 사회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

사회 안전 수준	'13.10	'14.07
1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사회의 위험 수준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0.68	-0.33
현재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11	-1.22
10년 후, 우리 사회의 불안수준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65	-0.02

※ 항목별 점수는 매우 위험 -5점 ~ 매우 안전 +5점



[그림 12] 사회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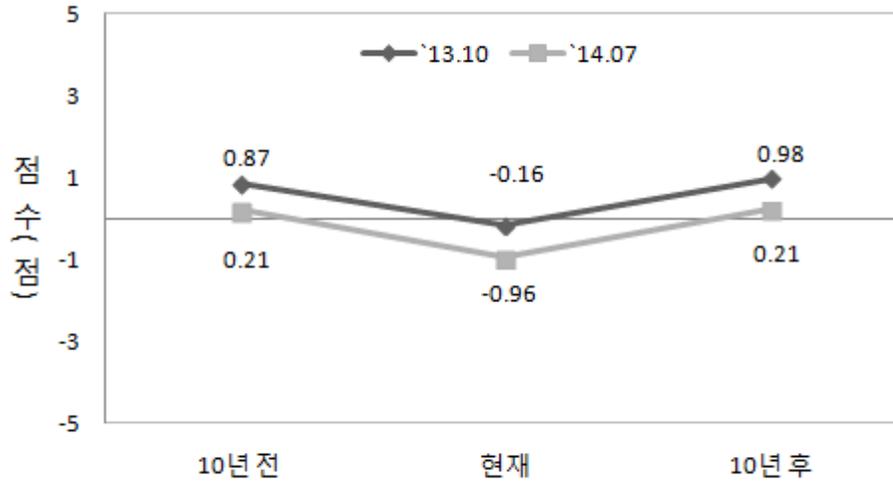
2013년과 2014년의 변화의 차이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성별과 연령별로 분석하였다.

남자의 경우, [그림 13]과 같이 2013년 결과, 10년 전(0.87)과 현재(-0.16) 그리고 10년 후(0.98)의 사회 안전수준에 대해서 현재가 과거보다 더 위험하고 미래에는 좀 더 안전해 질 것이라는 인식이 2014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2013년에 비해서는 좀 더 위험수준이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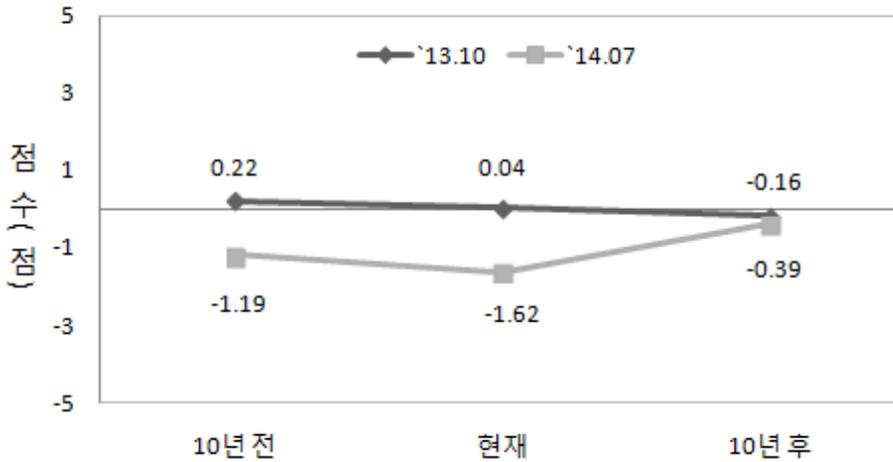
여자의 경우, [그림 14]과 같이, 2013년에는 10년 전보다 현재의 위험수준이 더 크고, 10년 후에는 더 위험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2014년에는 10년 후에는 현재보다 더 안전해 질 것이라는 인식이 나타났다. 2014년 10년 전 위험수준 (-1.19)과 현재의 위험수준 (-1.62)이 2013년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져서 대형 안전사고 이후, 사회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이 크게 하락하였다.

연령별 비교 결과, 30세 미만의 경우, [그림 15]과 같이 2013년에 비해 2014년 응답 결과는 현재의 불안 수준보다 미래에는 좀 더 안전해 질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졌으나, 10년 전과 현재의 위험 수준 2013년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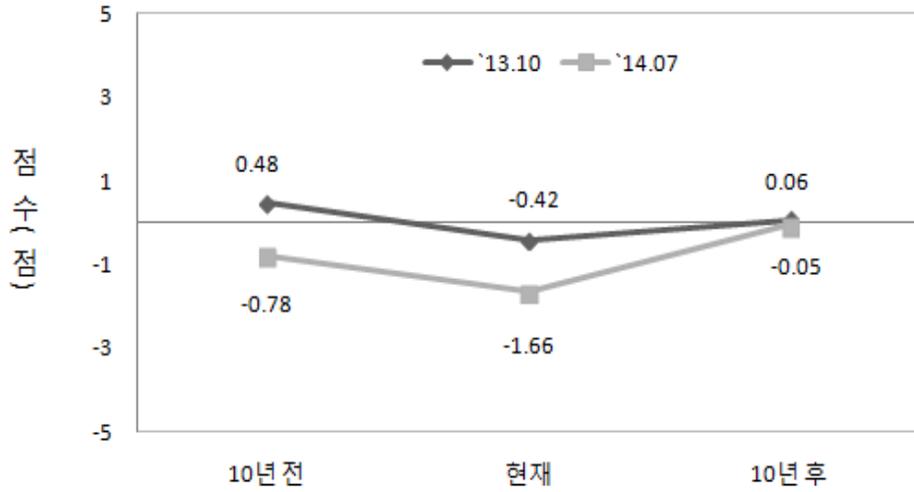
30세 이상의 경우, [그림 16]과 같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인식 수준의 경향이 2013년과 2014년에 큰 차이는 없었지만, 위험 인식 수준은 2013년보다 2014년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 또한, 30세 미만에 비해 전반적인 사회 안전수준에 대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 경험과 안전에 대한 전문성으로 갖춘 집단에서 젊은 층의 막연한 불안감 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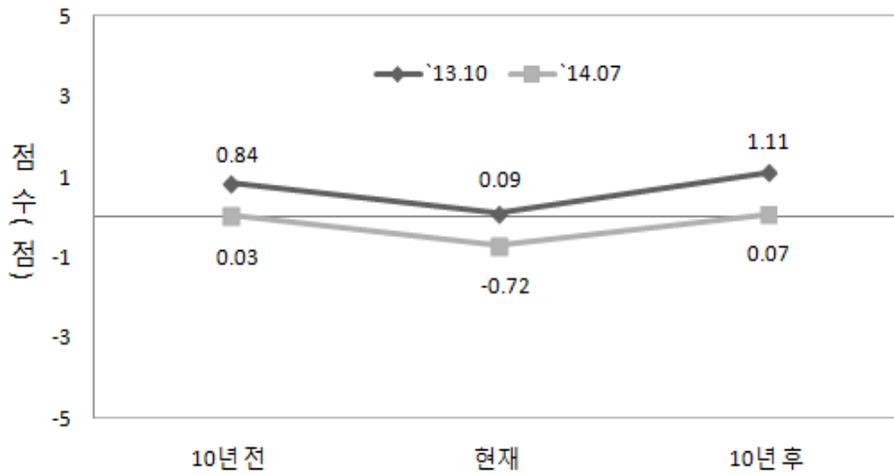
[그림 13] 사회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 (남자).



[그림 14] 사회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 (여자).



[그림 15] 사회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 (30세 미만).



[그림 16] 사회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 (30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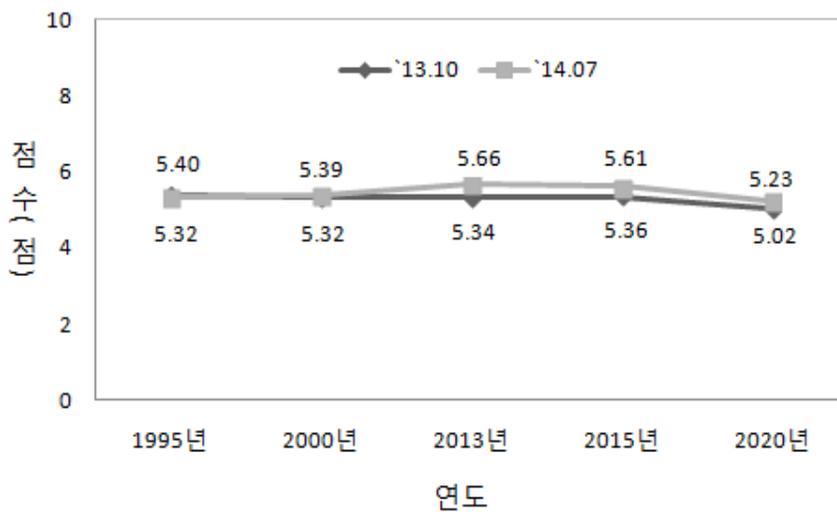
2) 과거, 현재, 미래의 사회 불안에 대한 인식 변화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불안 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는 <표 6>과 같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다고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과거부터 미래까지 기간별로 비교한 결과, 과거 1995년의 불안 수준은 2013년 5.40점에서 2014년 6.32점으로 0.90점 증가하였고, 2000년의 불안 수준도 5.32점에서 6.39점으로 1.07점 증가하였으며, 현재와 가까운 2013년의 불안 수준도 5.34점에서 6.66점으로 1.32점 증가하였다. 미래의 불안수준에 대해서도 2015년의 불안 수준이 5.36점에서 6.61점으로 1.25점 증가하였고, 2020년의 불안수준은 5.02점에서 6.23점으로 1.21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5$)

<표 6> 연도별 사회 불안 수준에 대한 인식 변화

사회 불안 수준	'13.10	'14.07
1995년도	5.40	5.32
2000년도	5.32	5.36
2013년도	5.34	5.66
2015년도	5.36	5.61
2020년도	5.02	5.23

※ 연도별 점수는 매우 안점 0점 ~ 매우 불안 10점



[그림 17]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불안 수준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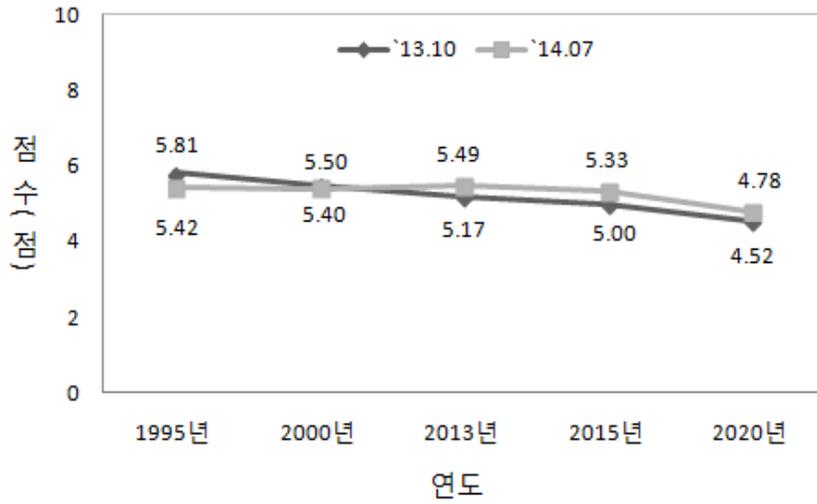
전체적인 경향을 볼 때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불안 수준은 [그림 17]와 같이, 2013년에 비해 과거와 미래의 불안 수준 폭이 감소하였다. 이를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자의 경우, [그림 18]과 같이 과거 보다 미래의 불안 수준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불안수준이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차이가 1.29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2014년에는 1995년부터 202년까지 불안수준의 감소폭이 작아져 그 차이가 0.64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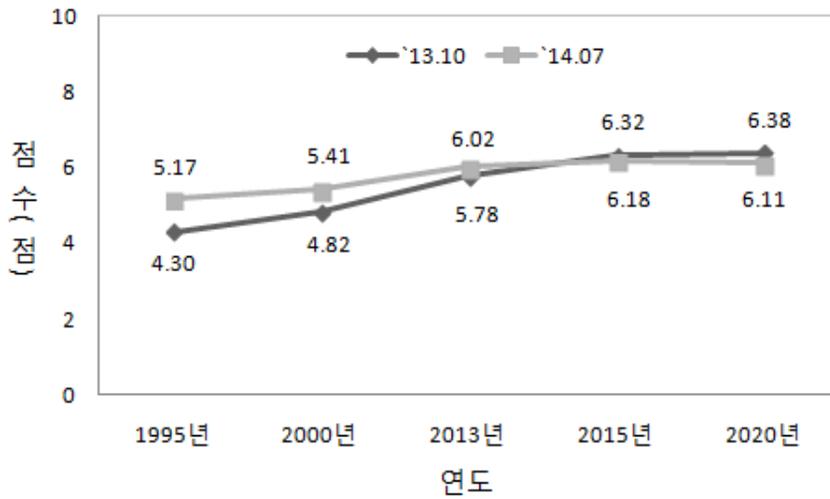
여자의 경우, [그림 19]와 같이 과거보다 미래의 불안 수준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남자와 정 반대의 추세로서 미래로 갈수록 불안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불안수준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그 차이가 2.08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2014년에는 1995년부터 202년까지 불안수준의 감소폭이 작아져 그 차이가 0.94로 줄어들었다.

30세 미만의 경우, [그림 20]과 같이 과거 보다 미래의 불안 수준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남자와 여자의 추세를 합쳐 놓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30대 미만의 남녀 구성비가 비슷하지만, 여자의 과거부터 미래의 불안 수준의 차이가 커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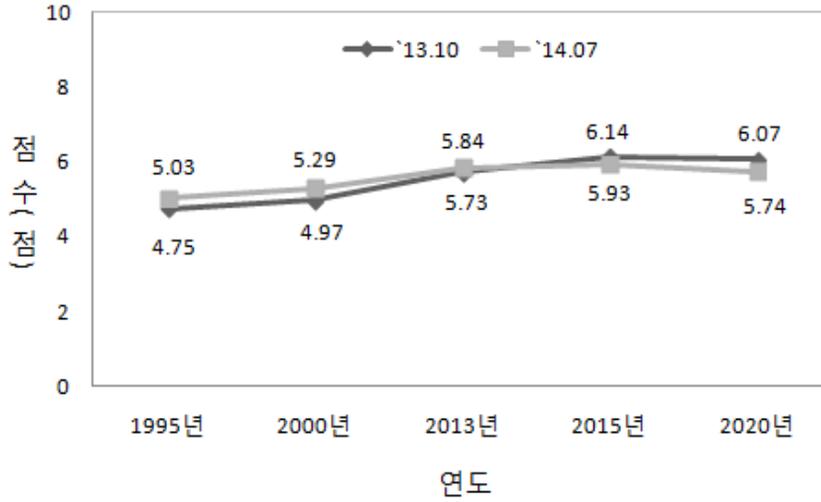
30세 이상의 경우, [그림 21]과 같이 과거 보다 미래의 불안 수준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1995년부터 2020년까지 불안수준이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차이가 1.60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2014년에는 1995년부터 202년까지 불안수준의 감소폭이 작아져 그 차이가 0.72로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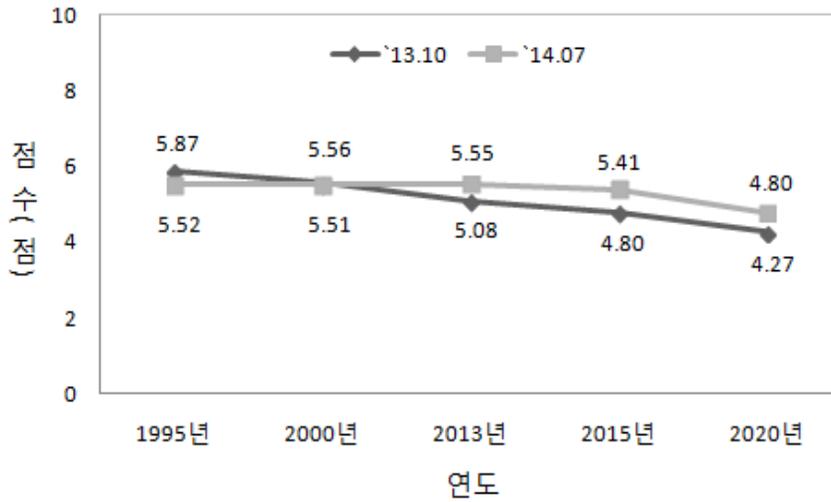
[그림 18]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불안 수준 (남자).



[그림 19]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불안 수준 (여자).



[그림 20]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불안 수준 (30세 미만).



[그림 21]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불안 수준 (30세 이상).

3)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표 7>부터 <표 9>까지 3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비교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경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2013년과 2014년 응답 변화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환경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공단 설비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주민과 상의하여 의견을 따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단 건설도 공해산업이 아니라면 막지 않겠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대형사고 전후의 변화가 없었다.

<표 7> 강 상류에 공단이 들어선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 (%)

정부 정책에 대한 응답	'13.10	'14.07
공단의 설립여부에 전혀 관심이 없다.	2.2	1.6
나에게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없으면 무방하다.	11.6	12.2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공단설립에 동의한다.	56.4	52.0
뜻있는 사람들과 반대운동을 펴서라도 공단설립을 막는다.	29.8	34.1
계	100.0	100.0

<표 8> 본인의 거주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 (%)

정부 정책에 대한 응답	'13.10	'14.07
나라에서 정한 일이므로 가능한 한 이에 따르겠다	8.2	7.2
지방의회에 일임 하겠다	2.7	4.8
보상비를 요구하여 이사 하겠다	31.7	28.0
전체 주민과 상의하여 그 의견에 따르겠다	49.2	49.6
무조건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	8.2	10.4
계	100.0	100.0

〈표 9〉 본인의 거주지역에 공단이 건설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 (%)

정부 정책에 대한 응답	'13.10	'14.07
취업기회가 늘어나므로 무조건 찬성한다	2.2	6.4
공해산업이 아니라면 건설에 반대하지 않겠다	50.5	54.4
주민전체의 의사에 따르겠다	31.9	25.6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겠다	12.1	9.6
건설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 반대 하겠다	3.3	4.0
계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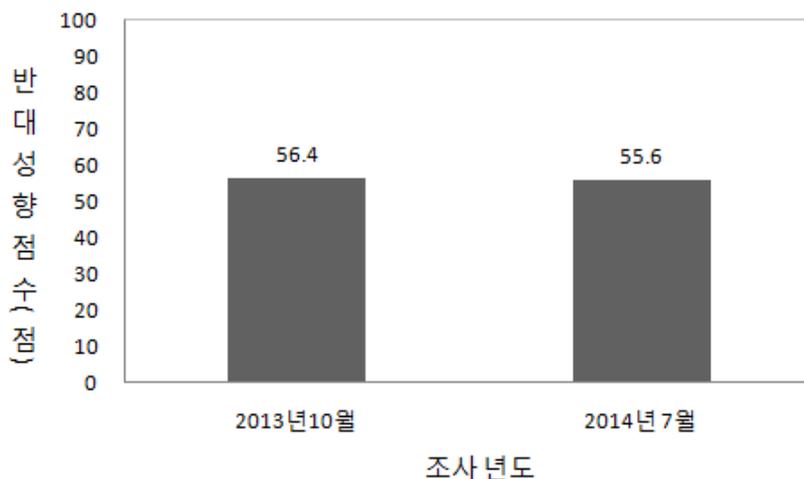
〈표 10〉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성향 점수

구분	반대 성향 점수
1. 강 상류에 공단이 들어선 다면?	
① 공단의 설립여부에 전혀 관심이 없다.	0
② 나에게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없으면 무방하다.	1
③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공단설립에 동의한다.	2
④ 뜻있는 사람들과 반대운동을 펴서라도 공단설립을 막는다.	3
2. 귀하의 거주 지역 부근에, 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실을 알려왔다면?	
① 나라에서 정한 일이므로 가능한 한 이에 따르겠다	0
② 지방의회에 일임 하겠다	1
③ 보상비를 요구하여 이사 하겠다	2
④ 전체 주민과 상의하여 그 의견에 따르겠다	3
⑤ 무조건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	4
3. 귀하의 거주지역에 공단이 건설될 경우?	
① 취업기회가 늘어나므로 무조건 찬성한다	0
② 공해산업이 아니라면 건설에 반대하지 않겠다	1
③ 주민전체의 의사에 따르겠다	2
④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겠다	3
⑤ 건설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 반대 하겠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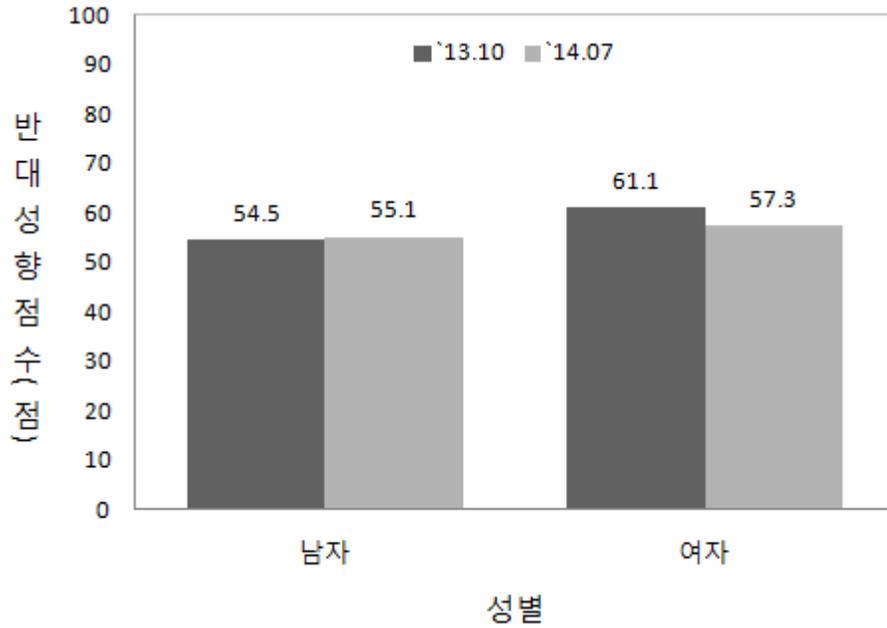
정부 정책에 대한 성향을 비교하기 위해 <표 10>과 같이, 정책에 대한 반대 성향이 강할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4지 선다형 문항은 0점에서 3점까지 부여하고, 5지 선다형은 0점에서 4점까지 부여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성향을 확인하였다. 총 3가지 문항에 대한 응답 점수를 합산한 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전체 반대 성향 점수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문항별 점수의 합계가 11점을 100점으로 환산하고, 100점에 가까울수록 반대성향이 높다는 의미이다.

이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그림 22]와 같이, 2013년 56.4점에서 2014년 55.6점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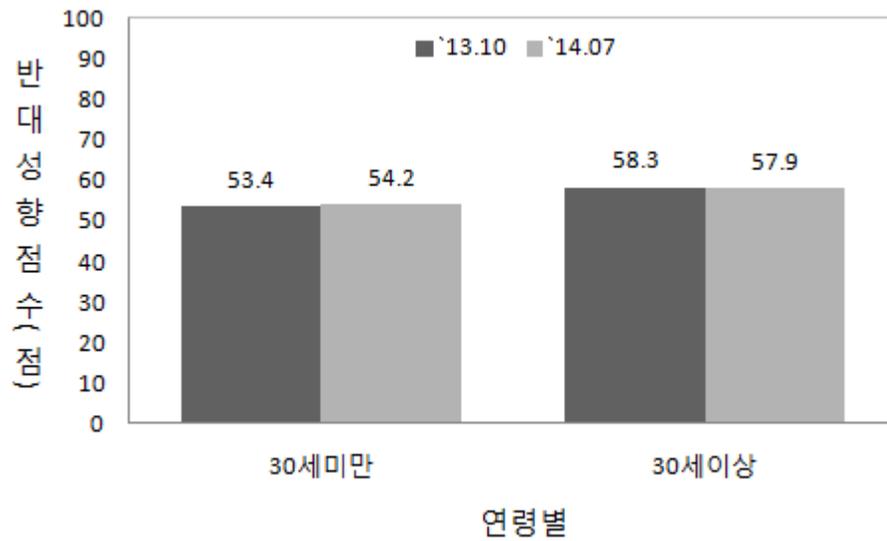
성별 비교에서는 [그림 23]과 같이, 남자의 경우 2013년 54.5점에서 2014년 55.1점으로 차이가 없었고, 여자의 경우 2013년 61.1점에서 2014년 57.3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p=0.153$),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연령별 비교에서는 [그림 24]와 같이, 30세 미만의 경우 2013년 53.4점에서 2014년 54.2점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며, 30세 이상의 경우 2013년 58.3점에서 2014년 57.9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p>0.05$)



[그림 22]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성향 점수 비교 (전체).



[그림 23]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성향 점수 비교 (성별).



[그림 24]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성향 점수 비교 (연령별).

4) 공공기관 신뢰도에 대한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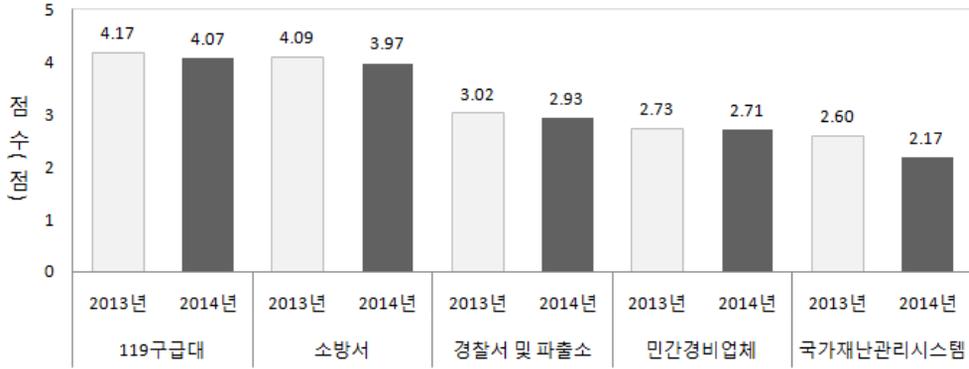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표 11>과 같이 2013년 결과, 119 구급대(4.09) > 소방서(4.06) > 경찰서 및 파출소 (2.98) > 민간경비업체 (2.73) > 전반적인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2.59) 의 순으로 119 구급대가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2014년에도 점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119 구급대(3.98) > 소방서 (3.93) > 경찰서 및 파출소 (2.83) > 민간경비업체(2.70) > 전반적인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2.0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위험과 안전과 관련된 국가 공공기관의 신뢰도의 점수가 공통적으로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05$)

<표 11> 공공기관 신뢰도에 대한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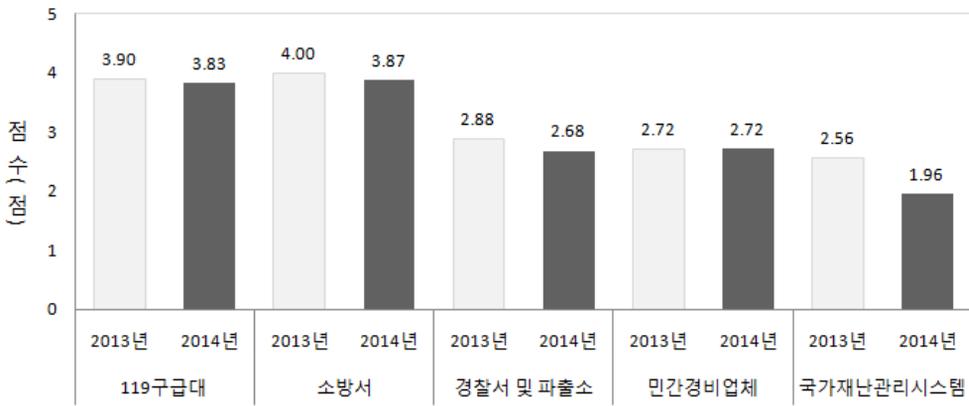
공공기관	'13.10	'14.07
119 구급대	4.09	3.98
소방서	4.06	3.93
경찰서 및 파출소	2.98	2.83
민간경비업체	2.73	2.70
전반적인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2.59	2.08
※ 공공기관별 매우 낮음1점, 낮음2점, 보통3점, 높음4점, 매우 높음5점		

성별의 경우 [그림 25]와 [그림 26]과 같이, 남자와 여자 모두 큰 변화의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림 27]과 [그림 28]과 같이 공공기관 신뢰도에 대해 2013년과 2014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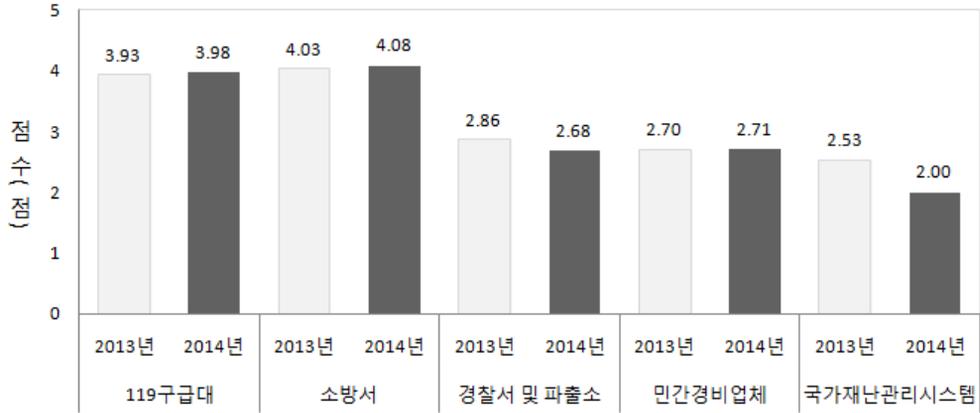
다만,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의 신뢰도의 경우 남자 (2.60 → 2.17), 여자 (2.56 → 1.96), 30세 미만 (2.53 → 2.00), 30세 이상 (2.63 → 2.08) 등으로 전반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p>0.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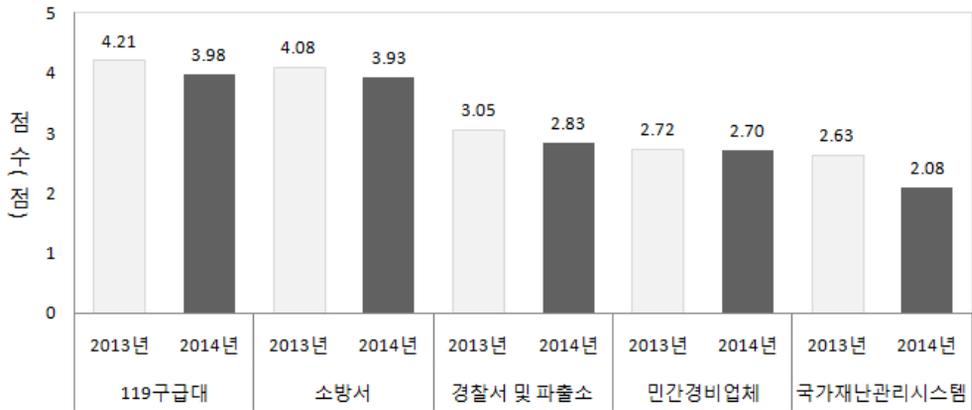
[그림 25] 공공기관 신뢰도 인식 변화 (남자).



[그림 26] 공공기관 신뢰도 인식 변화 (여자).



[그림 27] 공공기관 신뢰도 인식 변화 (30세 미만).



[그림 28] 공공기관 신뢰도 인식 변화 (30세 이상).

5) 안전 위험 요소별 안전 의식 변화

〈표 12〉와 같이 우리 사회의 위험요소를 51가지로 구분하여 4가지 항목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4가지 항목은 과거 경험(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사고의 빈도), 발생 가능성(앞으로 나에게 발생할 가능성), 개인 귀인(개인이 피할 수 있는 가능성), 피해 심각성(피해의 심각성) 이다. 51가지 위험 요소에 대해 항목별로 5점(매우 낮음 1, 낮음 2, 보통 3, 높음 4, 매우 높음5) 척도로 조사하였다.

〈표 12〉 우리사회의 안전 위험요소 구분

안전 위험요소 구분	
1. 태풍, 홍수, 호우	27.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2. 폭설	28. 중국/일본 군사 대국화
3. 가뭄, 기근	29. 한반도에서의 전쟁
4. 폭염	30. 북한 핵 문제
5. 지진, 쓰나미	31. 불특정다수 대상 테러
6. 수질오염	32. 농산물 수입개방
7. 대기오염	33. 컴퓨터 바이러스 확산
8. 토양오염	34. 사생활침해
9. 해양오염	35. 사이버범죄
10. 화재	36. 살인
11. 산불	37. 강간, 성폭력
12. 건축물 붕괴사고	38. 유괴, 납치
13. 대형폭발사고	39. 강도, 절도
14. 가스사고	40. 마약 및 알콜중독
15. 화생방 사고	41. 급격한 경기변동
16. 산재사고	42. 불안정한 고용과 취업난
17. 감전 등의 전기사고	43. 먹거리의 안전사고
18. 자동차교통사고	44. 생명윤리침해사고
19. 대형교통수단 사고	45. 사회보장제도 미비
20. 시설물 고장에 사고	46. 빈부격차
21. 일상생활 중의 사고	47. 학교폭력
22.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	48. 과격, 폭력 시위
23. 일반 전염병	49. 부정부패
24. 성인병	50. 여야갈등
25. 신종 질병	51. 노사갈등
26. 직업병	

(1) 과거 경험에 대한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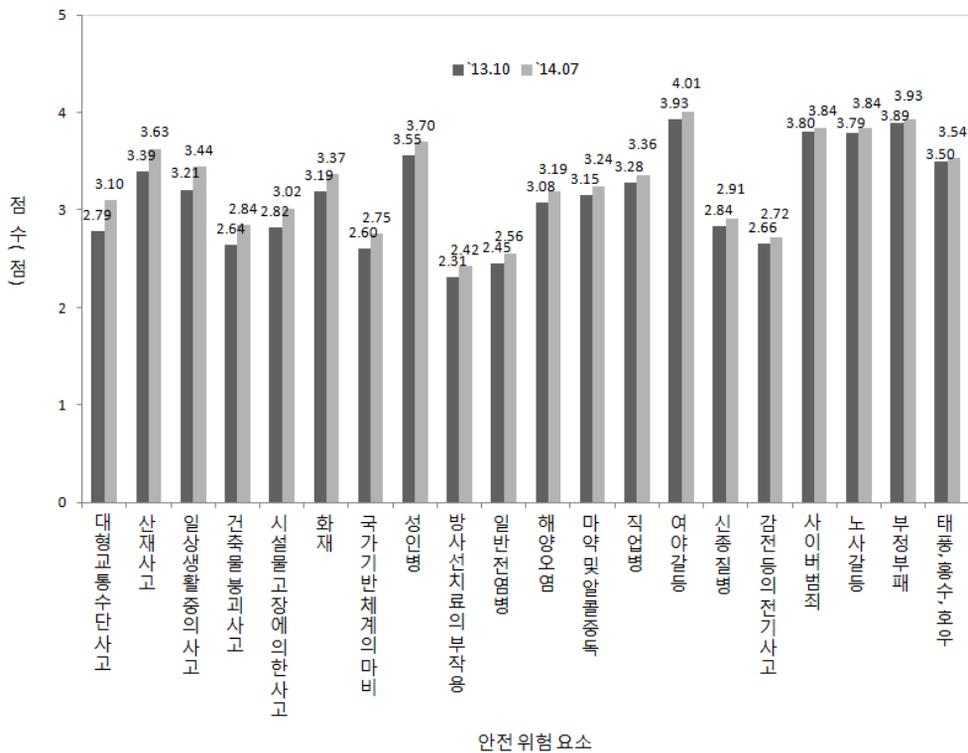
과거 경험 즉,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사고의 빈도에 대해서는 <표 13>과 같이 2014년 결과, 여야갈등(4.01) > 부정부패(3.93) > 자동차 교통사고(3.87) > 불안정한 고용/취업난(3.87) > 사이버 범죄(3.84)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2013년 결과와 비교하여 소폭의 순위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2005년 소방방재청에서 한국안전학회에 의뢰한 ‘사회안전 지표 개발을 위한 국민안전의식조사’(이하 2005년 조사) (이재열, 2005)에서의 결과, 자동차사고(4.22) > 취업난(4.08) > 부정부패(4.07) > 여야갈등(4.06) > 빈부격차(4.04) 와 유사한 결과로서 자동차사고를 제외하면 경제적, 사회적 위험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표 13>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사고의 빈도에 대한 인식 변화

‘13.10	점수	‘14.07	점수
불안정한 고용/취업난	3.94	여야갈등	4.01
여야갈등	3.93	부정부패	3.93
부정부패	3.89	자동차 교통사고	3.90
자동차 교통사고	3.87	불안정한 고용/취업난	3.87
빈부격차	3.83	사이버범죄	3.84
사이버범죄	3.80	노사갈등	3.84
노사갈등	3.79	강간, 성폭력	3.70
학교폭력	3.79	성인병	3.70
먹거리의 안전사고	3.74	빈부격차	3.70
강간, 성폭력	3.74	학교폭력	3.66
급격한 경기변동	3.71	사생활침해	3.64
사생활침해	3.62	산재사고	3.63
강도, 절도	3.59	급격한 경기변동	3.56
살인	3.56	강도, 절도	3.56
성인병	3.55	태풍, 홍수, 호우	3.54
컴퓨터 바이러스 확산	3.55	살인	3.53
태풍, 홍수, 호우	3.50	컴퓨터 바이러스 확산	3.52
사회보장제도 미비	3.49	먹거리의 안전사고	3.52
농산물 수입개방	3.44	일상생활 중의 사고	3.44
유괴, 납치	3.40	사회보장제도 미비	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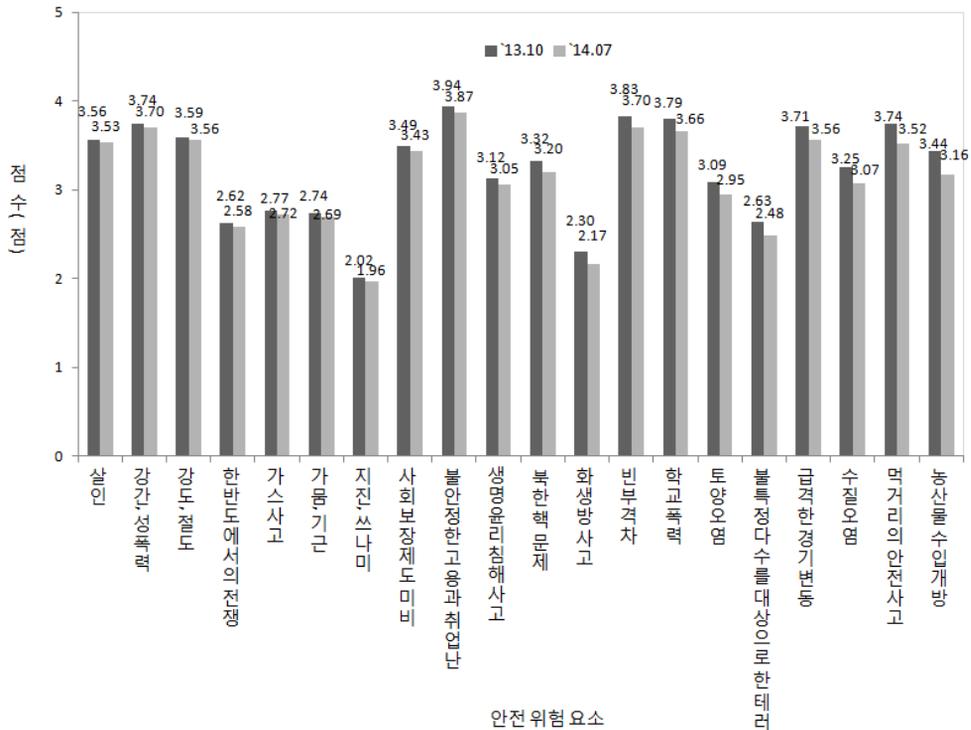
'13.10	점수	'14.07	점수
산재사고	3.39	유괴, 납치	3.39
대기오염	3.38	대기오염	3.39
북한 핵 문제	3.32	화재	3.37
직업병	3.28	직업병	3.36
폭염	3.25	폭염	3.25
수질오염	3.25	마약 및 알콜중독	3.24
일상생활 중의 사고	3.21	과격, 폭력 시위	3.21
화재	3.19	북한 핵 문제	3.20
과격, 폭력 시위	3.17	해양오염	3.19
마약 및 알콜중독	3.15	농산물 수입개방	3.16
생명윤리침해사고	3.12	대형교통수단 사고	3.10
토양오염	3.09	수질오염	3.07
해양오염	3.08	생명윤리침해사고	3.05
산불	3.00	시설물 고장 사고	3.02
중국/일본 군사 대국화	2.97	산불	2.99
대형폭발사고	2.97	대형폭발사고	2.98
폭설	2.90	중국/일본 군사 대국화	2.96
신종 질병	2.84	토양오염	2.95
시설물 고장 사고	2.82	신종 질병	2.91
대형교통수단 사고	2.79	폭설	2.89
가스사고	2.77	건축물 붕괴사고	2.84
가뭄, 기근	2.74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	2.75
감전 등의 전기사고	2.66	가스사고	2.72
건축물 붕괴사고	2.64	감전 등의 전기사고	2.72
불특정다수 대상 테러	2.63	가뭄, 기근	2.69
한반도에서의 전쟁	2.62	한반도에서의 전쟁	2.58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	2.60	일반 전염병	2.56
일반 전염병	2.45	불특정다수 대상 테러	2.48
방사선치료의 부작용	2.31	방사선치료의 부작용	2.42
화생방 사고	2.30	화생방 사고	2.17
지진, 쓰나미	2.02	지진, 쓰나미	1.96
평균	3.21	평균	3.22

국가 대형 안전사고 이후 과거 경험에 대한 안전 위험 요소별 인식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그림 29]와 같이, 대형교통수단 사고 (0.31) > 산재사고 (0.24) > 일상생활 중의 사고 (0.23) > 건축물 붕괴사고 (0.20) > 시설물 고장에 의한 사고 (0.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경험, 즉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사고의 빈도를 느끼는 인식이 국가 대형 안전사고 이후에는 다른 위험 요소보다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항목에 대해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림 29] 과거 경험에 대한 안전 위험 요소의 인식변화 증가 폭.

증가 폭과는 반대로, 감소한 위험요소는 [그림 30]과 같이, 농산물 수입 개방 (-0.27) > 먹거리의 안전사고 (-0.22) > 수질오염 (-0.18) > 급격한 경기 변동 (-0.16) > 불특정대수 대상 테러 (-0.1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가와 반대로,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들과 연관성이 적은 위험요소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그림 30] 과거 경험에 대한 안전 위험 요소의 인식변화 감소 폭.

(2)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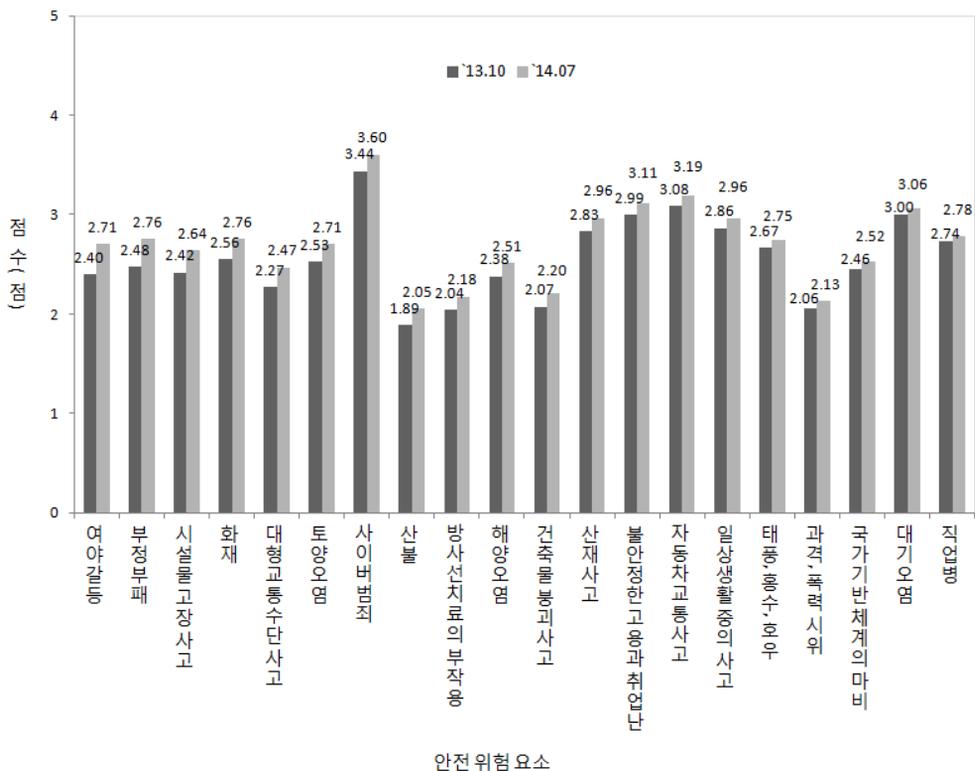
발생 가능성 즉, 앞으로 나에게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표 14>와 같이 2014년 결과, 사이버 범죄(3.60) > 컴퓨터 바이러스 확산(3.29) > 자동차 교통사고(3.19) > 사회보장제도 미비(3.18) > 사생활 침해(3.16)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결과 항목과 순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05년 조사 결과에서는 취업난(3.50) > 사이버범죄(3.45) > 자동차사고(3.41) > 컴퓨터 바이러스(3.40) > 대기오염(3.38) 순이었으며, 정보화 사회와 연관된 범죄, 전통적인 자동차사고 등은 과거와 현재에도 나에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14> 앞으로 나에게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 변화

'13.10	점수	'14.07	점수
사이버범죄	3.44	사이버범죄	3.60
컴퓨터 바이러스 확산	3.37	컴퓨터 바이러스 확산	3.29
사회보장제도 미비	3.27	자동차교통사고	3.19
사생활침해	3.21	사회보장제도 미비	3.18
빈부격차	3.21	사생활침해	3.16
먹거리의 안전사고	3.20	빈부격차	3.16
급격한 경기변동	3.11	먹거리의 안전사고	3.14
자동차교통사고	3.08	불안정한 고용과 취업난	3.11
대기오염	3.00	대기오염	3.06
불안정한 고용과 취업난	2.99	급격한 경기변동	3.06
농산물 수입개방	2.96	농산물 수입개방	3.01
폭염	2.96	폭염	2.98
성인병	2.94	성인병	2.98
일상생활 중의 사고	2.86	일상생활 중의 사고	2.96
산재사고	2.83	산재사고	2.96
노사갈등	2.79	노사갈등	2.82
북한 핵 문제	2.76	직업병	2.78
직업병	2.74	화재	2.76
태풍, 홍수, 호우	2.67	부정부패	2.76
수질오염	2.63	태풍, 홍수, 호우	2.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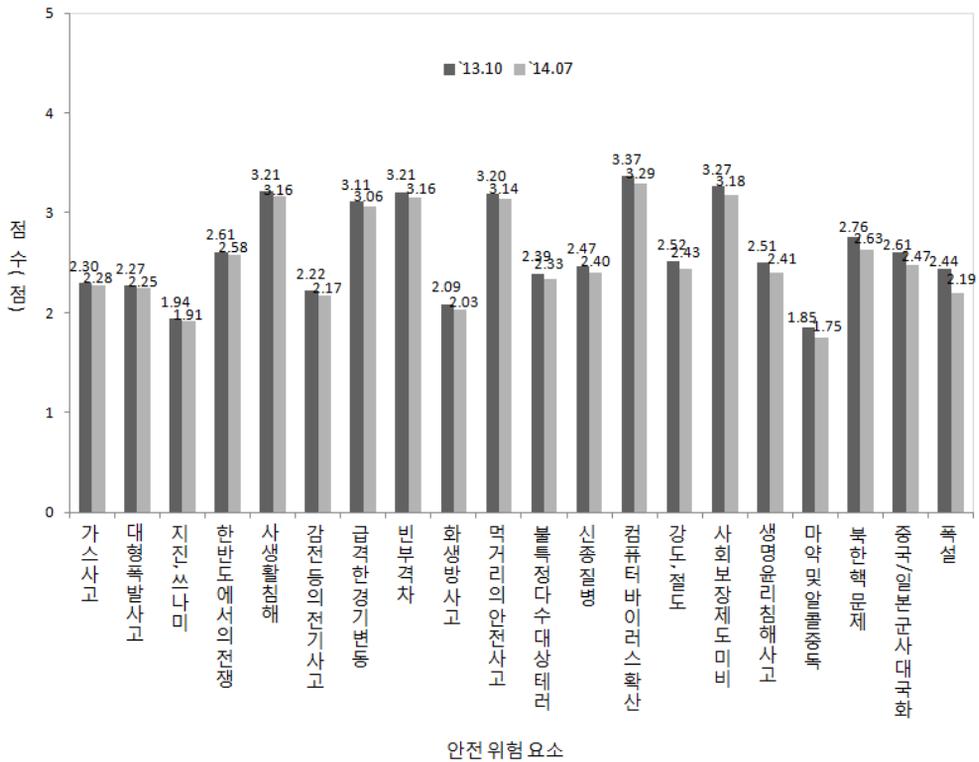
'13.10	점수	'14.07	점수
한반도에서의 전쟁	2.61	토양오염	2.71
중국/일본 군사 대국화	2.61	여야갈등	2.71
화재	2.56	수질오염	2.64
토양오염	2.53	시설물 고장 사고	2.64
강도, 절도	2.52	북한 핵 문제	2.63
생명윤리침해사고	2.51	한반도에서의 전쟁	2.58
부정부패	2.48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	2.52
신종 질병	2.47	해양오염	2.51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	2.46	중국/일본 군사 대국화	2.47
폭설	2.44	대형교통수단 사고	2.47
시설물 고장 사고	2.42	강도, 절도	2.43
여야갈등	2.40	살인	2.41
살인	2.40	생명윤리침해사고	2.41
불특정다수 대상 테러	2.39	신종 질병	2.40
해양오염	2.38	유괴, 납치	2.35
유괴, 납치	2.37	불특정다수 대상 테러	2.33
가스사고	2.30	가스사고	2.28
대형폭발사고	2.27	학교폭력	2.28
대형교통수단 사고	2.27	강간, 성폭력	2.25
강간, 성폭력	2.26	대형폭발사고	2.25
학교폭력	2.23	가뭄, 기근	2.21
감전 등의 전기사고	2.22	일반 전염병	2.20
가뭄, 기근	2.18	건축물 붕괴사고	2.20
일반 전염병	2.18	폭설	2.19
화생방 사고	2.09	방사선치료의 부작용	2.18
건축물 붕괴사고	2.07	감전 등의 전기사고	2.17
과격, 폭력 시위	2.06	과격, 폭력 시위	2.13
방사선치료의 부작용	2.04	산불	2.05
지진, 쓰나미	1.94	화생방 사고	2.03
산불	1.89	지진, 쓰나미	1.91
마약 및 알콜중독	1.85	마약 및 알콜중독	1.75
평균	2.58	평균	2.61

국가 대형 안전사고 이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안전 위험 요소별 인식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그림 31]과 같이, 여야 갈등 (0.31) > 부정부패 (0.28) > 시설물 고장사고 (0.22) > 화재 (0.20) > 대형교통수단 사고 (0.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가능성 즉, 앞으로 나에게 발생할 가능성을 느끼는 인식이 국가 대형 안전사고 이후에는 일상적으로 느끼는 위험요소 (여야갈등, 부정부패) 뿐만 아니라, 사고와 관련된 위험요소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림 31] 발생 가능성에 대한 안전 위험 요소의 인식변화 증가 폭.

증가 폭과는 반대로, 감소한 위험요소는 [그림 32]와 같이, 폭설 (-0.25) > 중국과 일본의 군사 대국화 (-0.14) > 북한 핵 문제 (-0.13) > 마약 및 알콜 중독 (-0.11) > 생명윤리 침해사고 (-0.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증가와 반대로,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들과 연관성이 적은 위험요소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그림 32] 발생 가능성에 대한 안전 위험 요소의 인식변화 감소 폭.

(3) 개인이 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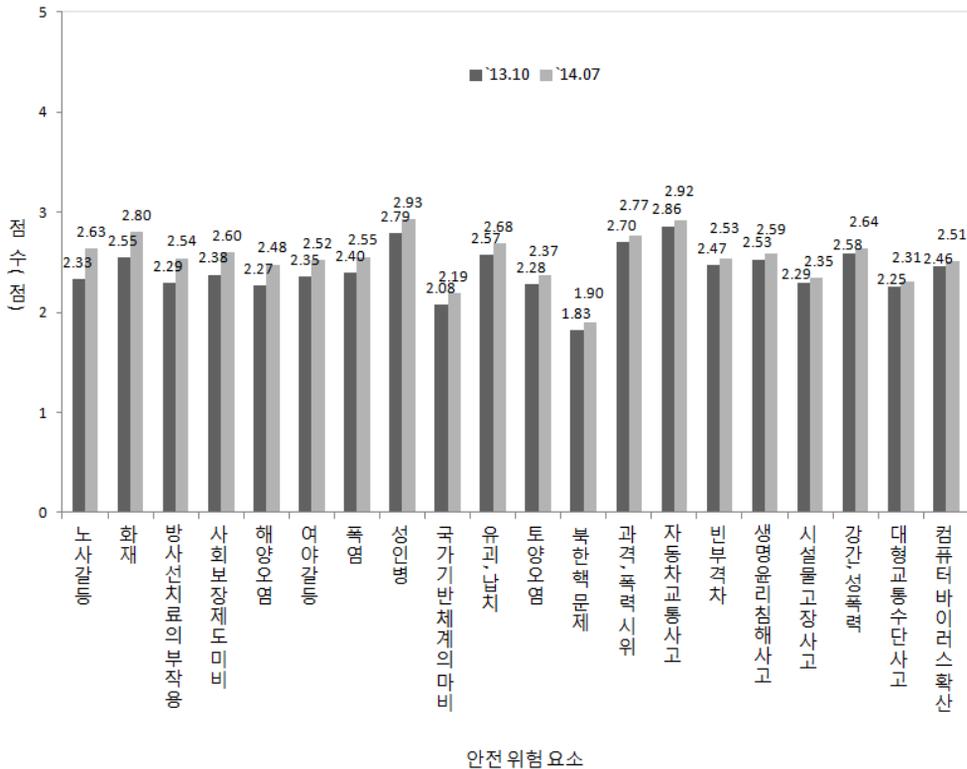
개인 귀인 즉, 개인이 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표 15>와 같이 2014년 결과, 마약 및 알콜중독(2.96) > 성인병(2.93) > 자동차 교통사고 (2.92) > 일상생활 중의 사고(2.90) > 화재(2.80)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005년 조사 결과, 개인이 피하기 쉬운 위험으로 마약 및 알콜중독, 일상생활 중의 사고, 화재, 감전, 성인병, 자동차사고, 산재, 산불 등이 높은 순이었다. 이 결과 또한 과거와 현재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05년 조사결과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이지만, 본 연구대상 집단 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15> 개인이 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 변화

‘13.10	점수	‘14.07	점수
마약 및 알콜중독	2.99	마약 및 알콜중독	2.96
일상생활 중의 사고	2.93	성인병	2.93
산재사고	2.89	자동차교통사고	2.92
자동차교통사고	2.86	일상생활 중의 사고	2.90
성인병	2.79	화재	2.80
직업병	2.76	산재사고	2.80
학교폭력	2.73	과격, 폭력 시위	2.77
과격, 폭력 시위	2.70	직업병	2.69
감전 등의 전기사고	2.70	유괴, 납치	2.68
불안정한 고용과 취업난	2.65	먹거리의 안전사고	2.64
먹거리의 안전사고	2.61	강간, 성폭력	2.64
산불	2.61	학교폭력	2.63
가스사고	2.60	노사갈등	2.63
강간, 성폭력	2.58	사회보장제도 미비	2.60
강도, 절도	2.58	산불	2.59
유괴, 납치	2.57	가스사고	2.59
화재	2.55	생명윤리침해사고	2.59
생명윤리침해사고	2.53	강도, 절도	2.57
부정부패	2.53	폭염	2.55
살인	2.51	부정부패	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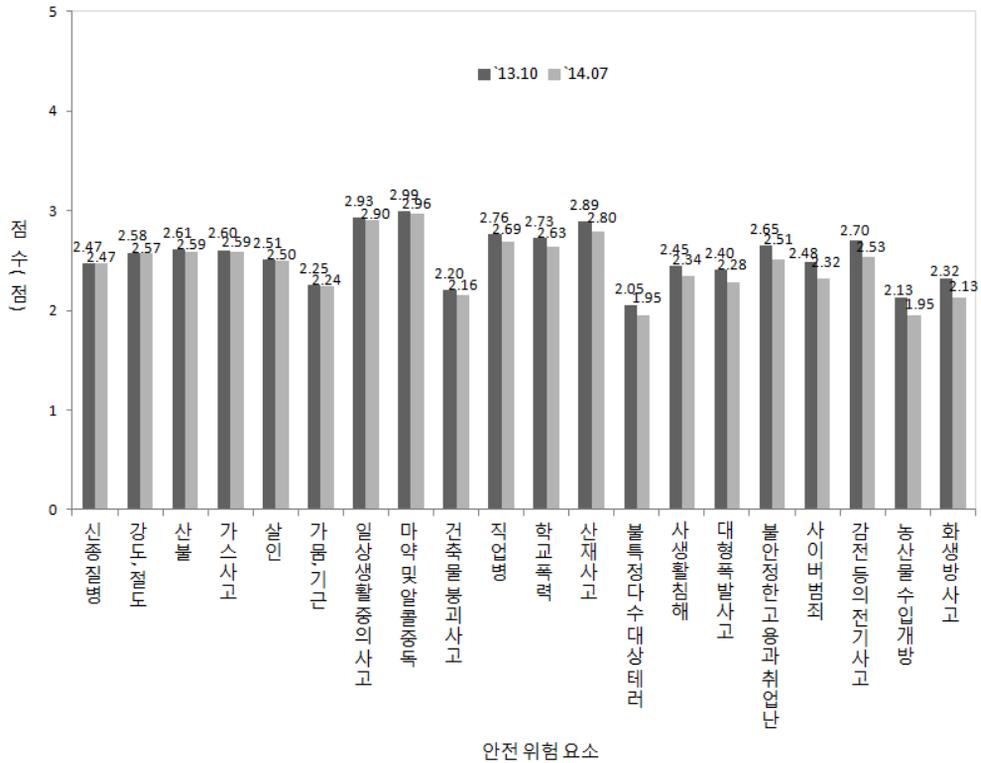
'13.10	점수	'14.07	점수
사이버범죄	2.48	방사선치료의 부작용	2.54
신종 질병	2.47	감전 등의 전기사고	2.53
빈부격차	2.47	빈부격차	2.53
일반 전염병	2.47	여야갈등	2.52
컴퓨터 바이러스 확산	2.46	불안정한 고용과 취업난	2.51
사생활침해	2.45	컴퓨터 바이러스 확산	2.51
급격한 경기변동	2.44	살인	2.50
대형폭발사고	2.40	해양오염	2.48
폭염	2.40	신종 질병	2.47
사회보장제도 미비	2.38	일반 전염병	2.47
태풍, 홍수, 호우	2.35	급격한 경기변동	2.45
여야갈등	2.35	태풍, 홍수, 호우	2.38
수질오염	2.34	토양오염	2.37
노사갈등	2.33	시설물 고장 사고	2.35
화생방 사고	2.32	사생활침해	2.34
폭설	2.31	수질오염	2.34
대기오염	2.30	폭설	2.33
방사선치료의 부작용	2.29	대기오염	2.33
시설물 고장 사고	2.29	사이버범죄	2.32
토양오염	2.28	대형교통수단 사고	2.31
해양오염	2.27	대형폭발사고	2.28
대형교통수단 사고	2.25	가뭄, 기근	2.24
가뭄, 기근	2.25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	2.19
건축물 붕괴사고	2.20	건축물 붕괴사고	2.16
농산물 수입개방	2.13	화생방 사고	2.13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	2.08	지진, 쓰나미	2.03
불특정다수 대상 테러	2.05	농산물 수입개방	1.95
지진, 쓰나미	2.01	불특정다수 대상 테러	1.95
중국/일본 군사 대국화	1.84	북한 핵 문제	1.90
한반도에서의 전쟁	1.83	중국/일본 군사 대국화	1.87
북한 핵 문제	1.83	한반도에서의 전쟁	1.84
평균	2.43	평균	2.45

국가 대형 안전사고 이후 개인이 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안전 위험 요소별 인식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그림 33]과 같이, 노사갈등 (0.30) > 화재 (0.25) >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0.25) >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0.22) > 해양 오염 (0.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주로 대형 안전 사고와 연관이 적은 위험요소에 대해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그림 33] 개인 귀인에 대한 안전 위험 요소의 인식변화 증가 폭.

증가 폭과는 반대로, 감소한 위험요소는 [그림 34]와 같이, 화생방 사고 (-0.19) > 농산물 수입개방 (-0.18) > 감전 등의 전기사고 (-0.17) > 사이버 범죄 (-0.16) > 불안정한 고용과 취업난 (-0.14)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피할 수 없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증가와 반대로, 대체로 사고와 관련된 위험요소들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그림 34] 개인 귀인에 대한 안전 위험 요소의 인식변화 감소 폭.

(4)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대한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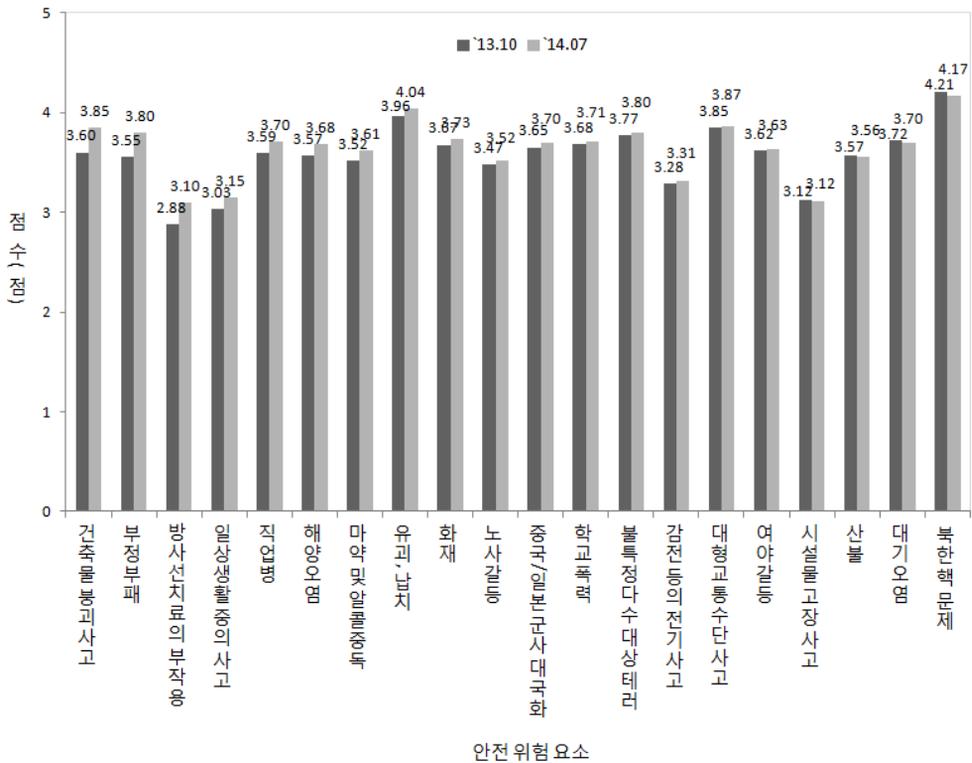
피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표 16>과 같이 2014년 결과, 북한 핵 문제(4.17) > 한반도에서의 전쟁(4.15) > 살인(4.09) > 강간, 성폭력(4.04) > 유괴, 납치(4.04)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결과와의 비교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2005년 조사결과,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전쟁, 태풍, 테러, 취업난, 북핵, 살인, 자동차사고, 폭발 등의 순서로서 지정학적 위험과 경제적 요인, 그리고 강력범죄 등의 심각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는데, 지금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6>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변화

'13.10	점수	'14.07	점수
한반도에서의 전쟁	4.28	북한 핵 문제	4.17
북한 핵 문제	4.21	한반도에서의 전쟁	4.15
살인	4.20	살인	4.09
강간, 성폭력	4.13	강간, 성폭력	4.04
급격한 경기변동	4.01	유괴, 납치	4.04
대형폭발사고	4.00	사이버범죄	3.90
태풍, 홍수, 호우	3.97	대형폭발사고	3.88
유괴, 납치	3.96	대형교통수단 사고	3.87
불안정한 고용과 취업난	3.95	건축물 붕괴사고	3.85
화생방 사고	3.94	태풍, 홍수, 호우	3.83
사이버범죄	3.94	불안정한 고용과 취업난	3.82
강도, 절도	3.86	부정부패	3.80
대형교통수단 사고	3.85	불특정다수 대상 테러	3.80
사회보장제도 미비	3.80	화생방 사고	3.79
수질오염	3.78	급격한 경기변동	3.75
불특정다수 대상 테러	3.77	화재	3.73
먹거리의 안전사고	3.77	학교폭력	3.71
산재사고	3.76	강도, 절도	3.71
자동차교통사고	3.76	직업병	3.70
신종 질병	3.75	대기오염	3.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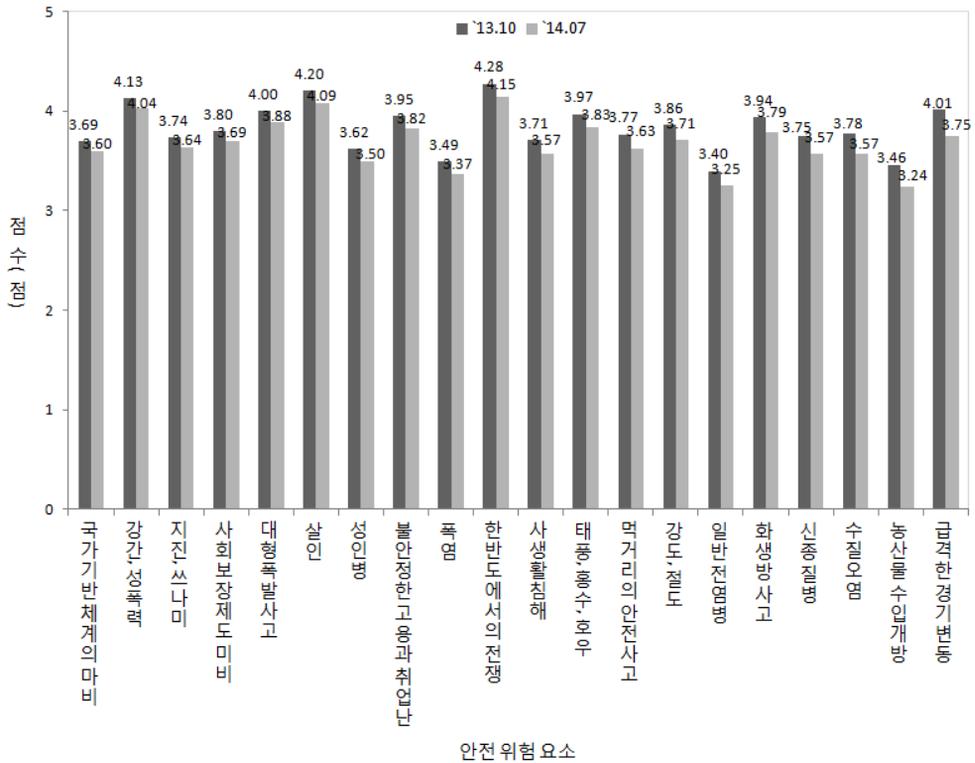
'13.10	점수	'14.07	점수
지진, 쓰나미	3.74	중국/일본 군사 대국화	3.70
대기오염	3.72	사회보장제도 미비	3.69
사생활침해	3.71	산재사고	3.68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	3.69	해양오염	3.68
학교폭력	3.68	자동차교통사고	3.67
빈부격차	3.68	지진, 쓰나미	3.64
화재	3.67	여야갈등	3.63
가스사고	3.66	먹거리의 안전사고	3.63
중국/일본 군사 대국화	3.65	빈부격차	3.61
성인병	3.62	마약 및 알콜중독	3.61
여야갈등	3.62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	3.60
컴퓨터 바이러스 확산	3.61	가스사고	3.60
건축물 붕괴사고	3.60	사생활침해	3.57
직업병	3.59	수질오염	3.57
생명윤리침해사고	3.59	신종 질병	3.57
해양오염	3.57	산불	3.56
산불	3.57	컴퓨터 바이러스 확산	3.54
부정부패	3.55	노사갈등	3.52
마약 및 알콜중독	3.52	생명윤리침해사고	3.51
토양오염	3.52	성인병	3.50
폭염	3.49	토양오염	3.44
노사갈등	3.47	폭염	3.37
농산물 수입개방	3.46	감전 등의 전기사고	3.31
일반 전염병	3.40	폭설	3.31
폭설	3.35	가뭄, 기근	3.28
가뭄, 기근	3.33	일반 전염병	3.25
감전 등의 전기사고	3.28	농산물 수입개방	3.24
과격, 폭력 시위	3.18	일상생활 중의 사고	3.15
시설물 고장 사고	3.12	시설물 고장 사고	3.12
일상생활 중의 사고	3.03	과격, 폭력 시위	3.10
방사선치료의 부작용	2.88	방사선치료의 부작용	3.10
평균	3.67	평균	3.63

국가 대형 안전사고 이후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안전 위험 요소별 인식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그림 35]와 같이, 건축물 붕괴사고 (0.25) > 부정부패 (0.24) >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0.22) > 일상생활 중의 사고 (0.12) > 직업 병 (0.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붕괴사고 및 일상생활 중의 사고와 같은 안전 사고과 같은 위험요소의 심각성이 증가되었고, 부정부패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과 같은 위험요소의 심각성 증가는 2013년부터 이어져 온 원전 비리에 대한 불안감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5]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안전 위험 요소의 인식변화 증가 폭.

증가 폭과는 반대로, 감소한 위험요소는 [그림 36]과 같이, 급격한 경기변동 (-0.26) > 농산물 수입개방 (-0.22) > 수질오염 (-0.21) > 신종질병 (-0.18) > 화생방 사고 (-0.15)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안전 사고와 관련이 적은 위험요소들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그림 36]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안전 위험 요소의 인식변화 감소 폭.

(5) 항목별 상관관계

각 4가지 항목별 결과에 대한 상관관계에서는 <표 17>과 같이 과거 경험과 발생 가능성의 상관관계(R2)가 다른 항목별 관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위험의 인식 항목별 상관관계 (R²)

13년 10월	과거 경험	발생 가능성	개인 귀인	피해 심각성
과거 경험 ¹⁾	1			
발생 가능성 ²⁾	0.40	1		
개인 귀인 ³⁾	0.17	0.00	1	
피해 심각성 ⁴⁾	0.08	0.05	0.04	1

14년 7월	과거 경험	발생 가능성	개인 귀인	피해 심각성
과거 경험	1			
발생 가능성	0.43	1		
개인 귀인	0.28	0.02	1	
피해 심각성	0.05	0.00	0.06	1

- 1) 과거 경험 :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사고의 빈도
- 2) 발생 가능성 : 앞으로 나에게 발생할 가능성
- 3) 개인 귀인 : 개인이 피할 수 있는 가능성
- 4) 피해 심각성 : 피해의 심각성

전체 위험요소 중 항목 별 상위 5개의 위험요소 점수의 범위를 볼 때 과거의 경험(3.84~4.01)과 피해의 심각성(4.04~4.17)에서는 높은 위험도를 나타냈고, 상대적으로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3.16~3.60)에 대해서는 낮은 위험도를 나타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위험에 대해서 위험이 자신보다는 타인의 위험으로 인식하고, 자신에게는 닥치지 않을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풀이 된다.

제 4 절 안전태도의 변화

1) 법과 원칙에 대한 태도 변화

다음의 가상적 상황에 대한 위협 및 안전에 대한 태도에 대한 설문한 결과 <표 18>와 같이 산업위생 전문가들은 국가 대형 안전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원칙을 중요시 하는 의식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 집행의 원칙에 있어서는 세월호 사고 이전 보다 10%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홍길동’씨는 집 근처 술집에서 소주 1병반과 2차로 맥주 3병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런데 홍길동씨가 막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이웃집 주민이 홍씨를 찾아왔다. 이웃집 주민은 급한 일이 생겨 나가야 하는데 홍길동씨의 차가 자신의 차를 막고 있다며 차를 치워달라고 부탁했다. 홍길동씨는 술이 미처 덜 깬 상태였지만 자신의 차를 다른 장소에 주차하기 위해 10여 미터를 주행하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경찰에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를 취소당했다.

경찰의 처사가 ‘용통성 없고 야박하다’는 의견이 19%로 6.1% 감소한 반면, ‘할 일을 했다는 응답’이 81%로 6.1% 증가하였다. 또한 본인이 경찰이었을 경우, ‘홍길동씨를 눈 감아 주었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31%로 12.7% 감소한 반면, ‘원칙대로 조치 했을 것이다’ 라는 응답이 69%로 12.7% 증가하였다 ($p=0.022$). 마찬가지로, 본인이 경찰이었고, 홍길동씨와도 친분이 있었을 경우에도, ‘홍길동씨를 눈 감아 주었을 것이다’ 라는 응답이 57.9%로 11.5% 감소한 반면, ‘원칙대로 조치 했을 것이다’ 라는 응답이 42.1%로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41$).

반면에 경찰과 홍길동이 이웃일 경우, 이웃주민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는 ‘관계가 소원해 질 것이다’ 라는 응답은 64%로 전년대비 4.9% 감소하였고, ‘변함없이 잘 지낼 것이다’ 라는 응답이 36%로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가 직접 법을 집행하는 역할일 경우, 원칙대로 조치 한다는 의견이 강해졌는데 ($p < 0.05$), 이것은 ‘법과 원칙대로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화됐지만 ‘그것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으로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법과 원칙을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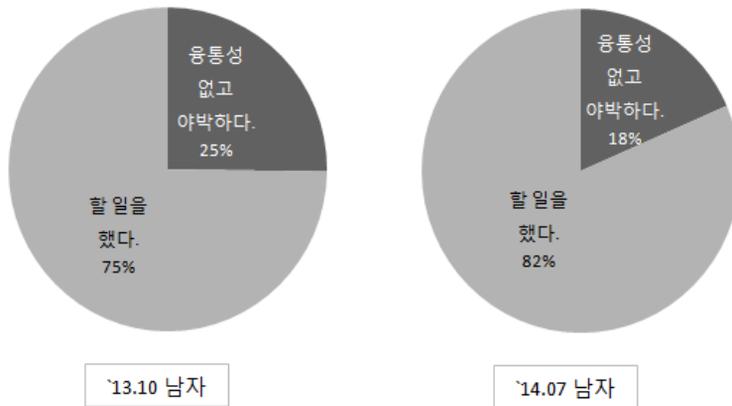
〈표 18〉 법과 원칙에 대한 태도 변화 (%)

구분	보기	'13.10	'14.07
경찰의 처사	용통성 없고 야박하다.	25.1	19.0
	할 일을 했다.	74.9	81.0
	계	100.0	100.0
경찰과 홍길동이 이웃일 경우, 이웃주민과 관계	관계가 소원해 질 것이다.	68.9	64.0
	변함없이 잘 지낼 것이다.	31.1	36.0
	계	100.0	100.0
내가 만약 경찰이었다면	홍길동씨를 눈 감아 주었을 것이다.	43.7	31.0
	홍길동씨를 원칙대로 조치 했을 것이다.	56.3	69.0
	계	100.0	100.0
내가 만약 경찰 이었고, 홍길동과 절친한 사이였다면	홍길동씨를 눈 감아 주었을 것이다.	69.4	57.9
	홍길동씨를 원칙대로 조치 했을 것이다.	30.6	42.1
	계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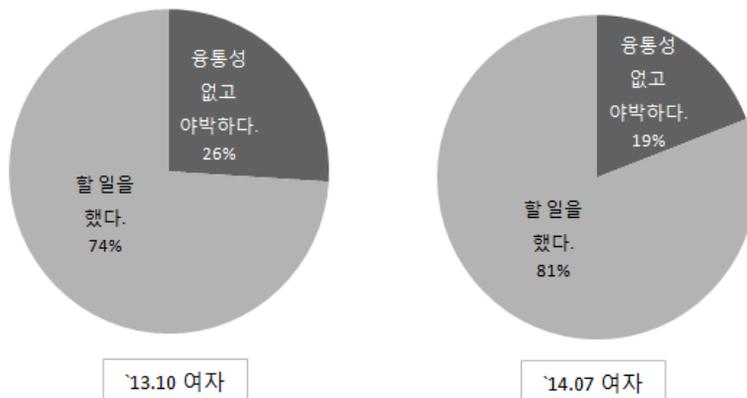
(1) 경찰 처사에 대한 태도의 성별 변화

경찰 처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전체 6.1%의 증감을 보였다. 즉, ‘할 일을 했다’는 응답이 6.1% 증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성별의 변화는 차이가 없었다.

남자 응답자의 경우 [그림 37]과 같이, ‘할 일을 했다’는 응답자가 2013년에 비해 2014년이 7% 증가하였고, 여자 응답자의 경우도 [그림 38]과 같이, 7% 증가하여 남자와 여자가 같은 증감 비율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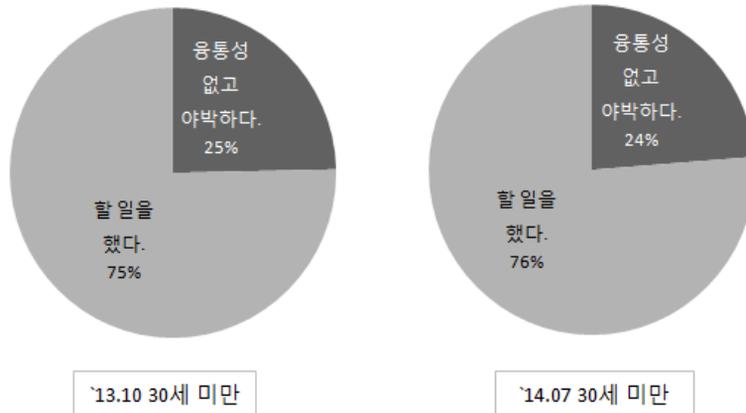
[그림 37] 경찰의 처사에 대한 성별 비교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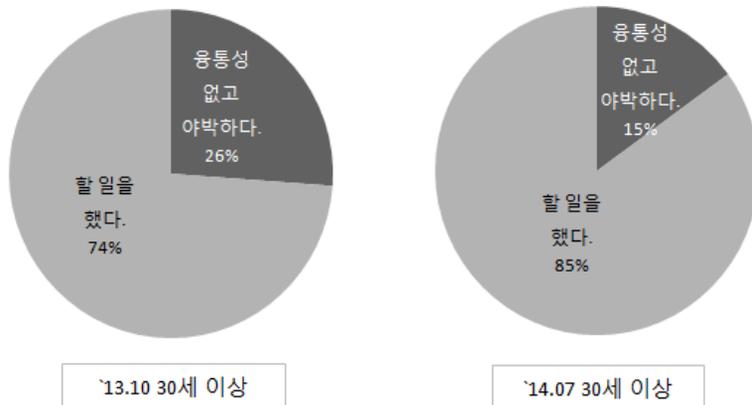
[그림 38] 경찰의 처사에 대한 성별 비교 (여자).

(2) 경찰 처사에 대한 태도의 연령별 변화

경찰 처사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대한 연령별 응답 변화는 30세 미만의 경우 [그림 39]와 같이, ‘할 일을 했다’는 응답자가 2013년과 2014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30세 이상의 응답자의 경우 [그림 40]과 같이, 11% 증가하였다($p=0.079$). 이는 경찰 처사에 대한 태도의 변화의 주요 요인이 30세 이상의 연령층의 태도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 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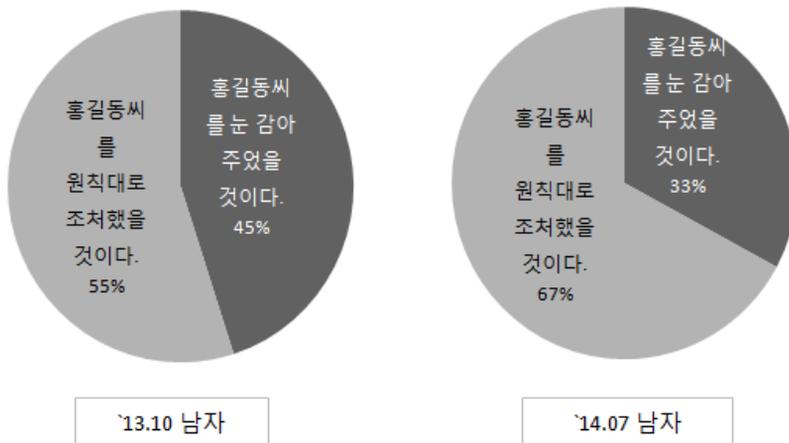
[그림 39] 경찰의 처사에 대한 연령별 비교 (30세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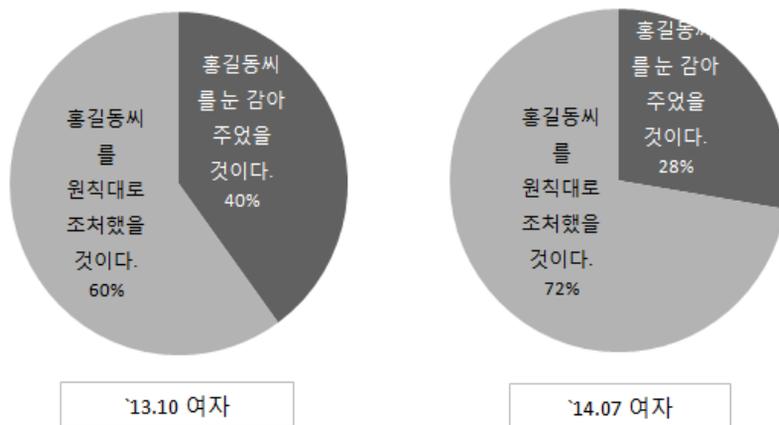
[그림 40] 경찰의 처사에 대한 연령별 비교 (30세 이상, $p=0.079$).

(3) 내가 경찰이었을 경우에 대한 태도의 성별 변화

내가 경찰이었을 경우의 태도 변화는 전체 12.7%의 증감을 보였다. 즉, ‘홍길동씨를 원칙대로 조치했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12.7% 증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성별의 변화는 차이가 없었다. 남녀 응답자의 경우 [그림 41]과 [그림 42]와 같이, ‘홍길동씨를 원칙 대로 조치했을 것이다’ 응답자가 2013년에 비해 2014년이 12% 증가하였다(여자, $p=0.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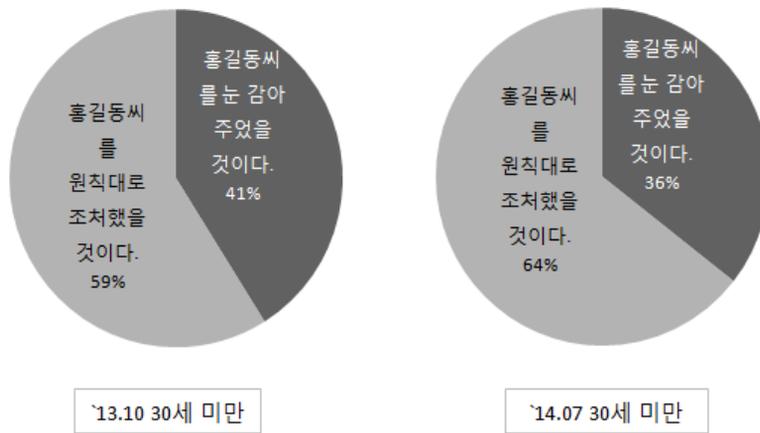
[그림 41] 내가 경찰이었을 경우에 대한 성별 비교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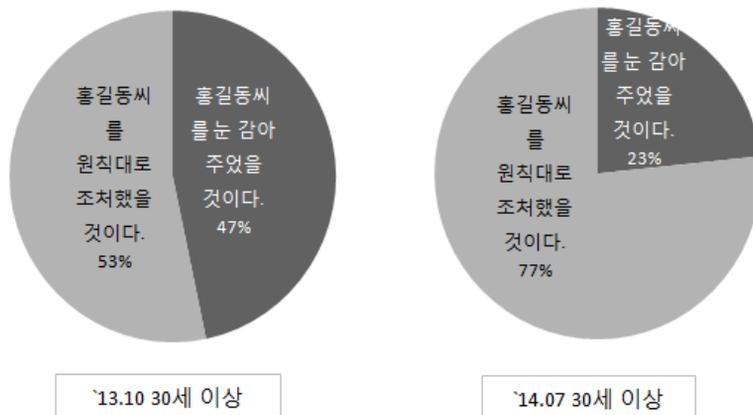
[그림 42] 내가 경찰이었을 경우에 대한 성별 비교 (여자, $p=0.203$).

(4) 내가 경찰이었을 경우에 대한 태도의 연령별 변화

내가 경찰이었을 경우, 연령별 변화는 30세 미만의 경우 [그림 43]과 같이, ‘홍길동씨를 원칙 대로 조치했을 것이다’ 라는 응답이 5% 증가한 반면, 30세 이상의 경우 [그림 44]와 같이, 24% 증가하였다($p=0.002$). 이는 내가 경찰이었을 경우의 ‘홍길동씨를 원칙 대로 조치했을 것이다’ 라는 응답이 전체 12.7% 증가한 이유가 30세 이상의 응답자의 인식의 변화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내가 경찰이었을 경우에 대한 연령별 비교 (30세 미만).



[그림 44] 내가 경찰이었을 경우에 대한 연령별 비교 (30세 이상, $p=0.002$).

2) 일상생활에서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태도 변화

〈표19〉와 같이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태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귀하는 삶에 도전이 없다면 인생이 너무 지루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예’라고 대답한 비율이 2014년에는 88%로 2013년에 비해 13% 증가하였다. 이를 제외하고는 2013년과 2014년의 동일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집단간의 특성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2014년 응답자 비율에서 전일제 학생은 다소 증가하였고, 사업장이나 기관등 직장인들의 수가 다소 감소하여 나타난 결과로 아직 학생의 경우 직장인들 보다 삶의 도전이 차지하는 가치가 더 큰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성향을 확인하기 위해 〈표 20〉과 같이, 20개의 문항에 각각 위험과 안전에 대한 성향이 강한 답변을 한 경우에는 1점, 위험과 안전에 대한 성향이 약한 답변을 한 경우에는 0점을 주었다. 전체 문항의 점수를 더한 값을 일상생활에서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성향 점수(최대점수 20점을 100점으로 환산)로 나타내었다. 100점에 가까울수록 안전성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설문 응답자에 대한 결과는 [그림 45]과 같이 2013년 68.31점, 2014년 68.21점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성별, 연령별로의 성향 점수는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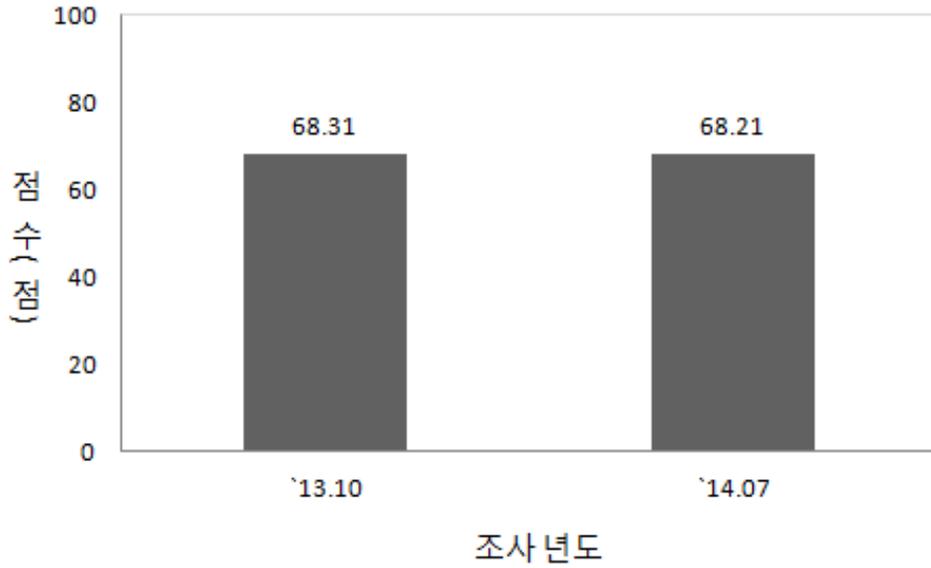
[그림 46]과 같이, 남자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자의 경우 2013년 71.77점에서 2014년 68.30점으로 감소하였다($p=0.184$). 또한 [그림 47]과 같이, 30세 미만의 경우, 2013년 67.54점에서 2014년 65.93점으로 감소했으나, 30세 이상의 경우, 2013년 68.89점에서 2014년 70.08점으로 증가하였다. 결국, 남자의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성향이 향상 됐고, 여자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p>0.05$).

〈표 19〉 일상생활에서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태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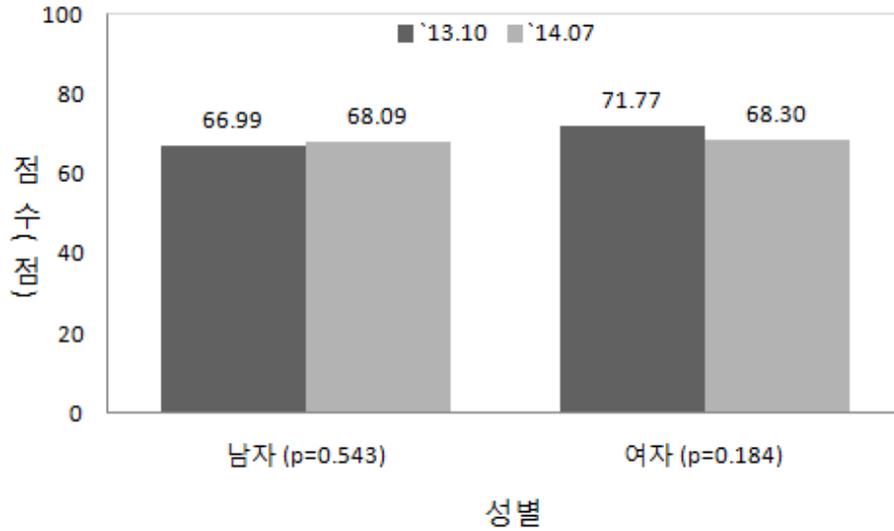
위험 인지 및 안전 행동	응답결과(%)		
	'13.10	'14.07	
귀하는 밤에 문단속을 철저히 하십니까?	Y	88	83
	N	12	17
	계	100	100
귀하는 삶에 도전이 없다면 삶이 너무 지루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Y	75	88
	N	25	12
	계	100	100
귀하는 과속을 하거나 속도를 내서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Y	28	28
	N	72	72
	계	100	100
귀하는 운전하거나 차를 탈때 교통규칙 및 신호 등을 철저히 지키는 다른 차량들 때문에 짜증낸 적이 있으십니까?	Y	28	27
	N	72	73
	계	100	100
귀하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거나 건강을 체크하십니까?	Y	66	63
	N	34	37
	계	100	100
귀하는 차를 탈 때 언제나 안전벨트를 매십니까?	Y	85	85
	N	15	15
	계	100	100
귀하는 다른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을때도 혼자서 길을 건너시는 편이십니까?	Y	12	13
	N	88	87
	계	100	100
귀하는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Y	25	17
	N	75	83
	계	100	100
귀하는 모험이나 스릴을 느끼는 운동을 좋아하거나 하고 싶으십니까?	Y	51	52
	N	49	48
	계	100	100

〈표 20〉 일상생활에서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성향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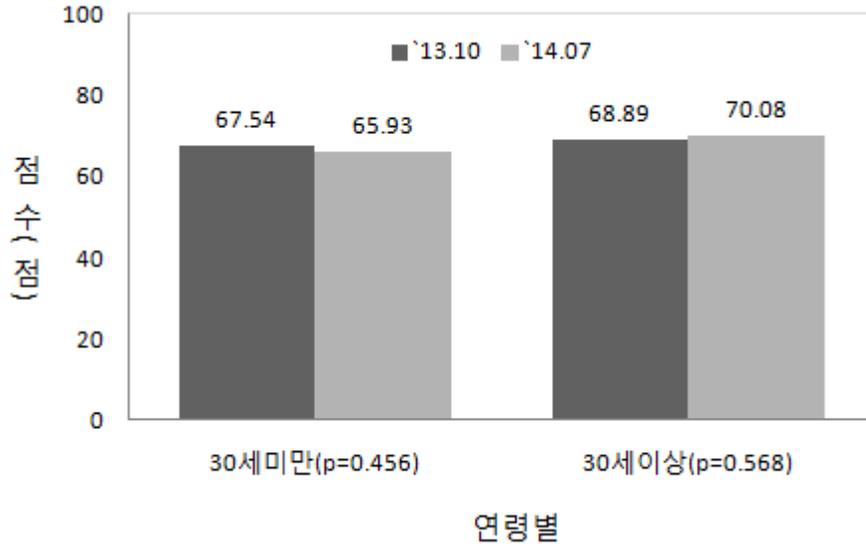
위험 인지 및 안전 행동	안전 성향점수	
	예	아니오
1. 귀하는 수입이 불안정할지라도 여가가 보장되고 여행 등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직업을 택하시겠습니까?	0	1
2. 귀하는 밤에 문단속을 철저히 하십니까?	1	0
3. 귀하는 열차를 탈 때 열차시간에 딱 맞추어서(여유시간을 거의 두지 않고) 도착하십니까?	0	1
4. 귀하는 삶에 도전이 없다면 삶이 너무 지루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0	1
5. 귀하는 장기 저축을 하십니까?	1	0
6. 귀하는 과속을 하거나 속도를 내서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0	1
7. 귀하는 운전하거나 차를 탈때 교통규칙 및 신호 등을 철저히 지키는 다른 차량들 때문에 짜증낸 적이 있으십니까?	0	1
8. 귀하는 물건을 살때 보증서를 꼼꼼하게 체크하십니까?	1	0
9. 귀하는 사람들이 보험을 들거나 저축을 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	1
10. 귀하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거나 건강을 체크하십니까?	1	0
11. 귀하는 차를 탈 때 언제나 안전벨트를 매십니까?	1	0
12. 귀하는 가끔씩 경주나 선거 등에 내기 돈을 거십니까?	0	1
13. 귀하는 손쉽게 돈을 꾸거나 빌려주는 편이십니까?	0	1
14. 빚을 지거나 채무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1	0
15. 귀하는 다른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을때도 혼자서 길을 건너시는 편이십니까?	0	1
16. 귀하는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1
17. 귀하는 계약 등을 할 때 계약서 등 서류에 있는 작은 글씨들도 꼼꼼하게 읽어보십니까?	1	0
18. 귀하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볼까를 염두하면서 행동을 조심하시는 편입니까?	1	0
19. 귀하는 모험이나 스릴을 느끼는 운동을 좋아하거나 하고 싶으십니까?	0	1
20. 귀하는 평소애 청결과 위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1	0



[그림 45] 일상생활에서의 위험과 안전 성향 점수 비교 (전체).



[그림 46] 일상생활에서의 위험과 안전 성향 점수 비교 (성별).



[그림 47] 일상생활에서의 위험과 안전 성향 점수 비교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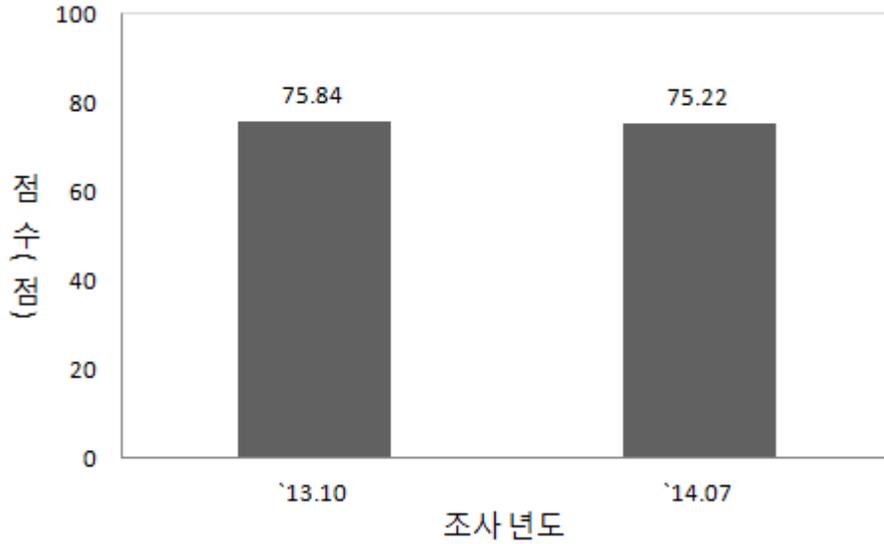
일상생활 항목 중 안전과 관련된 문항을 선택하여, 안전에 대한 성향이 어떠한지 추가로 확인해 보았다. 20개 항목 중에서 <표 21>과 같이 9개 항목을 선정하여, 해당 항목의 안전성향 점수를 합하여(최대 점수 9점을 100점으로 환산) 안전 성향을 확인하였다. 100점에 가까울수록 안전성향이 높다.

이 결과, 20개 전체 항목을 비교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응답자 전체 점수에서는 [그림 48]와 같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성별 비교는 [그림 49]과 같이 남자는 다소 증가, 여자는 감소하였다($p=0.081$). 연령대 비교도 [그림 50]와 같이 20개 전체 항목을 비교한 결과와 유사하게 30세 미만에서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30대 이상에서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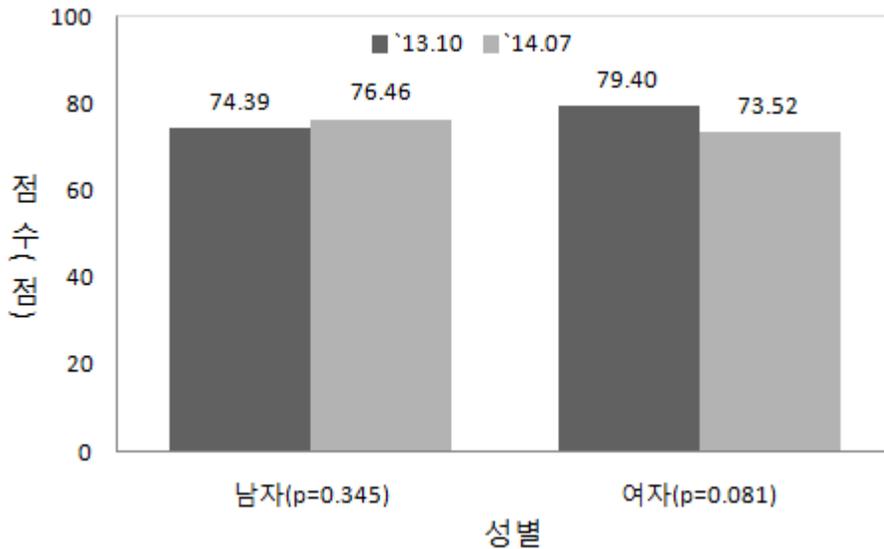
따라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안전성향도 전체 항목을 비교한 결과와 유사하게 30대 이상 남성은 증가하였고, 30세 미만 여성의 경우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으로 변화되었다.

〈표 21〉 일상생활 항목 중 안전 관련 문항에 대한 태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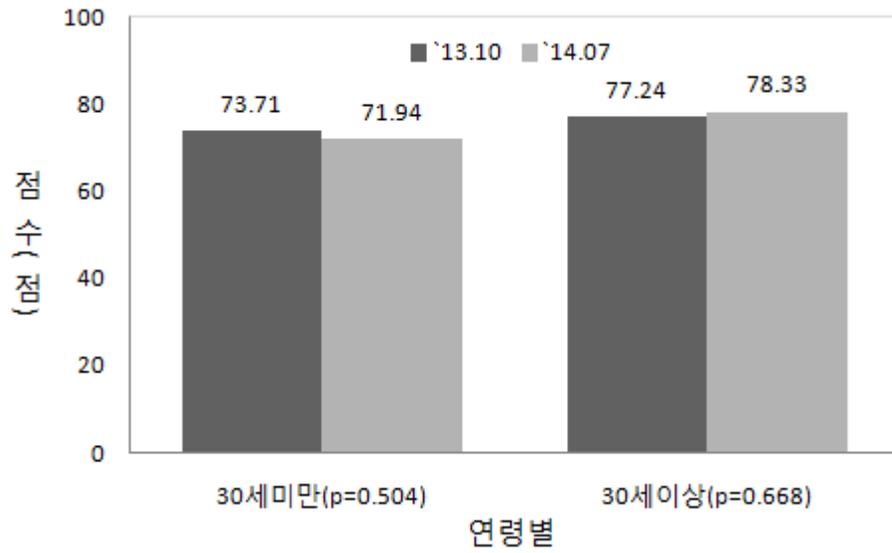
위험 인지 및 안전 행동	안전성향 점수	
	예	아니오
1. 귀하는 밤에 문단속을 철저히 하십니까?	1	0
2. 귀하는 과속을 하거나 속도를 내서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0	1
3. 귀하는 운전하거나 차를 탈때 교통규칙 및 신호 등을 철저히 지키는 다른 차량들 때문에 짜증낸 적이 있으십니까?	0	1
4. 귀하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거나 건강을 체크하십니까?	1	0
5. 귀하는 차를 탈 때 언제나 안전벨트를 매십니까?	1	0
6. 귀하는 다른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을때도 혼자서 길을 건너시는 편이십니까?	0	1
7. 귀하는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1
8. 귀하는 모험이나 스릴을 느끼는 운동을 좋아하거나 하고 싶으십니까?	0	1
9. 귀하는 평소에 청결과 위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1	0



[그림 48] 일상생활 중 안전 관련 문항의 안전 성향 점수 비교 (전체).



[그림 49] 일상생활 중 안전 관련 문항의 안전 성향 점수 비교 (성별).



[그림 50] 일상생활 중 안전 관련 문항의 안전 성향 점수 비교 (연령별).

3) 특정상황 별 위험과 안전에 대한 태도 변화

〈표 22〉와 같이 총 7가지 상황에 대한 위험과 안전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내용에 대한 응답에서 5가지의 상황에 대해서는 2013년과 2014년이 크게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 나에게 불행이 일어나는 원인, 저녁 회식에서 맥주를 한병 마셨을 경우 운전 여부, 모든 신축 건물에 법적으로 내진 설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경우, 깊은 밤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켜져 있고 지나가는 차량이 없을 경우 등 5가지 경우에는 위험 및 안전에 대한 태도와 인식변화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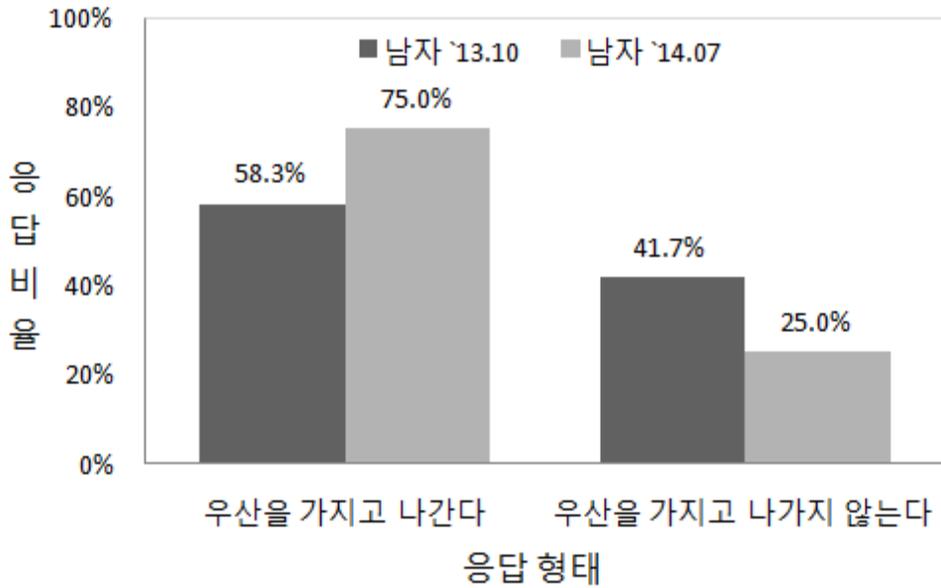
하지만, 한 사람이 가난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응답으로는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47.2%로 2013년 37.4%에 비해 9.8%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209$). 또한 비가 올 확률이 50%라고 할 때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74.4%로 2013년 63.0% 보다 11.4% 증가하였는데($p=0.033$)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위험에 대한 자기 보호인식이 대형사고 이후 더욱 강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변화가 되었던 비가 올 확률이 50%라고 할 때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성별, 연령별 세부 분석할 결과, [그림 51]과 같이 남자의 경우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 58.3%에서 2014년 75.0%로 16.7% 증가하였으나($p=0.013$), 여자의 경우 [그림 52]과 같이 차이가 없었다. 또한, 30세 미만의 경우 [그림 53]과 같이 차이가 없었으나, 30세 이상의 경우 [그림 54]과 같이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 62.1%에서 2014년 83.3%로 21.2% 증가하였다($p=0.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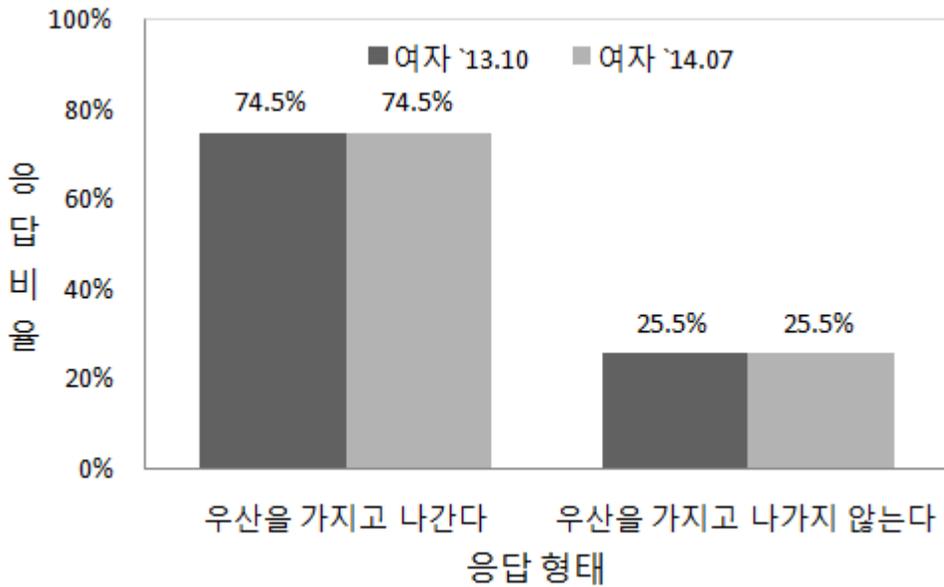
따라서, 남자의 경우, 특히 30대 이상의 남자의 경우 대형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확인 되었다.

〈표 22〉 특정상황 별 위험과 안전에 대한 태도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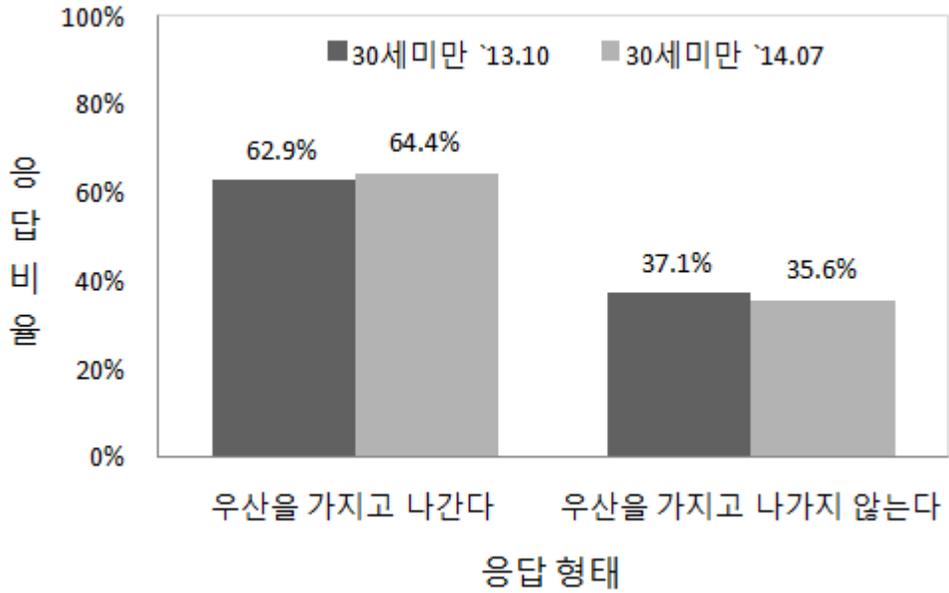
구분	'13.10	'14.07
1.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		
① 자연은 예측 불가능하므로 인간은 자연에 순응하며 살 수 밖에 없다.	19.3	16.3
② 인간이 아무리 자연을 훼손하더라도 자연은 스스로 복구할 힘을 가지고 있다.	3.9	4.1
③ 일정 한도까지는 인간이 자연을 훼손해도 스스로 복구하지만 그 한도를 넘으면 큰 재난을 가져온다.	72.9	76.4
④ 자연은 인간이 조금만 훼손해도 큰 재난을 가져온다.	3.9	3.3
계	100.0	100.0
2. 만일 내가 불행이 일어난다면 그 원인은?		
① 운명(전생, 하늘의 섭리 등) 때문이다.	25.0	30.1
② 내 잘못 때문이다.	75.0	69.9
계	100.0	100.0
3. 한 사람이 매우 가난하다면, 그 원인은?		
① 그 사람이 게으르고 무능력하기 때문이다.	62.6	52.8
② 사회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37.4	47.2
계	100.0	100.0
4. 비가 올 확률이 50%라고 한다면?		
①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	63.0	74.4
②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37.0	25.6
계	100.0	100.0
5. 저녁 회식에서 맥주를 한병 마셨다면?		
① 운전을 한다.	22.3	28.0
② 운전을 하지 않는다.	77.7	72.0
계	100.0	100.0
6. 모든 신축 건물에 내진 설계를 법적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① 해야 한다.	87.8	88.8
② 할 필요 없다.	12.2	11.2
계	100.0	100.0
7. 깊은 밤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켜져있고, 지나가는 차가 없다면?		
① 그냥 건넌다.	53.6	58.5
② 파란불이 켜진 후 건넌다.	46.4	41.5
계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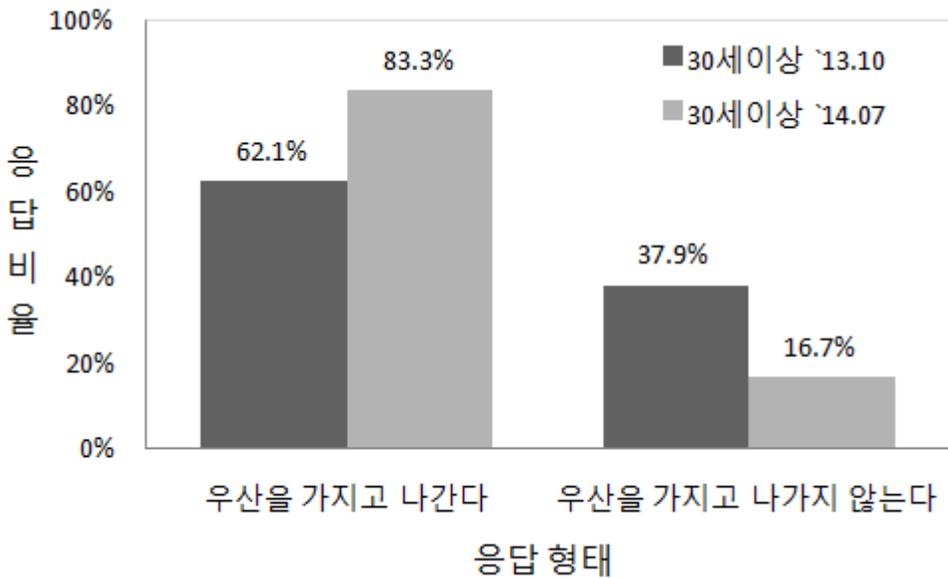
[그림 51] 비가 올 확률이 50%일 경우 응답 결과 (남자, p=0.013).



[그림 52] 비가 올 확률이 50%일 경우 응답 결과 (여자).



[그림 53] 비가 올 확률이 50%일 경우 응답 결과 (30세 미만).



[그림 54] 비가 올 확률이 50%일 경우 응답 결과 (30세 이상, p=0.002).

전체 문항 중 안전과 관련된 특정 상황에 대해서 안전성향을 확인하기 위해 <표 23>과 같이 각 문항별 안전 성향 점수를 나타내어 이를 합산한 점수를 전체 안전성향 점수로 확인하였다. 안전성향 점수는 안전성향이 강한 경우 1점, 안전성향이 낮은 경우 0점을 부여하였다. 전체 문항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으로 환산하였으며, 100점에 가까울수록 안전성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를 전체 집단과 성별,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확인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경우 [그림 55]과 같이 2013년 67.90점, 2014년 68.45점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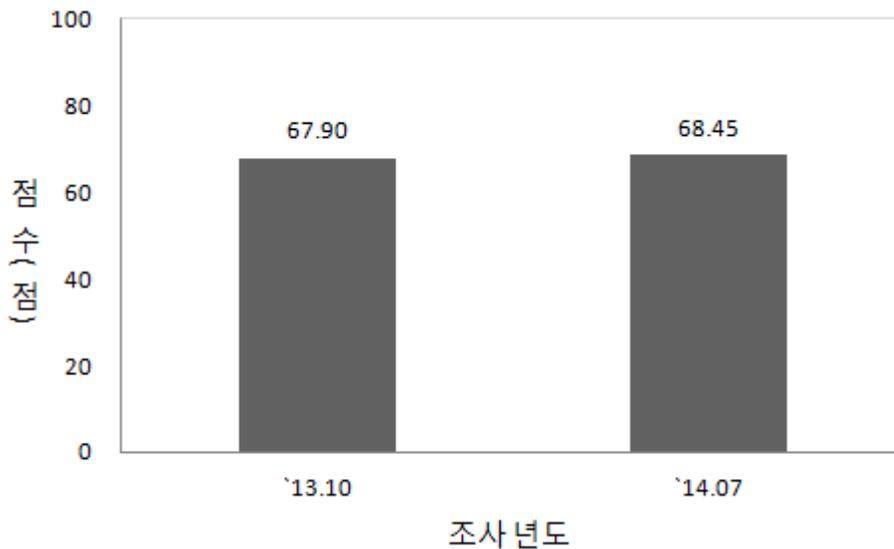
성별 비교에서는 [그림 56]과 같이 남자의 경우 2013년 63.93점에서 2014년 70.07점으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으로 보였고, 여자의 경우 2013년 78.00점에서 2014년 68.09점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 비교에서는 [그림 57]과 같이 30세 미만에서는 2013년 67.47점에서 2014년 64.83점으로 다소 감소하였고($p=0.559$), 30세 이상에서는 2013년 67.52점에서 2014년 72.92점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p=0.206$),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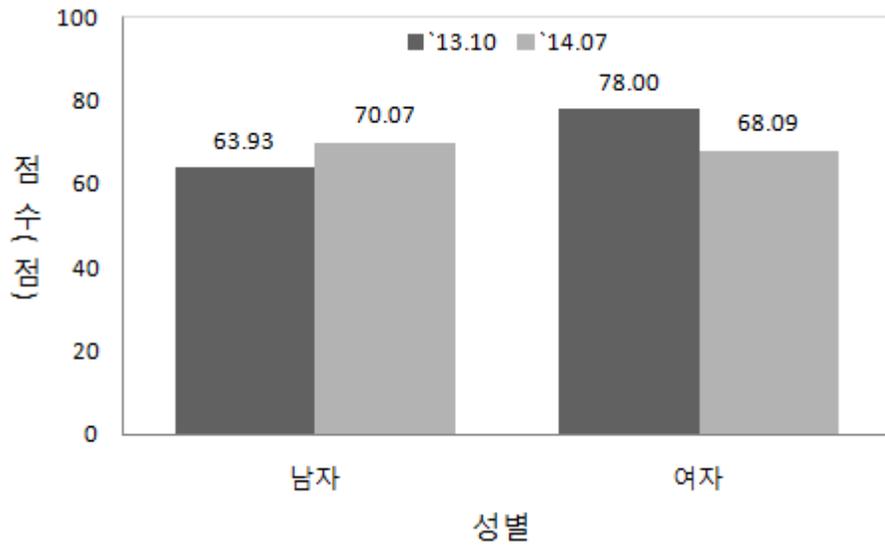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성향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30세 이상의 남자의 경우 안전성향이 강해진 반면, 30세 미만 여자의 경우 안전성향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3〉 특정상황 중 안전과 직접 관련된 문항에 대한 안전성향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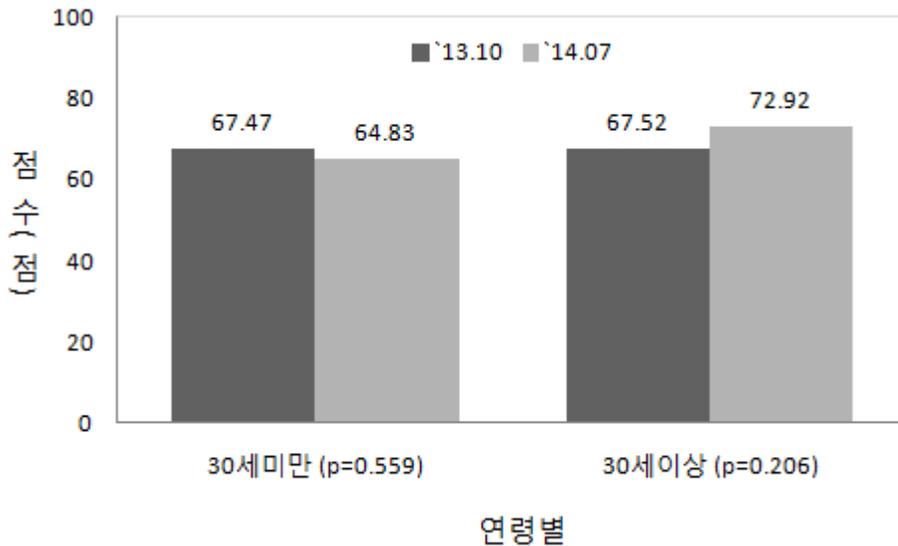
구분	안전 성향 점수
1. 비가 올 확률이 50%라고 한다면?	
①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	1
②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0
2. 저녁 회식에서 맥주를 한병 마셨다면?	
① 운전을 한다.	0
② 운전을 하지 않는다.	1
3. 모든 신축 건물에 내진 설계를 법적으로 의무화 해야한다?	
① 해야 한다.	1
② 할 필요 없다.	0
4. 깊은 밤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켜져있고, 지나가는 차가 없다면?	
① 그냥 건넌다.	0
② 파란불이 켜진 후 건넌다.	1



[그림 55] 특정상황 중 안전 관련 문항의 안전 성향 점수 비교 (전체).



[그림 56] 특정상황 중 안전 관련 문항의 안전 성향 점수 비교 (성별).



[그림 57] 특정상황 중 안전 관련 문항의 안전 성향 점수 비교 (연령별).

제 5 장 결 론

세월호 사고 전후, 우리나라 산업보건 분야의 전문가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제 1 절 안전 의식의 변화

2013년 대비 2014년의 안전의식 수준 평가의 주요 변화 항목은 본인의 경우, ‘보통’이 증가하면서, ‘높다’의 비율이 감소하였고, 타인의 경우, ‘보통’이 감소하면서, ‘높다’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고($P>0.05$). 이를 성별과 연령별로 차이를 비교한 결과, 남자의 경우 본인의 안전의식 평가에서 2013년 ‘보통’이 26%에서 33%로 증가하였고, ‘높다’의 비율이 64%에서 51%로 감소하였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P>0.05$). 타인의 안전의식 평가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자의 경우 변화의 차이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30세 미만의 경우 본인의 안전의식 평가에서 2013년 ‘보통’이 34%에서 54%로 20% 증가하였고, ‘높다’의 비율이 53%에서 27%로 25% 감소하였고($p=0.010$),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30세 이상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타인의 안전의식 평가에 대한 년도별 차이는 없었으며, 본인의 안전의식에서는 남자, 특히 30대 미만에서 차이를 보였고, 대형사고 발생 이후 본인의 안전의식이 낮다고 인식하는 성향이 강해졌다. 반면에 30대 이상의 경우는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의식이 사고 전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안전의식 수준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2013년의 경우, 안전 불감증 (35.6%) > 빨리빨리 서두르는 습관 (24.3%) > 눈앞의 이익만 추구 (23.7%) > 적당히 쉽게 처리하는 경향 (17.5%) > 안전교육의 미비 (11.3%) 순 이었고, 2014년의 경우, 안전 불감증 (27.6%) > 적당히 쉽게 처리하는 경향 (21.1%) > 눈앞의 이익만 추구 (18.7%) > 안전교육의 미비(13.0%) > 빨리빨

리 서두르는 습관 (12.2%) 순으로 나타나 2013년과 2014년 모두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두 변화가 있었다. 남자와 여자, 30세 미만과 30세 이상에서 각 집단 간 특성에 따라 안전의식이 낮은 이유에 대한 순위가 달라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P>0.05$).

제 2 절 안전 인식의 변화

1) 사회 안전수준에 대한 안전 인식 변화

사회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 및 불안에 대한 인식은 국가 대형사고 발생 전보다 안전수준에 대해서는 더 위험해지고, 불안수준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안전수준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의 응답에서 과거에 대해서는, 2013년 0.68점에서 -0.33점으로 1.01점 낮아졌고, 현재에 대해서는 2013년 -0.11점에서 2014년 -1.22점으로 -1.11점 더 낮아졌다. 또한, 미래에 대해서는 2013년 0.65점에서 2014년 -0.02점으로 0.67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P<0.05$). 이는 국가 대형 사고 이후 우리 사회의 위험수준을 더 위험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여자보다는 남자의 특성과 가까웠고, 30세 미만보다는 30세 이상의 직장인들의 특성과 가까웠다.

본 연구결과에서 1995년, 2000년, 2013년, 2015년, 2020년의 불안 수준에 대한 조사한 결과, 전체적인 경향을 볼 때 과거부터 미래까지의 불안 수준은 2013년에 비해 2014년 조사결과 과거와 미래의 불안 수준 폭이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p>0.05$). 이를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확인한 결과 남자의 경우와 30대 이상의 경우 과거 보다 미래의 불안 수준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자의 경우 과거보다 미래의 불안 수준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산업위생 종사자의 경우 전문성과 사회경험이 증가할수록 위험에 대한 불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여자의 경우 아직 학생인 경우와 전문성과 사회경험이 적은 경우가 많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2013년에 비해 2014년에는 과거와 미래의 불안의 폭이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 국가 정책에 대한 안전 인식 변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성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2013년과 2014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여자의 경우 2013년 6.72에서 2014년 6.30으로 반대 성향이 약간 낮아졌다. 이는 남자나 연령대별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감소 폭이 높은 것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반대성향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P>0.05$).

대형사고 발생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는 ‘사고는 면했지만 으로는 조심한다’ 라는 응답은 2013년 12.0%에서 2014년 4.8%로 7.2% 감소했고, ‘사회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 72.1%에서 76.8%로 4.7% 증가하였다($P>0.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는 대형 사고가 개인의 잘못 보다는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풀이 된다. 남성의 경우, 2013년 ‘사고를 면했지만 앞으로 조심 한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들 중 2014년 남성의 경우 개인적 운이나 본인과 상관없는 경우라고 느끼는 성향이 강해졌고, 여성의 경우 사회적 대응책이 필요한 것을 느끼는 성향이 강해졌다.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2013년 결과, 119 구급대(4.09) > 소방서(4.06) > 경찰서 및 파출소 (2.98) > 민간경비업체(2.73) > 전반적인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2.59) 의 순으로 119 구급대가 가장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2014년에도 점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119 구급대(3.98) > 소방서 (3.93) > 경찰서 및 파출소 (2.83) > 민간경비업체(2.70) > 전반적인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2.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위험과 안전과 관련된 국가 공공기관의 신뢰도의 점수가 공통적으로 소폭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05$) 공공기관 신뢰도에 대해 2013년과 2014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의 신뢰도의 경우 남자 (2.60 → 2.17), 여자 (2.56 → 1.96), 30세 미만 (2.53 → 2.00), 30세 이상 (2.63 → 2.08) 등으로 전반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P>0.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3) 안전 위험 요소별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

과거 경험 즉,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사고의 빈도에 대해서는 국가 대형 안전사고 이후 과거 경험에 대한 안전 위험 요소별 인식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대형교통수단 사고 (0.31) > 산재사고(0.24) > 일상생활 중의 사고 (0.23) > 건축물 붕괴사고 (0.20) > 시설물 고장에 의한 사고 (0.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 대형 안전사고 이후에는 다른 위험 요소보다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항목에 대해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안전 위험 요소별 인식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여야 갈등 (0.31) > 부정부패 (0.28) > 시설물 고장사고 (0.22) > 화재 (0.20) > 대형교통수단 사고 (0.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가능성 즉, 앞으로 나에게 발생할 가능성을 느끼는 인식이 국가 대형 안전사고 이후에는 일상적으로 느끼는 위험요소 (여야갈등, 부정부패) 뿐만 아니라, 사고와 관련된 위험요소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개인이 피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안전 위험 요소별 인식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노사갈등 (0.30) > 화재 (0.25) >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0.25) >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0.22) > 해양 오염 (0.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주로 대형 안전 사고와 연관이 적은 위험요소에 대해서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났다.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안전 위험 요소별 인식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건축물 붕괴사고 (0.25) > 부정부패 (0.24) >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0.22) > 일상생활 중의 사고 (0.12) > 직업병 (0.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붕괴사고 및 일상생활 중의 사고와 같은 안전 사고과 같은 위험요소의 심각성이 증가되었고, 부정부패와 방사선치료의 부작용과 같은 위험요소의 심각성 증가는 2013년부터 이어져 온 원전 비리에 대한 불안감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절 안전 태도 변화

세월호 이후 국가 대형 안전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원칙을 중요시 하는 태도가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차이를 보였으며($p < 0.05$) 이는 성별과 상관없이 사회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30세 이상의 경우 더욱 사회 안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태도 변화는 남자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자의 경우 2013년 14.35점에서 2014년 13.66점으로 감소하였다.

특정상황별 위험과 안전에 대한 태도 변화를 알아본 결과, 비가 올 확률이 50%라고 할 때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74.4%로 2013년 63.0% 보다 11.4% 증가하였는데($p = 0.033$)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위험에 대한 자기 보호인식이 대형사고 이후 더욱 강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국가 대형사고 전후 산업위생분야 종사자 집단에서의 사회 안전의식의 변화는 불안전 사회의 원인을 국가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성향이 강해졌으며, 사회의 안전 수준 및 불안 수준도 더 위험하고 더 불안한 수준으로 인식하는 변화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에 대한 법과 원칙에 태도가 강해졌고, 이러한 변화는 30세 이상의 남자집단에서 의식의 변화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교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며, 특정 질문 항목 및 특정 연령대에서만 변화의 수준이 나타나, 이를 근거로 산업위생분야 종사자들의 전반적인 안전의식이 변화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제 4 절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는 세월호라는 국가적 재난을 미리 상정하고 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세월호 사고 발생 직전인 2013년 산업위생학회 학술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사고 발생이후인 2014년도에 같은 조사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세월호 전후의 사회안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설계가 세월호 사고를 예견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고, 산업보건 전문가 및 실무자라는 특정집단으로 국한되었다는 점, 그리고 1년이라는 기간을 전후로 같은 설문지를 사용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이 응답하였으므로 사전에 설문 응답경험 등이 두 번째 설문조사를 하였을 때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이 본 조사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순진. (2001). 의식의 경험으로서의 인식. 『철학연구』, 54, 181-202.
- 강영계. (1983). 『인식과 관심』. 서울: 고려원.
- 김동열. (2014). 『안전의식 실태와 정책』.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 김수미. (2014). 『산업위생분야 전문가 및 실무자들의 사회안전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한성대학교 대학원.
- 김은성. (2004). 영국의 문법교육에 대한 고찰. 『한국문법교육학회』, 2, 1-36.
- 문정일. (1993). 『건설현장 안전·노무·산재 담당자를 위한 건설안전실무』.
서울: 교문사.
- 박상섭. (2010). 초등학생들의 안전의식이 사고유형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6), 2152-2160.
- 박옥희. (1991).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5(여름),
143-159.
- 서문기. (2006). 위험사회와 산업안전 : 사회정책적 함의. 『한국정책학회보』,
15(4), 65-86.
- 설동훈. (1998). 한국인의 위험 인식. 『한국사회과학』, 20(1), 22-61.
- 설재훈. (2014). 『‘세월호 사고 6개월 국민안전 의식변화’ 설문결과』. 세종:
한국교통연구원.
- 송해룡. (2012). 위험커뮤니케이션의 개념화. 『분쟁해결연구』, 10(1), 65-100.
- 신흥철. (2015). 항공기 객실안전정보가 안전정보인식 및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호텔관광연구』, 17(2), 369-385.
- 안성훈. (2014). 건설근로자 안전의식 향상방안. 『한국건축시공학회지』,
14(5), 451-457.

- 양정은. (2014). 한국인들의 문화적 특성이 위험 인식과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홍보학연구』, 18(1), 107-150.
- 여운승. (2001). 『마케팅 관리』. 서울: 시그마프레스.
- 윤훈현. (2008). 『소비자행동의 이해』. 서울: 청목출판사.
- 이경재. (2014). 『조직의 안전풍토에 대한 종업원의 인식과 개인의 안전의식이 직무만족,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조직신뢰를 매개로』. 아산: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 이기춘. (1992). 서울시 주부소비자의 안전 추구행동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 17, 37-48.
- 이근희. (1994). 한국산업재해의 실증적 연구. 『공업경영학회』, 17(29), 1-12.
- 이병승. (2009). 존 듀이 의식이론의 교육적 의미 탐구. 『한국교육철학회』, 39, 191-221.
- 이장국. (2007). 안전에 대한 용어적 및 어원적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22(2), 28-35.
- 이재열. (2005). 『사회안전지표 개발을 위한 국민안전의식 조사』. 세종: 소방방재청.
- 이환성. (2014). 『국민 안전의식 실태분석 및 안전문화 기반 조성방안』.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정순돌. (2007). 강원도 노인의 수해경험과 재해인식에 관한 연구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비교」. 『한국방재학회』, 8(1), 57-62.
- 정익재. (2014). 위험인식의 특성과 의미:한국인의 기술위험 인지도에 대한 Psychometric 분석. 『한국안전학회』, 29(1), 80-85.
- 정지현. (2013). ‘국어 의식’과 ‘국어 인식’의 교육적 개념화를 위한 방향 탐색. 『한국문법교육학회』, 19, 389-491.
- 통계청. (2008). 『사회 통계조사 결과(교육·안전·환경 부문)』. 세종: 통계청.
- 통계청. (2010). 『사회 통계조사 결과(교육·안전·환경 부문)』. 세종: 통계청.

- 통계청. (2012). 『사회 통계조사 결과(교육·안전·환경 부문)』. 세종: 통계청.
- 통계청. (2014). 『사회 통계조사 결과(교육·안전·환경 부문)』. 세종: 통계청.
- 허경옥. (2013). 구매행동단계별 소비자의 안전의식과 안전행동 및 사회, 기업, 정부의 안전정책에의 인식 분석 및 영향요인 조사. 『한국위기관리논집』, 9(3), 65-88.
- 황광일. (2014). 세월호 사고 발생에 따른 여객선 승객의 안전의식 변화.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38(9), 1156-1162.

2. 국외문헌

- Allport, G. (1937).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Y: HRW.
- Beck, Ulrich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SAGE Publication.
- Bello, W. & S. Rosenfeld. (1990). *Dragons in Distress: Asia's Miracle Economics in Crisis*. San Francisco: Institute for Food and Development Policy.
- Brown, S. A., E. M. Crown, & S. P. Marshall. (1987). Consumer Beliefs about a Attitude toward Intentions to Purchase Fire Resistant Products. *Advanced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379-385.
- Cornforth, M. (1963). *The Theory of knowledge, International Publishers*. 이보임 역 (1988), 서울. 동녘출판사, 148-150.
- Dewey, J. (1887). *Psychology. edited by John Dewey The Early Works 1882-1898*. Carbondale and Edwardsvil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Dijksterhuis, A. & Bargh, J. (2001). The Perception-Behavior Expressway: Automatic Effects of Social Perception on Social Behavior. in Mark P. Zanna (ed.), , 33, 1-40.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 Dijksterhuis, A. & Bargh, J. (2001). The Perception-Behavior Expressway: Automatic Effects of Social Perception on Social Behavior. in Mark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3, 1-40. New York: Academic Press.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MA: Addison-Weseley.

- Forcier, B. H., A. E. Walters, E. E. Brasher, & J. W. Jones. (2001). Creating a Safer Working Environment Through Psychological Assessment: A Review of a Measure of Safety Consciousness. *Journal of Prevention & Intervention in the Community*, 22(1), 53–65.
- Hawley, A. (1986). *Human Ecology: A Theoretical Essa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ramer, C. S. & K. P. Penner. (1987). Food Safety Information and Regulation: Are these Substitutes or Complements?. *Advanced on Consumer Interests*, 80(4), 373–378.
- Lutz, R. J. (1985). Positivism, Naturalism and Pluralism in Consumer Research: Paradigms in Paradise, 1–7 in T.S. Srull (ed),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6 (Provo, UT: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ACR Presidential Address.
- Takala, J. (2013). Singapore WSH Research Agenda (2011–2016) and global/regional/local need to change. WSH Institute.
- Skinner, B. F. (1938). *The Behavior of Organisms: An Experimental Analysis*. Oxford, England: Appleton–Century.
- Wildavsky, A. (1980). *Search for Safety*. New Brunswick: Transaction books.
- Xue, H. (2005). Assessing the role of risk in agro–pastoral livelihoods in Shangrila County, Northwest Yunnan Province. *Center for Biodiversity and Indigenous Knowledge Community Livelihoods Program Working Paper 15, 15, 1–39*.

부 록

산업위생전문가들의 사회안전인식 조사 설문지

A. 다음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된 위험 및 안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와 의식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1. 다음의 가상적 상황을 읽고, 몇 가지 질문에 대해 귀하의 견해와 가장 가까운 것을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홍길동’ 씨는 집 근처 술집에서 소주 1병반과 2차로 맥주 3병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런데 홍길동씨가 막 잠자리에 들려는 순간, 이웃집 주인이 홍씨를 찾아왔다. 이웃집 주인은 급한 일이 생겨 나가야 하는데 홍길동씨의 차가 자신의 차를 막고 있다며 차를 치워달라고 부탁했다. 홍길동씨는 술이 미처 덜 깬 상태였지만 자신의 차를 다른 장소에 주차하기 위해 10여미터를 주행하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를 취소당했다.

1-1. ‘홍길동’ 씨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한 경찰의 처사는

_____ ① 융통성 없고 야박하다.

_____ ② 할 일을 했다.

1-2. 그 경찰이 홍길동씨와 같은 동네에 산다면 그는 이웃 주민들과

_____ ① 관계가 소원해 질 것이다.

_____ ② 변함없이 잘 지낼 것이다.

1-3. 내가 만약 그 경찰이었다면

_____ ① 홍길동씨를 눈 감아 주었을 것이다.

_____ ② 홍길동씨를 원칙대로 조치했을 것이다.

1-4. 내가 만약 그 경찰이었고 홍길동씨와 절친한 사이였다면

_____ ① 홍길동씨를 눈 감아 주었을 것이다.

_____ ② 홍길동씨를 원칙대로 조치했을 것이다.

2. 다음에서 제시하는 일상생활 속의 상황과 관련된 문항들에 대하여,
‘예’ , ‘아니오’ 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번호	상 황	예	아니오
1	귀하는 수입이 불안정할지라도 여가가 보장되고 여행 등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직업을 택하시겠습니까?		
2	귀하는 밤에 문단속을 철저히 하십니까?		
3	귀하는 열차를 탈 때 열차시간에 딱 맞추어서(여유시간을 거의 두지 않고) 도착하십니까?		
4	귀하는 삶에 도전이 없다면 삶이 너무 지루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5	귀하는 장기 저축을 하십니까?		
6	귀하는 과속을 하거나 속도를 내서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7	귀하는 운전하거나 차를 탈때 교통규칙 및 신호 등을 철저히 지키는 다른 차량들 때문에 짜증낸 적이 있으십니까?		
8	귀하는 물건을 살때 보증서를 꼼꼼하게 체크하십니까?		
9	귀하는 사람들이 보험을 들거나 저축을 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	귀하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거나 건강을 체크하십니까?		
11	귀하는 차를 탈 때 언제나 안전벨트를 매십니까?		
12	귀하는 가끔씩 경주나 선거 등에 내기돈을 거십니까?		
13	귀하는 손쉽게 돈을 꾸거나 빌려주는 편이십니까?		
14	빚을 지거나 채무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15	귀하는 다른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을때도 혼자서 길을 건너시는 편이십니까?		
16	귀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7	귀하는 계약 등을 할 때 계약서 등 서류에 있는 작은 글씨들도 꼼꼼하게 읽어보십니까?		
18	귀하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볼까를 염두하면서 행동을 조심하시는 편입니까?		
19	귀하는 모험이나 스릴을 느끼는 운동을 좋아하거나 하고 싶으십니까?		
20	귀하는 평소에 청결과 위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3. 다음의 여러 가지 항목들중 당신이 자연을 보는 태도와 가장 가까운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___ ① 자연은 예측불가능하므로 인간은 자연에 순응하며 살 수 밖에 없다.
- ___ ② 인간이 아무리 자연을 훼손하더라도 자연은 스스로 복구할 힘을 가지고 있다.
- ___ ③ 일정 한도까지는 인간이 자연을 훼손해도 스스로 복구하지만 그 한도를 넘으면 큰 재난을 가져온다.
- ___ ④ 자연은 인간이 조금만 훼손해도 큰 재난을 가져온다.

4. 당신이 사는 동네의 사람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강의 상류에 공단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___ ① 공단의 설립여부에 전혀 관심이 없다.
- ___ ② 나에게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없으면 무방하다.
- ___ ③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공단설립에 동의한다.
- ___ ④ 뜻있는 사람들과 반대운동을 펴서라도 공단설립을 막는다.

5. 세상일에는 모두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내게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해 주십시오.

- ___ ① 운명(전생, 하늘의 섭리 등) 때문이다.
- ___ ② 내 잘못 때문이다.

6-1. 귀하는 토정비결이나 사주, 점 등을 본 적이 있습니까?

- ___ ① 있다.
- ___ ② 없다.

6-2. 귀하는 토정비결이나 사주, 점 등의 결과를 믿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습니까?

- ___ ① 많이 믿는다.
- ___ ② 약간 믿는다.
- ___ ③ 믿지 않는다.

7. 한 사람이 매우 가난하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 ___ ① 그 사람이 게으르고 무능력하기 때문이다.
- ___ ② 사회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8. 귀하에게 1억원이 생긴다면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 ___ ① 금리는 좀 낮더라도 안전한 은행에 예치해 매달 이자를 받는다.
- ___ ② 조금 불안하더라도 큰돈을 벌 수 있는 데(주식, 사채, 부동산 등)투자한다.

9. 만일 귀하의 자녀가 얻은 수능점수가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기에 안심할 수 없는 점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___ ① 실패해서 재수를 하더라도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라고 하겠다.
- ___ ② 안전하게 합격할 수 있는 대학에 지원하라고 하겠다.

10. 일기예보에서 비 올 확률이 50%라고 한다면 귀하는 외출할 때 우산을 가져가시겠습니까?

- ___ ①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
- ___ ②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11. 만일 귀하가 5살 된 자녀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절대로 어른 없이는 밖에서 혼자 놀지 못하게 한다.
- ___ ② 충분한 주의를 준 후 혼자 나가서 놀도록 한다.

12. 만일 귀하가 저녁 회식에서 맥주를 한 병 정도 마셨다면 집에 갈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___ ① 운전을 한다.
___ ② 운전을 하지 않는다.

13. 친구가 귀하에게 1000만원을 신용으로 빌려달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___ ① 빌려준다.
___ ② 빌려주지 않는다.

14. 우리나라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평균적으로 10% 정도라고 한다면, 귀하는 암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 ___ ① 가입할 의사가 있다.
___ ② 가입할 의사가 없다.

15.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아직 큰 지진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귀하는 돈이 들더라도 모든 신축건물에 내진설계를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 ① 해야 한다.
___ ② 할 필요 없다.

16. 깊은 밤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켜져있고 지나는 차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___ ① 그냥 건넌다.
___ ② 파란불이 켜진 후 건넌다.

17. 만약 귀하가 지하철에서 소매치기 일당의 범죄 현장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___ ① 사람에게 알려 힘을 합하여 범인을 체포하려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실을 알려왔다면,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 ___ ① 나라에서 정한 일이므로 가능한 한 이에 따르겠다
- ___ ② 지방의회에 일임하겠다
- ___ ③ 보상비를 요구하여 이사하겠다
- ___ ④ 전체 주민과 상의하여 그 의견에 따르겠다
- ___ ⑤ 무조건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

22. 귀하의 거주지역에 공단이 건설될 경우에는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 ___ ① 취업기회가 늘어나므로 무조건 찬성한다
- ___ ② 공해산업이 아니라면 건설에 반대하지 않겠다
- ___ ③ 주민전체의 의사에 따르겠다
- ___ ④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겠다
- ___ ⑤ 건설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 반대 하겠다

23. 대형사고 발생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건축물 붕괴, 비행기 추락, 가스폭발 등)

- ___ ① 나와는 상관없음으로 무관심하다
- ___ ② 사고당사자는 개인적으로 운이 없다고 생각한다
- ___ ③ 사고를 면했지만 앞으로 조심한다
- ___ ④ 사회적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 ___ ⑤ 구체적 대안을 생각한다

24. 귀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안전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 것으로 보십니까?

- ___ ① 매우 높다
- ___ ② 다소 높다
- ___ ③ 보통이다
- ___ ④ 다소 낮다
- ___ ⑤ 매우 낮다

28.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귀하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래의 구분에서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숫자에 v 표시 해 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최하층			중간				최상층		

29.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숫자에 v 표시 해주세요)

-5	-4	-3	-2	-1	0	+1	+2	+3	+4	+5
매우 위험하다						매우 안전하다				

30. 우리 사회를 1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 사회의 위험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숫자에 v 표시 해주세요)

-5	-4	-3	-2	-1	0	+1	+2	+3	+4	+5
매우 위험해졌다						매우 안전해졌다				

31. 10년 후, 우리 사회의 불안수준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숫자에 v 표시 해주세요)

-5	-4	-3	-2	-1	0	+1	+2	+3	+4	+5
매우 위험해질 것이다						매우 안전해질 것이다				

32.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귀하의 불안수준은 100점을 가장 높게 보았을 때 몇 점 정도 됩니까?

() 점

33. 우리 사회의 인구를 100으로 하였을 때 우리 사회에서 귀하보다 불안을 더 느끼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34. 귀하의 거주 지역 500m 이내에 다음 중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v 표시 해 주세요)

시설의 종류	해당 여부	시설의 종류	해당 여부
① 철길		② 4차선 이상 도로	
③ 공장, 발전소		④ 유흥가	
⑤ 파출소, 경찰서		⑥ 소방서	
⑦ 주유소		⑧ 절 벽	
⑨ 공사 및 건설현장		⑩ 외진 뒷골목	

35.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래 도표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2013년 현재 불안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고, 1995년부터 매 5년 간격의 과거와 2015년까지의 5년 간격의 미래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해질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교차점에 V 표시 하여 주십시오.

매우 안전 <-----<불안을 느끼는 정도>-----> 매우 불안

점수 연도	0	1	2	3	4	5	6	7	8	9	10
1995											
2000											
2013											
2015											
2020											

아래의 응답은 오른쪽 페이지의 표 참조

36. 오른쪽 표에 열거된 사건들 중 10년 전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건을 영향력이 가장 컸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5개만 순서대로 그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	--	--	--

37. 오른쪽 표에 열거된 사건들 중 현재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사건을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5개만 순서대로 그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	--	--	--

38. 오른쪽 표에 열거된 사건들 중 10년 후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것 같은 대표적인 사건을 영향력이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5개만 순서대로 그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	--	--	--

<36번~38번 설문 응답을 위한 사건들>

1. 태풍, 홍수, 호우	26. 직업병
2. 폭설	27. X-ray, 방사선치료의 부작용
3. 가뭄, 기근	28. 중국과 일본의 군사 대국화
4. 폭염	29. 한반도에서의 전쟁
5. 지진, 쓰나미 (지진해일)	30. 북한 핵 문제
6. 수질오염 (상수원오염, 공장폐수 등)	31.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7. 대기오염 (자동차 배기, 황사 등)	32. 농산물 수입개방
8. 토양오염 (화학물질, 쓰레기 등에 의한)	33. 컴퓨터 바이러스 확산
9. 해양오염 (폐유방류, 적조 등)	34. 몰카, CCTV, 도청 등에 의한 사생활침해
10. 화재 (가정집, 사무실, 공장 등)	35. 사이버범죄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기, 해킹 등)
11. 산불	36. 살인
12. 건축물 붕괴사고 (건물·다리 등)	37. 강간·성폭력
13. 대형폭발사고 (도시가스, 화학공장 등)	37. 유괴·납치
14. 가스사고 (가정에서의 가스유출 등)	38. 강도·절도
15. 화생방 사고 (화학물질, 방사성물질, 핵폐기물 유출 사고)	39. 마약 및 알콜중독
16. 산재사고 (업무상 재해 등)	40. 급격한 경기변동 (부동산가격 폭등, 주가폭락, 물가상승 등)
17. 감전 등의 전기사고	41. 불안정한 고용과 취업난
18. 자동차교통사고 (충돌, 음주운전, 뺑소니 등)	42. 먹거리의 안전사고 (유해식품, 비위생적인 식품, 식중독 등)
19. 대형교통수단 사고 (열차전복, 비행기추락, 선박침몰 등)	43. 생명윤리침해사고 (장기매매, 유전자 조작 등)
20. 시설물 고장에 의한 사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사고 등)	44. 사회보장제도 미비 (국민연금, 복지제도 등)
21. 일상생활 중의 사고 (물놀이 사고, 레저 활동 중의 골절 등)	45. 빈부격차
22.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46. 학교폭력
23. 일반 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등)	47. 과격·폭력 시위
24.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등)	48. 부정부패
25. 신종 질병 (SARS, 조류독감, 광우병, AIDS 등)	49. 여야갈등
	50. 노사갈등

오른쪽 각각의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매우 낮음: 1 낮음: 2 보통: 3 높음: 4 매우 높음 :

사 건	(1)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빈도	(2) 앞으로 나에게 발생할 가능성	(3) 개인이 피할 수 있는 가능성	(4) 피해의 심각성
1. 태풍, 홍수, 호우				
2. 폭설				
3. 가뭄, 기근				
4. 폭염				
5. 지진, 쓰나미 (지진해일)				
6. 수질오염 (상수원오염, 공장폐수 등)				
7. 대기오염 (자동차 배기, 황사 등)				
8. 토양오염 (화학물질, 쓰레기 등에 의한)				
9. 해양오염 (폐유방류, 적조 등)				
10. 화재 (가정집, 사무실, 공장 등)				
11. 산불				
12. 건축물 붕괴사고 (건물·다리 등)				
13. 대형폭발사고 (도시가스, 화학공장 등)				
14. 가스사고 (가정에서의 가스유출 등)				
15. 화생방 사고 (화학물질, 방사성물질, 핵폐기물 유출사고)				
16. 산재사고 (업무상 재해 등)				
17. 감전 등의 전기사고				
18. 자동차교통사고 (충돌, 음주운전, 뺑소니 등)				
19. 대형교통수단 사고 (열차전복, 비행기추락, 선박침몰 등)				
20. 시설물 고장에 의한 사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사고 등)				
21. 일상생활 중의 사고 (물놀이 사고, 레저 활동 중의 골절 등)				
22.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				
23. 일반 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등)				
24. 성인병(암, 고혈압, 당뇨 등)				
25. 신종 질병 (SARS, 조류독감, 광우병, AIDS 등)				
26. 직업병				
27. X-ray, 방사선치료의 부작용				

각각의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매우 낮음: 1 낮음: 2 보통: 3 높음: 4 매우 높음:

사 건	(1) 그동안 우리 사회에 서 발생한 빈도	(2) 앞으로 나에게 발생할 가능성	(3) 개인이 피할 수 있는 가능성	(4) 피해의 심각성
28. 중국과 일본의 군사 대국화				
29. 한반도에서의 전쟁				
30. 북한 핵 문제				
31.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32. 농산물 수입개방				
33. 컴퓨터 바이러스 확산				
34. 몰카, CCTV, 도청 등에 의한 사생활침해				
35. 사이버범죄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유출, 사기, 해킹 등)				
36. 살인				
37. 강간·성폭력				
37. 유괴·납치				
38. 강도·절도				
39. 마약 및 알콜중독				
40. 급격한 경기변동 (부동산가격 폭등, 주가폭락, 물가상승 등)				
41. 불안정한 고용과 취업난				
42. 먹거리의 안전사고 (유해식품, 비위생적인 식품, 식중독 등)				
43. 생명윤리침해사고 (장기매매, 유전자 조작 등)				
44. 사회보장제도 미비 (국민연금, 복지제도 등)				
45. 빈부격차				
46. 학교폭력				
47. 과격·폭력 시위				
48. 부정부패				
49. 여야갈등				
50. 노사갈등				

각 줄마다 두 가지 위험을 비교하여 중요한 쪽에 점수를 O표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위험이 더 큼

오른쪽 위험이 더 큼

	큰 정도								중 간	큰 정도								
	←-----									-----→								
풍수해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화재
풍수해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교통사고
풍수해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범죄
풍수해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산업재해
풍수해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산불
풍수해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환경오염
풍수해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붕괴,폭발
화재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교통사고
화재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범죄
화재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산업재해
화재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산불
화재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환경오염
화재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붕괴,폭발
교통사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범죄
교통사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산업재해
교통사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산불
교통사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환경오염
교통사고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붕괴,폭발
범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산업재해
범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산불
범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환경오염
범죄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붕괴,폭발
산업재해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산불
산업재해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환경오염
산업재해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붕괴,폭발
산불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환경오염
산불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붕괴,폭발
환경오염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붕괴,폭발

7. 전공분야

산업위생	
산업간호	
산업의학	
환경분야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8. 소속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전일제 학생			(직장이 있는 경우는 직장인 란에 표기)
직 장 인	사업장		
	측정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대학 (교원)		
	연구소		
	병원		
	공공기관/정부기관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9. 산업보건업무 경력 _____ 년 _____ 개월

10. 주업무

측정	
분석	
대행	
검진	
연구	
행정/사무	
사업장관리	
교육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1. 귀하의 거주지의 거주형태는 아래에서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자기소유 (혹은 배우자) ② 부모소유 ③ 전세
 ④ 월세 ⑤ 공공임대 ⑥ 영구 임대 주택
 ⑦ 사택 ⑧ 기숙사 ⑨ 기타 ()

12. 귀하께서 현재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형태는 어떠합니까?

- ① 대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3대가 함께 거주)
 ② 핵가족(부모, 자녀 2대가 함께 거주)
 ③ 기타 ()

13. 현재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건강 ② 대체로 건강
 ③ 가벼운 질병이나 장애가 있음 ④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음

12. 귀하는 운전을 하십니까?

- ① 자주한다 ② 가끔씩 한다
 ③ 거의 하지 않는다 ④ 운전면허가 없다

13. 귀하는 다음의 질병에 걸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질병의 종류	예	아니오	질병의 종류	예	아니오
① 암			② 당뇨병		
③ 5대 장기(간장,심장,신장,췌장, 폐장)에의 질환			④ 소화기 장애		
⑤ 피부질환			⑥ 정신장애		
⑦ 부인과 질환			⑧ 순환기 장애		
⑨ 전염병(콜레라, 장티푸스 등)			⑩ 기타 ()		

14. 귀하는 다음의 사고를 겪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고의 종류	예	아니오	사고의 종류	예	아니오
① 운전 및 탑승 중 교통사고			② 보행 중 교통사고		
③ 추락 및 충돌 등에 의한 골절사고			④ 화재에 의한 화상		
⑤ 강이나 바다에 빠짐			⑥ 폭발사고		
⑦ 식중독			⑧ 감전 등 전기에 의한 사고		
⑨ 약물 사고			⑩ 기타 ()		

15. 귀하는 다음의 범죄에 노출되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범죄의 종류	예	아니오	범죄의 종류	예	아니오
① 방화·실화			② 통화(通貨)·문서위조		
③ 상해·폭행			④ 유기·학대		
⑤ 강간·성추행			⑥ 명예훼손·협박		
⑦ 사생활·비밀침해			⑧ 절도·강도		
⑨ 사기·공갈			⑩ 횡령·배임		
⑪ 마약·알콜중독			⑫ 기타 ()		

ABSTRACT

Study on Comparison of Risk and Safety Perceptions of Industrial Hygienists Before and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Lim, Dae-Sung
Major in Industrial Hygiene Engineering
Dept. of Mechanical 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perception of safety and risk and its' chang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in 2014 for the Korean industrial hygienists. Two surveys with questionnaire composed of 51 questions were completed for attendees of the Korea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 (KIHA) conference. One was conducted in the 2013 KIHA Fall conference (N = 181) and the other one was in the 2014 KIHA Summer conference (N = 123). Between these two survey, there was a Sewol Ferry disaster in 14 April 2014 which is believed to affect seriously to safety and risk perception to Korean.

It was revealed that it was getting stronger industrial hygienists awareness of safety rule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p < 0.05$). It was apparent that people over the age of 30 were more sensitive to social safet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valuation and attitude against to the governmental safety policy between in the year of 2013 and 2014. Creditability against to public organization for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was decreased. Self evaluation of respondent's safety level was also decreased. This trend shows mostly in younger generation.

It was evaluated that overall social safety level was decreased and anxiety level was increased. Score of social safety in the ± 5 Likert scale was 0.68 in 2013 survey result and -0.33 in 2014 survey result($P < 0.05$).

Based on past experiences, it was replied that the most serious threaten factor of accident or disaster were 'mass traffic accidents > industrial accidents > accident in normal activity > building collapse > large facility failure' in series. Based on future expectation, it was replied that the most serious threaten factor of accident or disaster in the future were 'political conflict > illegalities and corruption > large facility failure > fire > mass traffic accidents' in series. Based on seriousness, it was replied that the most serious threaten factor of accident or disaster 'building collapse > illegalities and corruption > side effect of radiation therapy > accident in normal activity > occupational disease' in series.

They picked 'safety insense > hurry-up habit and culture > focusing short-term benefit > easy-going attitude > insufficient safety education' for the causes of low social safety level in 2013. In 2014, they were 'safety insense > easy-going attitude > focusing short-term benefit > insufficient safety education > hurry-up habit and culture'.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 because it was originally not designed to survey between the Sewol Ferry disaster in 2013. In addition, the survey targets are industrial hygienists who are familiar with occupational disease and injury.

【Keywords】 safety and risk perception, safety and risk awareness, safety and risk consciousness, social safety perception.